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도 문화유산 보유사찰의
분포현황 및 유산적 가치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自然·文化遺産教育學科

姜 金 林

2021年 8月



제주도 문화유산 보유사찰의 분포현황 및 유산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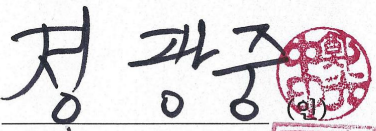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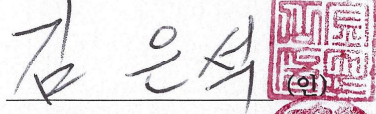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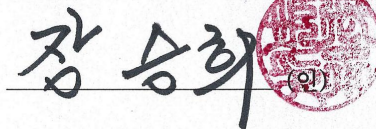
지도교수 장 승 희

강 금 립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강금립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정 광 중
위 원  김 은 석
위 원  장 승 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1년 8월

Distribution status and heritage value of
temples with cultural heritage in Jeju Island

Geum-Rim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Seung-Hee J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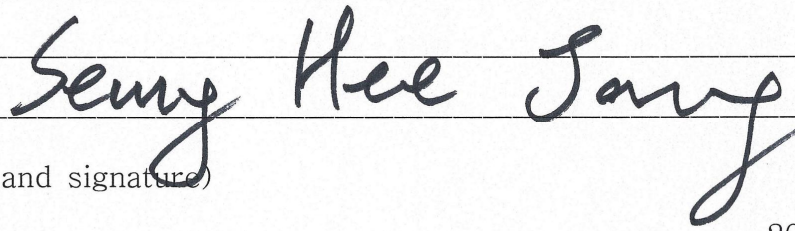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2021.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Seung-Hee Jang

Prof.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Name and signature)

2021. 8.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대상.....	3
II. 제주사찰의 역사와 분포현황.....	5
1. 제주사찰의 설립 배경.....	5
가. 삼국시대.....	5
나. 고려시대.....	6
다. 조선시대.....	9
2. 근·현대 제주사찰의 역사와 분포현황.....	13
가. 근대: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13
나. 현대: 해방 이후(1945년~2020년)	20
III. 제주도 문화재 보유사찰과 문화재 분포현황	26
1. 제주도 문화재 보유사찰의 분포현황	27
가. 석탑	27
1) 불탑사 오층석탑(보물 제1187호)	27
나. 불상	32
1)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유형문화재 제16호)	32
2)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유형문화재 제18호)	37
3)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유형문화재 제24호)	40
4) 삼광사 목조보살좌상(유형문화재 제25호)	43
5)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유형문화재 제26호)	46
6) 월정사 불상(문화재자료 제4-1호/제4-2호)	50

7) 월영사 목조여래좌상(문화재자료 제6호)	54
8) 보덕사 목조여래좌상(문화재자료 제7호)	56
9)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문화재자료 제9호)	58
10) 복신미륵(민속문화재 제1-1호/제1-2호)	61
2. 서귀포시 문화재 보유사찰의 분포현황	66
가. 석탑	66
1) 존자암 세존사리탑(유형문화재 제17호)	66
나. 불상	71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유형문화재 제20호)	71
2) 정방사 석조여래좌상(유형문화재 제23호)	74
3)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유형문화재 제35호)	77
IV. 제주도 보유사찰 문화재의 유산적 가치와 활용방안	82
1. 문화유산 석탑·불상의 유산적 가치	82
가. 제주도 석탑의 유산적 가치	82
나.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과 유산적 가치	85
2. 문화재 보존방안 및 교육자료 활용방안	89
가. 문화재 보존방안 모색	89
나. 문화유산의 교육 활용 방법	90
V. 결론 및 제언	97
1. 결론	97
2. 제언	99
참 고 문 헌	100
ABSTRACT	104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사찰현황 목록	107

표 목차

<표 I-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석탑·불상) 보유사찰 현황	4
<표 II-1>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의 제주도 사찰 현황 비교	10
<표 II-2> 조선총독부 신고 사찰현황(1910년~1945년)	16
<표 II-3> 조선총독부 미신고 사찰현황(1911년~1945년)	18
<표 II-4> 제주특별자치도 사찰 분포현황	24
<표 III-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현황(석탑·불상)	81
<표 IV-1> 문화유산의 종류	82
<표 IV-2> 조선후기 시기별 조성된 불상의 특징	86

그림 및 사진 목차

[그림 III-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석탑·불상) 보유사찰 지도	26
[사진 III-2] 불탑사 전경	27
[사진 III-3] 불탑사 오층석탑(보물 제1187호)	31
[사진 III-4] 관음사 전경	32
[사진 III-5]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유형문화재 제16호)	36
[사진 III-6] 보림사 전경	38
[사진 III-7]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유형문화재 제18호)	39
[사진 III-8] 월계사 전경	40
[사진 III-9]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유형문화재 제24호)	42
[사진 III-10] 삼광사 전경	44
[사진 III-11] 삼광사 목조보살좌상(유형문화재 제25호)	45

[사진 III-12]	용문사 전경	47
[사진 III-13]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유형문화재 제26호)	49
[사진 III-14]	월정사 전경	51
[사진 III-15]	월정사 이조(泥造)여래좌상(문화재자료 제4-1호)	52
[사진 III-16]	월정사 목조보살입상(문화재자료 제4-2호)	53
[사진 III-17]	월영사 전경	54
[사진 III-18]	월영사 목조여래좌상(문화재자료 제6호)	55
[사진 III-19]	보덕사 전경	57
[사진 III-20]	보덕사 목조여래좌상(문화재자료 제7호)	58
[사진 III-21]	원명선원 전경	59
[사진 III-22]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문화재자료 제9호)	60
[사진 III-23]	복신미륵-동자복(민속문화재 제1-1호)	63
[사진 III-24]	복신미륵-서자복(민속문화재 제1-2호)	64
[사진 III-25]	존자암 전경	66
[사진 III-26]	존자암 세존사리탑(유형문화재 제17호)	70
[사진 III-27]	서산사 전경	71
[사진 III-28]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유형문화재 제20호)	73
[사진 III-29]	정방사 전경	75
[사진 III-30]	정방사 석조여래좌상(유형문화재 제23호)	76
[사진 III-31]	영조사 전경	77
[사진 III-32]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유형문화재 제35호)	79

【국문 초록】

제주도 문화유산 보유사찰의 분포현황 및 유산적 가치

장 금 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지도교수 장 승 희

문화재란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국가 혹은 세계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문화유산은 조상들의 사고, 관념, 습관 등을 알 수 있는 물질적인 자료이다. 문화유산 그 자체로도 가치가 없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를 파악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의미를 창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불교문화재로 등록된 석탑과 불상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사찰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그곳에 존재하는 문화재들의 보존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것들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파악하고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문헌분석, 문화재 관련기관 방문 자료수집, 문화재 보유사찰 현장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회 이상 답사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모든 불교 관련 문화재중 석탑과 불상을 보유하고, 그 문화재들을 관리하는 사찰들의 문화재와 그 분포현황이다. 제주도에 불교문화재 석탑과 불상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찰은 14곳이며, 2곳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종류별로는 석탑 1건, 사리탑 1건, 불상 15건이다. 문화재 지정 현황은, 국가 지정 보물 1건, 제주도지정 유형문화재 9건, 문화재자료 5건, 민속문화재 2건 등이다. 재료별 불상의 종류는 목조 9건, 석조 2건, 이조 1건, 목조불감 1건, 미륵

불 2건이다.

문화유산은 그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생활했던 조상들의 사고, 관념, 습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을 학습자료로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가 유발되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기를 수 있도록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범교과적으로 수업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은 역사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며, 역사에 관한 관심과 애착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제주도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 많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보급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모두 다섯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에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에 소장된 석탑과 불상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기존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주도에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불상, 탕화 등이 사찰에 소장되어 있다. 추후 문화재 등록과 아울러 문화재의 가치가 재평가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문화유산은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에도 그 교육적 의의를 간과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더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장 자료에 대한 관리운영과 매뉴얼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비교 연구도 함께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문화유산을 장기적으로 보존 및 교육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전용 전각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단위 사찰에 소장된 문화재에 대한 단편적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향후 통합적 관리로 일원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불교문화재 소장 전용 박물관 건립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육은 문화재 소유 현장을 공유한 현장성과 학교 교과 연계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진행되어야 한다. 여러 기관이 지향하고 있는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분명하며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하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문화유산, 문화재, 유산적 가치, 불교문화재, 제주도 사찰, 분포현황.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1995년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한국 최초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문화유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유산은 우리 조상들의 사고, 관념, 습관 등을 알 수 있는 물질적인 자료이다. 문화유산 그 자체로도 가치가 없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를 파악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의미를 창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세계 각지의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있고, 그 효과로 지역의 경제적 이득으로 인한 부가 이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문화유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70%의 문화유산이 불교와 관계된 것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불교문화재로 등록된 석탑과 불상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지역 사찰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그곳에 소장된 문화재들의 보존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것들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파악하고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주도에 등록된 불교문화재 중 석탑과 불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과 문화재의 분포현황을 살펴보았다. 제주도 지역에는 문화재 보유사찰이 10곳으로 문화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탑 1건, 불상은 14건인데, 이중에 2건은 제주시에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의 사찰은 4곳으로 문화재는 사리탑 1건, 불상 3건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문화재들 대부분은 제주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주불교 전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삼국사기 기록물에 탐라국은 백제 문주왕(文周王, 475~477년) 이전부터 방물을 바쳤다는 내용에서 이미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탐라는 백제에 이어 고구려와도 방물을 바치는 관계를 맺었다가 662년 신라와도 교역 관계를 맺었다. 특히 삼면이 바다였던 탐라는 활발한 해상활동으로 일본과 중국과도 교류하면서

외교의 폭을 넓혔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661년 이후 일본과는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였고, 665년 당나라 국가의례에 참석하는 등 중국과도 교류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탐라는 백제로부터 불교가 유입되어, 신라·고구려 등 삼국과 해외인 중국과 일본까지도 교류하면서 불교의 문화가 전래하여 불교 신앙의 꽃을 피웠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전 지역에서 고려시대 사찰유적지들이 발견되고 있는 데서 고려시대 제주불교 신앙활동이 활발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원나라 기황후의 전설을 품고 있는 불탑사 오층석탑은 제주의 보물로써, 고려시대의 제주불교를 반추케 한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송유억불 정책의 시행으로 불교는 급격히 쇠퇴하였다. 특히 조선후기 제주불교는 이형상 목사에 의해 사찰과 토속신앙이 모두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민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200여 년 동안 민간신앙과 습합되었다. 주민들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불교 신앙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후기 민간신앙 속에서 숨죽여 활동하던 제주불교는, 1909년 관음사 창건을 시작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움트기 시작했다. 1918년 관음사가 대흥사 말사로 조선총독부에 등록되었다. 이를 계기로 제주에는 많은 사찰들이 창건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육지 본사 사찰들이 제주에 포교당을 건립하기 시작하면서 사찰에 모셔질 불상들이 제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불상들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문화재급 소형 불상들로, 사찰 인연에 따라 새로 창건되는 제주의 사찰로 이운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불교문화재 중 석탑과 불상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석탑의 현황을 살펴보면, 석탑의 불모지인 제주에서 제주 현무암을 주재료로 고려후기에 조성된 불탑사 오층석탑과 존자암 세존사리탑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불상의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불상으로 제주시 지역에는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월정사 이조(泥造)여래좌상과 목조보살입상, 월영사 목조여래좌상, 보덕사 목조여래좌상,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복신미륵으로 불리워지는 동자복과 서자복이 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에는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등 모두 17건이 현존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 현황은, 국가지정 보물 1건, 제주도지정 유형문화재 9건, 문화재 자료 5건, 민속문화재 2건 등이 지정 보호되고 있다. 석탑은 사찰경내에 세워져 있어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하지만 불상들은 보존상태가 원만하고 전각이 잘 지어져 제자리에 봉안된 불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불상들도 있다. 아쉽게도 일부 불상들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찰 주지실에 모셔져 있기도 하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의 주된 방법은 선행연구 문헌분석, 문화재 보유사찰 현장을 답사하여 주지스님 인터뷰, 사찰 전경 및 문화재를 직접 촬영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불교문화재 자료집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 14곳과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곳을 지난 5개월 동안 각 3회 이상 직접 방문하였다. 사찰에 주석하고 계시는 주지스님으로부터 사찰 설립 배경, 문화재가 사찰에 이운되어 봉안하게 된 배경 및 문화재 보존상황을 파악하고 문화재들을 친견하였다. 또한 직접 연구자가 문화재를 촬영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동자복은 제주시 건입동에 서자복은 용담동 용화사 옆에 소재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모든 불교 관련 문화재 중, 석탑과 사리탑 그리고 불상이며, 그 문화재들을 관리하는 사찰들의 분포현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에 등록된 불교문화재 중 석탑과 사리탑 및 불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의 분포현황과 사찰에 소장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상태와 교육자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근대불교 이전의 제주불교 전래와 사찰 분포현황을 파악하였으며, 1909년 안봉려관 스님이 관음사 창건 이후 제주에는 많은 사찰이 건립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육지부에서 조선후기에 제작된 문화재급 불상들이 제주로 이운하게 되는 과정을 파악하였다.

둘째, 사찰에서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지속

가능한 보존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의미를 창출하여 후손들에게 가치 있는 교육자료의 활용방안을 탐구하였다.

<표 I-1>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불교문화재 중 석탑과 불상을 소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찰 현황이다.

<표 I-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석탑·불상) 보유사찰 현황

문화재보유사찰명	창건연도	소재지	문화재분류	문화재명	조성시대
불탑사	1930년	제주시 월당으로16길41	국가 지정 보물	불탑사 오층석탑	고려후기
존자암	미추정	서귀포시 영성로 203	제주도 지정 유형 문화재	존자암 세존사리탑	고려말 조선초
관음사	1909년	제주시 산록북로 660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선후기
보림사	1957년	제주시 사라봉동길 61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선시대
서산사	1943년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36번길 24-1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조선시대
정방사	1931년	서귀포시동부로12번19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조선시대
월계사	1937년	제주시한림읍한림상로39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조선시대
삼광사	1992년	제주시 아봉로 279-7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조선후기
용문사	1945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531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조선후기
영조사	1951년	서귀포시 대정읍영조사로16		영조사 목조아미타 여래삼존불감	조선후기
월정사	1934년	제주시 아연로 216-5		제주도 지정 문화재 자료	월정사이조여래좌상 월정사목조보살입상
월영사	1936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 2길 40-16	월영사 목조여래좌상		조선시대
보덕사	1941년	제주시 독짓골8길 26	보덕사 목조여래좌상		조선시대
원명선원	1952년	제주시 원두길 34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조선시대
옛 만수자지	고려시대 추정	제주시 만덕로 13-5	제주도 지정 민속문화재	복신미륵(동자복)	고려시대
옛 해륜사지	고려시대 추정	제주시 동한두길3		복신미륵(서자복)	고려시대

※ 출처: 연구자 정리(2020년 10월 현재)

II. 제주사찰의 역사와 분포현황

1. 제주사찰의 설립 배경

가. 삼국시대

제주불교의 전래에 관한 기록은 “발타라존자가 900나한과 함께 탐몰라주에 나누어 살았다.” 라는 내용을 포함한 남방전래설과, 삼국시대에 유입되었다는 북방전래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남방전래설은 문헌적 자료 미약으로 가설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북방전래설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탐라국은 백제 문주왕(文周王, 475~477년) 이전부터 방물을 바쳤다는 기록에서 이미 삼국시대에 불교가 제주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¹⁾

한금순(2018)에 의하면, 탐라국 시대의 제주불교는 1498년(연산군 4년) 무오사화로 제주도에 유배 온 홍유손(洪裕孫, 1431~1529)²⁾의 저서인 『소총유고(篠叢遺稿)』의, 「존자암개구유인문(尊者庵改構侑因文)」이라는 옛 기록 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지금 이 존자암은 제주도에서 삼성(三姓)이 처음 일어날 때 창건되어 삼읍(三邑)이 성립한 뒤에까지 오랫동안 전해 왔으니, 비보소(裨補所)이자 세상에 이름난 지 오래다.” 라고 하였다.³⁾ 김창화(2009)에 의하면, 삼국사기에서 탐라는 주로 백제와의 교류를 통해서 불교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476년에 탐라의 왕은 백제의 문주왕에게 토산물을 바치고 ‘은술’이라는 관직을 하사받았다는 것이다.⁴⁾ 다른 자료에 의하면, 탐라는 백제에 이어 고구려와도 방물을 바치는 관계를 맺었다가 662년에는 신라와도 그런 관계를 맺었다.⁵⁾ 구체적으로 661년 이후에는 일본 지역과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였으며, 665년에는 당나라의 국가의례에 참석하는 등

1)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21,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2006, pp.312-315.

2) 홍유손(洪裕孫, 1431년~1529년, 향년 99세): 조선전기의 문신 및 시인, 학자이다. 김종직 문인, 시와 술, 토론을 좋아하여 청담파라고 불리었다. 무오사화 때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 이후 풀려남. 저서에 소총유고가 있다. 출처: 구글, <https://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우리모두의백과사전>, 검색일: 2021.1.14.

3) 한금순, 『제주불교사』, 탐라정보문화원, 2018, p.48.

4) 김창화, 「조선시대 제주도 불상연구 -기년명 불상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10.

5) 배연이,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 고찰」, 경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5.

중국지역과도 교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제주도가 섬이고 변방이었다는 특성이 잘 드러나는 인식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삼국시대에 이미 탐라는 중국과 고구려 그리고 일본까지도 교류하고 있었다. 또한 백제가 멸망하자 그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을 생각하면 제주도로 건너온 백제인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탐라가 백제와 처음 교류를 할 무렵 백제는 이미 불교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이후였으며 고구려, 신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탐라의 활동을 고려해 본다면 삼국시대에는 이미 제주에도 불교가 전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⁶⁾

이처럼 제주불교는 삼국시대에 백제로부터 불교가 유입되어 고구려·신라와 교류하면서 불교 신앙의 꽃을 피웠다. 특히 삼면이 바다였던 탐라는 활발한 해상활동으로 일본, 그리고 중국과도 교류하면서 외교의 폭을 넓혔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훈요십조(訓要十條)⁷⁾를 통치이념으로 건국한 나라이다. 고려조에 들어 탐라는 1034년(고려 정종 원년)부터 국가의례인 연등회와 팔관회⁸⁾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⁹⁾ 팔관회는 고유의 토속신앙에 불교의식이 합해져서 부처와 보살·범천·팔부대중을 공양하는 불교 의식행사이다. 고려에서 행해지는 불교 행사인 팔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개경으로 올라간 탐라민 일행들은 80여 명~200여 명의 규모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도 일부나마 육지와도 불교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¹⁰⁾ 탐라는 태조(太祖, 재위 918~943) 이후 고려에 여러차례 방물을 바친 기록이 남아있으며, 충렬왕(1275~1308)때 활동한 혜일 스님은 묘련사(妙蓮寺)·서천암(逝川庵)·보문사(普門寺)·법화사(法華寺) 등에 찬시를 남기기도 하였다.¹¹⁾ 충혜왕 4년(1343)에는 왕사를 역임한 학선(鶴仙)과 충목왕 4년(134

6)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315.

7) 훈요십조란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회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고려사』 권2, 태조26), “여섯째(其六日).

8) 팔관회: 우리 민족의 고유 민족신앙과 불교의 팔관제계(八關齋戒)가 습합된 신라와 고려시대의 불교행사, 구글: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1.1.14.

9) 『고려사』, 정종(1034~1046) 즉위년 11월, 구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21.01.14.

10) 김창화, 앞의 논문(2009), p.11.

8)에는 승려 종범(宗範)이 탐라에 유배되기도 하였다.¹²⁾

이를 통해 볼 때, 탐라국은 불교국가인 고려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 9~10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 등이 출토된 수정사와 법화사 유물 등을 감안할 때 고려시대에 제주에서 불교가 융성했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 존자암은 국성재를 봉행함으로써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비보(裨補)사찰¹⁴⁾이었으며, 법화사와 수정사는 원의 지배 이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산남과 산북의 사찰들을 관리하는 비보사찰이다. 법화사 발굴 조사터에서 고려의 왕궁지인 개성의 만월대와 몽고 왕궁에서 출토된 것과 흡사한 용과 봉황문 막새가 출토되었는데, 이 유물들은 고려가 왕실 건축 이외의 건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던 것들이다. 또한 원나라 황실에 공녀로 끌려갔다가 이후 원나라 순제[順帝, 재위:1333(37)~1356(70)]¹⁵⁾의 제2 황비가 된 기황후가 태자를 낳기 위한 원찰로 창건했다는 원당사(현 불탑사)가 전해진다. 현재 불탑사에는 고려시대 양식인 보물 제1187호 5층 석탑이 있으며, 이 석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무암으로 제작된 석탑이자 제주에서 직접 만든 석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충렬왕 22년(1296년)에는 묘련사(현 애월읍 광령리 대각사)에서 불경 목판이 판각되었다는 사실도 2006년 밝혀지기도 하였다.¹⁶⁾

이처럼 고려시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제주도 전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사찰들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존재하고, 그 증거인 다양한 석탑들도 남아 있다. 발굴된 고려시대 사찰로는 강림사지·곽지사지·고내리사지·금덕리사지·일과리사지·해륜사지·서천암지·오조리사지·광령리사지·성불암지·상귀리사지·보문사

11)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전기 문신 이행·윤은보 등이 『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하여 1530년에 편찬한 지리서, 관찬지리서. 출처: 구글,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1.01.04.

12) 『고려사』, 충혜왕(1330~1344), 4년 4월, 충목왕 (1344~1348), 4년 12월, 구글, 한국사대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21.01.04.

13)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316.

14) 도선(道詵)의 비보사탑설(裨補寺塔設)에 의해 지정되거나 건립된 사원: 비보사탑설 또는 비보사상이란 나말여초의 격변기에 도선이 불교교단을 재정비하고 나아가 전국토를 재개발하기 위해 수립한 사상체계이다. 이 사상은 불교의 밀교사상(密敎思想)과 도참사상(圖讖思想)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구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1.02.06.

15) 원(元)나라 순제: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1.02.03.

16) 제주불교100년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 2013, p.196.

지·관음사지·해안동사지 등이 있다. 이 유적지들은 지금은 다 폐사지이지만, 그곳에서는 고려시대의 도기 편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그 외에도 산방굴사를 비롯한 20여 개의 사찰에서 고려시대의 기록 또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대략 100여 곳의 사찰이 고려중기에서 조선초기까지의 유지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현재 폐사지로 발굴되는 곳이 80여 곳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¹⁷⁾

이처럼 제주불교는 개경에서 행해지는 연등회와 팔관회에 참석하였다는 점과 수정사·법화사·존자암이 비보사찰이었다는 문헌기록, 그리고 발굴조사로 출토된 고려시대 다수의 유물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고려시대에 불교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증거로 묘련사·보문사·서천암·산방굴사 등이 고려시대의 사찰들이 기록에 남아있고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되는 폐사지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려불교의 전체적 흐름과 마찬가지로 제주불교도 국가적 지원을 받아 불교문화 활동이 번창하였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불교는 고려시대에 전도에 걸쳐 골고루 퍼졌으며 민간의 일상생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의 불교유물 가운데 독특한 위상을 간직하고 있는 민간신앙의 대상인 복신미륵(福神彌勒)이 있다. 고려시대의 미륵불로 추정되고 있는 복신미륵은 제주시내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자리하고 서로 마주 보고 있다. 동쪽 건입동에 있는 것을 동자복(東資福), 서쪽 용담동에 있는 것을 서자복(西資福)이라 한다.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불상으로 얼굴 모습이나 옷 주름 등에서 토속화된 불상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복신미륵(福神彌勒)·돌미륵(石彌勒)·미륵부처(彌勒佛) 등으로 불리면서 신앙되어온 이 불상은 제주의 토속화된 민간신앙과 불교의 미륵신앙의 융합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⁸⁾

고려시대는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훈요10조¹⁹⁾를 강조하며 건국한 나라이다. 탐라시대 제주는 고려의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에 참석하면서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그리고 제주의 전 지역에서 고려시대 사찰유적지들이 발견되면서 제주불교 신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나라 기황후의 전설로 세워졌

17)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319.

18) 위의 책, pp.319-320.

19) 『고려사』, 태조 26년(943년) 4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구글,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21.01.18.

다는 불탑사 오층석탑은 제주도의 유일한 보물로 고려시대의 제주불교를 상상하게 한다. 그 시절 웅장했던 사찰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유물들만이 그 시절의 화려함을 전해주고 있다.

다. 조선시대

조선의 억불숭유 정책으로 세종 때 선교 양종으로 종파를 병합하였고, 사찰의 경제적 기반을 축소해 나가는 등 정책으로 불교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태종은 불교 탄압 정책으로 1406년에 전국의 선교(禪敎) 양종, 사찰의 수와 토지, 노비의 수를 제한하고, 각 지방의 비보사찰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였다. 제주도에서도 1408년 고려의 비보사찰인 법화사의 노비 280명과 수정사의 노비 130명을 각각 30명으로 줄임으로써 불교의 세력을 약화시켜 나갔다.²⁰⁾

제주도의 사찰에 대한 국가지원은 홍유손의 『소충유고』중 「존자암 개구유인문」(1507)에 ‘존자암은 비보소(裨補所)다. 나라에서 이 암자에 논을 하사하여 벼를 심어 제를 지낼 경비로 삼았다.’ 라는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의 국성재를 지내던 존자암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중단은 제주지역의 다른 사찰에 대한 지원도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한다. 국가적 지원이 없어지면서 경제적 여력이 취약한 제주도 내의 사찰들은 급격히 사세가 기울어져 갔다.

제주불교는 육지부 사람들의 눈에는 색다른 모습으로 보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제주도의 승려들에게는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 찰방 김위민의 보고서에 의하면, “육전(六典)에 승려는 아내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의 승려들은 공공연하게 아내가 있고 사사(寺社)를 자기 집으로 삼으며, 관청의 부역도 별로 없이 앉아서 배부르게 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육지 승려들이 소문을 듣고 알아 제주로 몰려든다. 관에서도 금하지 않아 폐단인 제주의 풍속” 이라고 보고하면서, “칭컨대 제주의 승려들을 모두 조사하여 모조리 목자(牧者)로 하거나 군역에 보충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세종은 정부와 육조에 안건을 내려

20) 『조선왕조실록』, 태종 8년(1408년), 2월, 구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검색일: 2021.01.14.

의논하게 하였고 그 결과 그 청을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²¹⁾ 이것으로 보아 제주불교는 고려시대에는 스님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20년 제주에 유배 왔던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에도, “음사(淫事)와 함께 부처에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 당시 민간에 깊숙이 뿌리내린 제주불교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 고려시대의 불교와 무격신앙과 습합된 산천 성황(城隍) 신앙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유교 제례로 정비되어 국가 제사로 모셔졌다. 특히 잦은 해난사고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도서 지역 주민들은 내륙지역 주민보다 신을 섬기는 제사를 자주 하였으며, 국가도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바다와 섬의 신을 섬기는 장소를 사묘로 지정해 그 제사를 주도하였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유교라는 통치이념 아래 유교 의례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무격(巫覡)신앙과 불교를 계속 신앙하였다. 조선중기 제주불교도 김정의 묘사처럼 음사(淫事)와 함께 부처를 섬기던 모습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밀교²²⁾적 성향이 강한 특성을 보이는 제주불교는 고려말 원나라의 100년 동안의 지배에서 오는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승려의 결혼 생활은 조선시대 제주불교 탄압의 좋은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²³⁾

1530년(중종 25년)에 편찬된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관찰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653년 『탐라지』에서 조선전기 100여 년 사이에 기록된 사찰 현황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의 제주도 사찰 현황 비교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			비고
연번	지역	사찰명	연번	사찰명	현황	
1	제주목	강림사	1	강림사		
			2	곽지사	폐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음
2	제주목	관음사	3	관음사		

21)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1427년), 6월, 구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21.01.18.

22) 밀교: 붓다의 깨우친 진리를 직설적으로 은밀하게 표출시키는 불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처: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1.01.14.

23)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p.322-324.

			4	굴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음
			5	돈수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음
3	제주목	만수사	6	만수사		
4	제주목	묘련사	7	묘련사	폐사	
5	제주목	문수암	8	문수암		
6	대정현	법화사	9	법화사	폐사	초가 암자 몇 칸만 남아있다.
7	제주목	보문사	10	보문사		
8	제주목	서천암	11	서천암		
9	정의현	성불암	12	성불암		
10	제주목	소림사	13	소림사		
11	제주목	수정사	14	수정사		
			15	안심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음
12	정의현	영천사	16	영천사		
			17	원당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음
13	제주목	월계사	18	월계사	폐사	
14	제주목	존자암	19	존자암		
15	제주목	해륜사	20	해륜사		

※ 출처: 한금순, 「제주불교사」, 탐라성보문화원, 2018, p.368.

『신증동국여지승람』권 38에는 제주목 12개소 사찰, 정의현 2개소, 대정현 1개소의 사찰 등 모두 15개소가 있음을 기록해 놓고 있다. 『탐라지』에는 당시 현존하는 15개소의 사찰과 5개소의 폐사된 사찰을 기록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해 보면, 안심사·원당사·돈수암·굴암·곽지사 등 5개 사찰의 이름을 더 확인할 수 있다. 곽지사는 1653년에 폐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찰이다. 굴암과 돈수암·안심사·원당사는 1530년에는 기록에 없던 사찰이지만 1653년에는 존재하는 사찰로 기록되어 있다. 묘련사·법화사·월계사는 1530년에 존재하고 있던 사찰이지만 1653년에는 폐사된 사찰로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화사는 초가 암자로 있었음에도 폐사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²⁴⁾

24) 제주불교사(2018), 앞의 책, pp.353-368.

조선시대 제주불교 탄압은, 목사(牧使)인 변협(邊協, 1564~1565)이, 1565년(명종20년) 12월 9일 제주에 유배되어 온 허응당 보우 선사를 어도봉에서 때려 죽였고, 후임인 목사 곽흠(郭屹, 1565~1568)은 1568년(선조 1년)에 사찰들을 헐어버렸다.²⁵⁾ 또한 환성당 지안 선사는 1729년 제주로 유배되어 입적했다고 한다.²⁶⁾ 이형상 목사의 행장(行狀)인 병와집(瓶窩集)에는 “신당 129곳과 절 두 곳²⁷⁾을 일시에 불태우고 불상들은 바다에 던졌으며, 천명에 가까운 무당들은 모두 그들의 안적(案籍)을 불사르고 귀농시켰다라고” 하였다. 탐라순력도의 건포배은(巾浦拜恩)에도 부수어 헐어버린 사찰이 5곳이고 귀농시킨 무당이 285명이라고 하였다.²⁸⁾ 이처럼 이형상 목사 부임(1702년) 이후 불교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불교와 무교는 더욱 습합되어 민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신당과 불교의 융합은 미륵당으로 표현되어 이 시기에 부임한 이희태(李喜泰, 1703~1704)목사에 이르러 다시 신당을 허락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한편 조선후기에 유배된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년~1856년)와 대흥사 초의 선사(草衣禪師, 1786년~1866년)의 교류, 불교적 성향을 띤 개화기 외무대신 김윤식(金允植, 1835년~1922년) 등이 남긴 일기와 도내 유림의 기록은 조선후기 제주불교의 모습과 함께 유학자들의 변화된 불교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²⁹⁾ 조선이 건국되면서 억불숭유의 정책 시행으로 불교는 급격히 쇠퇴하여 갔다. 조선후기 제주불교는 특히 이형상 목사에 의해 사찰과 토속신앙이 모두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제주불교는 더욱더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 200여 년 동안 민간신앙과 습합되었고 주민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신앙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25) 김창화, 앞의 논문(2009), p.16.

26) 제주불교100년편찬위원회(2013), 앞의 책, p.196.

27) 훼손된 사찰은 해륜사와 만수사이다.

28) 병와집: 1744년에 간행된 경상북도 영천 출신 실학자 이형상(李衡祥)의 문집, 디지털영천화대전, <http://yeongcheon.grandculture.net/yeongcheon>, 검색일: 2021.02.04.

29) 위의 책(2013), p.196.

2. 근·현대 제주사찰의 역사와 분포현황

가. 근대: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제주불교는 1702년 이형상 목사의 불교 탄압으로 외형적으로는 위축되어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민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민간 토속신앙과 습합되어 가고 있었다. 1908년 안봉려관(安蓬廬觀, 1865~1938) 스님이 관음사 창건의 원을 세우고 ‘해월굴’에서 기도 정진을 시작하면서 제주불교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³⁰⁾

당시 제주불교는 사찰 도량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법당(人法堂)³¹⁾ 형식으로 신앙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에서 출가하고자 하는 승려들은 육지부 사찰에 가서 출가하여 계를 받아야만 했다. 1892년 강창규가 1894년 김석윤이 전라북도 위봉사에서 출가하였고, 안봉려관은 1907년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에서 청봉화상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안봉려관 스님은 출가 후 제주도에 들어와서 1909년 관음사를 창건한다.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 스님은 창건 후 1938년 5월29일 입적할 때까지 다수의 사찰을 창건하여 제주불교를 중흥시킨 인물이다. 김석윤(金錫允, 1877~1949) 스님 역시 관음사 창건에 기여하였으며 강창규(姜昌奎, 1878~?) 스님도 창건 이후 관음사에 주석하였다.³²⁾ 제주에 관음사가 창건되면서 그동안 민간신앙 속에서 활동하던 제주불교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0년대 제주도의 사찰은 관음사·법정사·만덕사·법화사 등 4개소와 일본사찰 한 군대가 있었다. 법정사와 법화사는 모두 관음사 안봉려관 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며, 만덕사는 1912년 마용기가 창건하였다. 일본사찰은 삼도리(현 제주시 내 삼도동)의 진중 대곡과 본원사 제주도 포교소가 있었다. 법화사는 관음사의 산남포교소로 안봉려관과 안도월, 오이화 등이 포교 활동을 한 사찰이다.

제주불교의 제주사회 참여활동은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그 위세

30) 제주불교100년편찬위원회, 앞의 책(2013), p.197.

31) 한국콘텐츠진흥원 용어사전: 因法堂이라고 표기하기도 함. 큰 법당이 없는 절에서 승려가 거처하는 방에 불상을 모신 승방.

32)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p.14.

를 떨치지도 하였다.³³⁾ 관음사에는 안봉려관, 김석윤, 강창규, 박만하, 안도월, 영봉, 오이화, 방동화, 김연일 등이 기거(起居)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였고, 이들 중 항일의식을 가진 승려들은 1914년 무렵 법정사로 옮겨 활동하였다. 법정사에는 강창규를 비롯하여 방동화, 강민수, 정구용, 김인수, 김용충, 장임호 등이 기거하며 항일운동을 계획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 서귀포 도순리 법정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항일운동이다.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중문경찰관 주재소를 불태우기도 하였다.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인근 지역 주민 700여명의 참여를 이루어 내었는데, 주도세력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항일 의지를 결집해 낸 결과였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0년대 이후의 제주불교 행로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제의 강력한 감시활동으로 제주불교는 한동안 표면적인 활동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일제 당국의 철저한 관리 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³⁴⁾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본 제국의 통치에 반대하며 불교계가 일어난 항일무장 투쟁으로 민족항일운동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 항일운동은 조선을 원래의 독립국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인 관리를 제주에서 추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20년대 일제의 통치정책은 표면상 문화정치로 전환된다. 이유는 1918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과 이듬해 3·1운동 등 일제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문화정책은 친일파를 양성하고 민족운동을 약화하기 위한 민족분열책이었다. 일제의 이러한 정책 속에서도 1920년대 제주불교는 교세 확장을 위한 불법 흥포와 사찰건립 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다.³⁵⁾ 당시 조선총독부의 사찰 설치 허가를 받은 제주도 내 사찰은 삼도리의 일본사찰 본원사 제주도 포교소, 관음사·원당사·무관암·법화사·금봉사 등 6개소이다. 법정사는 항일운동으로 일제에 의해 소각되었다. 활동 승려로는 안봉려관과 안도월, 오이화, 송재술 하인월, 이성봉 등이었다. 그리고 중앙에서 활동하던 이회명 스님이 ‘제주불교협회’의 결성과 함께 제주시내 중심가에 제주불교포교당이 건축되었

33) 한금순,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과 제주불교」, 『대각사상 제29집』, 2018, pp.271-299, p.272.

34) 한금순(2010), 앞의 논문, p.56.

35) 제주불교100년편찬위원회(2013), 앞의 책, p.198.

고, 많은 불교 행사가 시행되면서 제주불교 활동이 활성화되었을 뿐 아니라 친일 성향의 활동도 드러난다. 그러나 총독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했던 사찰로는 만덕사, 불탑사, 고관사, 극락사, 산방사, 원각사, 용주사 등이 있다. 이들 사찰은 관음사와 반일 인물들이 관련된 사찰이었기 때문에 등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³⁶⁾

1911년 일제는 사찰령을 제정하여 “사찰의 병합, 이전, 폐지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전법, 포교, 법요 집행은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고 사찰의 본·말사(本末寺)관계, 승규(僧規), 등의 사법(寺法)은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모든 사찰을 본·말사 관계로 묶어 중앙에서 통제하면서 각 사찰의 자주권을 박탈하였다. 사찰령에 의하여 지정된 본사는 총 31본사 체제로 운영되었다.³⁷⁾ 일제시대에 제주불교는 본사(本寺)가 없어 사찰을 등록할 때는 육지부의 본사 사찰을 지정하여 등록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제주불교는 사찰과 신도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제주에 본사가 없기 때문에 육지부의 본사(本寺)들이 제주도로 들어와서 지역마다 포교소를 창건하고 포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찰령은 총독부에 신고한 후 포교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일제시대 사찰 현황은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찰이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사찰령을 피하려고 만든 선학원 계열의 월정사가 총독부에 신고하지 않고도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일제시대 동안은 기본적으로 총독부에 신고하는 것이 정해진 규정이었으므로, 제반 시설을 갖추고 난 후 창건 신고를 하다 보니 창건연도와 신고 연도가 다르게 기록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 신고 사찰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연대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2>와 같다.

36) 한금순(2010), 위의 논문, p.104.

37)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p.43.

<표 II-2> 조선총독부 신고 사찰 현황(1910년~1945년)

연대별		신고 연도별		포교소 명칭	사찰명	소재지	연번
연대	개소	연도	수				
1910	2	1917	1	진중대곡파 본원사 제주포교소	일본사찰	삼도리	1
		1918	1	대흥사 제주도 포교당	관음사	아라리	2
1920	4	1924	2	백양사 제주포교소	원당사	삼양리	3
			2	백양사 제주포교소	무관암	상효리	4
		1926	1	대흥사 포교당 산남출장소	법화사	하원리	5
		1928	1	화엄사 제주포교소	금봉사	하도리	6
1930	31	1930	1	대흥사 제주포교소 불탑출장소	불탑사	삼양리	7
			2	위봉사 제주도포교소	월각사	서일과리	8
			3	위봉사 제주도포교소	극락사	금덕리	9
		1931	1	대흥사 제주포교소 고산출장소	월성사	고산리	10
			2	선암사 제주도 조천포교소	고관사	조천리	11
		1932	1	법주사 제주포교당	양진사	조천리	12
		1933	1	백양사 고내포교당	고내사	고내리	13
			2	위봉사 제주읍 회천리포교당	만덕사	회천리	14
		1934	1	백양사 동명리 포교당	극락사	동명리	15
			2	위봉사 애월면 포교당	월주사	고내리	16
		1935	1	백양사 제주도 서귀포교당	상효리에서 이전	서귀리	17
			2	백양사 함덕포교당	외곶절	함덕리	18
			3	위봉사 안덕면 포교당		사계리	19
		1936	1	백양사 한림포교당	월계사	용포리	20
			2	법주사 제주도 동홍포교당		동홍리	21
			3	위봉사 상귀리 포교당	귀이사	상귀리	22
			4	위봉사 제주읍 도평포교당	서관음사	도평리	23
			5	위봉사 해안리 포교당		해안리	24
		1937	1	법주사 서귀포 신호포교소	동홍리에서 이전	신효리	25
			2	백양사 북촌포교당		북촌리	26
			3	백양사 토산포교당	관통사	토산리	27
			4	위봉사 성산포 포교당	일광사	성산리	28
			5	본문법화종 대본사 본능사 제주도포교소	일본사찰	서귀리	29
		1938	1	백양사 제주포교당	성광사	일도리	30
			2	봉은사 애월면 구엄리포교당		구엄리	31

1940	15		3	실상사 제석암 포교당	제석사	이도리	32
			4	위봉사 제주 표선포교당	봉주사	토산리	33
			5	본문법화중 조선 본능사 중문포교소	일본사찰	중문리	34
		1939	1	대흥사 김녕포교당	백련사	서김녕리	35
			2	대흥사 해륜포교당	해륜사	용담리	36
			3	백양사 김녕포교당	금중사	동김녕리	37
	15	1940	1	기림사 고내리 포교소	고운사	고내리	38
			2	기림사 사계리 포교당		사계리	39
			3	기림사 하원포교당	월만암	하원리	40
			4	대흥사 관포포교당	통천사	관포리	41
			5	백양사 사계포교당		사계리	42
		1941	폐지	본문법화중 조선 본능사 중문포교소	일본사찰	중문리	43
			1	기림사 귀덕포교당	귀덕사	귀덕리	44
			2	대흥사 서귀면 포교당	용주사	호근리	45
			3	위봉사 평대포교당		평대리	46
4			위봉사 하례포교당		하례리	47	
5			위봉사 한동포교당		한동리	48	
1942			1	위봉사 인성포교당	사계리에서 이전	인성리	49
			2	위봉사 금등포교당	한동리에서 이전	금등리	50
1943			1	동일과리 포교당	회천리에서 이전	동일과리	51
	2		대흥사 제주 청수포교당		청수리	52	
1944	1	대흥사 말사 관음사대정포교소	대정사	하모리	53		

※ 출처: 『조선총독부 관보』,한금순(2010), 앞의 논문, pp.162~163, 재인용.

『조선총독부 관보』에 신고한 사찰현황으로 1910년~1945년 3월 14일까지의 기록된 내용이다.³⁸⁾ 제주도 사찰 신고현황은 1944년 대흥사 말사 관음사 대정포교소가 마지막 기록으로 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신고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찰은 총 53개소로 나타났다. 사찰현황을 분석해보면, 대흥사 포교소 10개소를 시작으로 위봉사 16, 백양사 12, 기림사 4, 법주사 3, 화엄사, 선암사, 실상사, 봉은사가 각각 1개소의 포교소로 9개의 본사가 제주도에 말사 등록을 신청하고 있었고, 일본 사찰은 4개소가 등록되었다. 이 가운데 장소 이전을 신고

38) 『조선총독부관보』, ‘포교소 설치 신고,’ 제5430호(142권, p.482.), 1945.3.14.

한 사찰이 5개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모두 47개의 사찰이 조선총독부의 사찰 신고 허가를 받고 포교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폐지 신고한 사찰이 1개소³⁹⁾라서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에 신고하고 활동한 사찰은 46개소이다. 장소 이전 신고를 한 사찰의 경우는 기존의 사찰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사찰은 3개소가 신고 되었다.

앞의 <표 II-2>를 살펴보면, 제주도에서 사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시기는 1930년대이다. 1910년에서 1920년대는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제의 감시가 더욱 심해져 사찰창건 및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도 전 지역에서 사찰이 창건됨으로써 제주불교가 근대에 들어 가장 활성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에만 총독부에 신고한 사찰은 모두 31개소(일본사찰 2개소 포함)이다. 이 중 2개소는 신고 이전 사찰로 1924년 상호리에 창건된 무관암이 서귀리로 이전 신고하였고, 1936년의 법주사 동흥리 포교소가 신흥리로 이전 신고하였다. 따라서 1930년대에만 29개소가 새로 사찰창건 신고를 하여 제주불교는 1909년 관음사의 창건 이후 1930년대에 가장 왕성한 포교활동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1930년대 이렇게 사찰이 증가한 것은 안도월 스님이 관음사를 대표 사찰로 활동하면서, 스님이 주도한 ‘제주불교 임시대회’를 통하여 제주불교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시도하였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II-3>은 조선총독부에 신고하지 않고 활동한 사찰로 창건연도와 활동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찰 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II-3> 조선총독부 미신고 사찰 현황(1911년~1945년)

연번	창건연도	사찰명	출처
1	1911	법정사	「매일신보」 등
2	1925	제주불교협회 포교당(이도리, 대각사)	「매일신보」(1925.4.10.)
3	1930	원천사 ⁴⁰⁾ (수산리, 최청산 창건)	제주교무원 「연혁철」
4	1934	백양사 명월성 포교지부	「매일신보」(1935.3.15.)
5	1934	제주선원 월정사(제주읍 오라리)	「불교시보」 제39호(1938.10.)

39) 1938년 본문법화중 조선본능사 중문포교소인 일본사찰이 1941년에 폐지되었다.

6	1936	도림사(금성리 1149-3, 오춘송)	제주교무원 「사찰등록철」
7	1937	대흥사 제주관음사 평대리 출장포교소	「불교시보」 제33호(1938.4.)
8	1938	선암사 고산포교당	「불교시보」 제30호(1938.1.)
9	1939	금천사(어도리 3291, 강동은 창건)	제주교무원 「사찰등록철」
10	1942	선광사(남원리)	「불교시보」 제90호(1943.1.)
11	1042	위봉사 신흥리 포교당	「불교시보」 제85호(1942.8.)
12	1943	서산사(동일리)	제주교무원 「교도책임자명부」
13	1944	월광사(독지동)	제주교무원 「연혁철」
14	1944	관음사 해광포교당(법환리, 오한일)	제주교무원 「총무국」
15	1945	용문암(하도리)	제주교무원 「연혁철」
16	1945	광통사(상대리)	제주교무원 「총무국」
17	1945	두수암(신산리)	제주교무원 「사찰등록철」

※ 출처: 『매일신보』, 『불교시보』, 제주교무원자료 등.

창건연도와 활동연도가 정확하지만, 조선총독부에 사찰 창건 신고를 하지 않은 미인가 사찰들은 『매일신보』, 『불교시보』, <제주교무원 자료>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 사찰 신고 허가는 사찰로서의 제반 시설을 갖추고 나서 조선총독부에 신고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창건연도보다 늦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찰도 활동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⁴¹⁾

1909년 김석윤 스님은 관음사에 해월학원을 개설하여 승려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계를 주고 출가자를 배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관음사에서 공부하던 방동화, 오이화 등은 기림사와 대흥사로 올라가서 계를 받고 내려온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의 사찰이 모두 육지부 사찰의 말사로 편입되어 있었고, 제주도에 자체적인 승가 교육 기관인 강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930년대에 외형적 내면적으로 활발한 성장을 이룬 제주불교는 육지부의 본사에 속한 말사로서의 한계점에서 벗어나야 할 시대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찰과 신도 수의

40) 제주교무원 『연혁철』(1951,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소장)은 1930년 창건을 기록하고 있다. 원천사의 창건주 최청산은 『불교시보』제20호(불교시보사,1937.3.1, p.8.)에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 법주사 포교당이 바로 원천사인 것으로 보인다. 최청산은 1930년대에 극락사에서 사미계를 내리는 법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제주교무원, 「교도책임자명부」, 1951,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소장,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2002, p.233.

41) 한금순(2013), 앞의 책, p.19.

증가라는 측면 외에 승가 자체적인 발전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었고, 제주불교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욕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0년대 제주불교는 승가 교육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정도의 역량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승가 교육도 이루어졌다. 제주 강원의 승가 교육은 관음사 포교당인 대각사에서 실시하였고 학인 승려는 50여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1941년 비구 수계식에서 20여 명의 승려가 수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⁴²⁾ 이러한 제주불교의 활동은 당시 제주불교의 안정적 활동 추세 속에서 새로운 활동의 장을 모색하였던 결과물이다. 사찰의 증가와 더불어 승단의 자체적인 인재 양성 욕구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또한 지역사회와 밀착된 활동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⁴³⁾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민간신앙 속에서 숨죽여 활동하던 제주불교는 1909년 관음사의 창건을 시작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움트기 시작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잠시 불교 활동이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1918년 관음사가 대흥사 말사로 조선총독부에 등록하면서 사찰 창건 등록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에 등록된 사찰 현황을 보면, 1917년 일본사찰 등록, 1918년 관음사 등록을 시작으로 1920년대 4개 사찰 등록, 1930년대 31개 사찰 등록, 1940년대 16개 사찰이 등록되었다. <표 II-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불교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이처럼 많은 사찰이 창건 등록을 한 결과 많은 불교 인재 양성이라는 양적 측면은 물론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시기였다. 스님들의 열정과 불자들의 신심은 1940년대 제주불교에 희망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나. 현대: 해방 이후(1945년~2020년)

1945년 해방은 제주불교에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희망의 상징으로 다가왔다. 1945년 11월 30일에 ‘제주도불교청년단’이 조직되었고, 12월 2일에 조선불교혁신전도승려대회가 개최되어 일제하의 불교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고자

42) 한금실, 「1940년대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 『역사민속학(24)』, 2007, pp.311-343, p.324.

43) 한금순(2010), 앞의 논문, pp.197-198.

하는 의욕을 결집하게 된다. ‘조선불교혁신전도승려대회’ 의안으로 상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건국 정신 진작의 건, 사찰 정화에 관한 건, 의식 개혁의 건, 법려(法侶) 품위향상의 건, 사찰 재산 정리의 건, 대중 불교 실현의 건, 교구 자원 확립의 건, 불전 강원 설치의 건, 인재 양성의 건, 모범총림 창설의 건, 교무원운영에 관한 건, 중앙교무원 대표 파견의 건, 포교 기관 월간지발행에 관한 건 등이 다.⁴⁴⁾ 회의 의안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불교는 제주도 불교청년단과 제주불교혁신승려대회를 통해서 제주도 스님들과 제주사회가 함께 하고자 하는 스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다. 해방 이후의 전국적인 혼란 속에 제주사회도 4·3사건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제주 스님들이 그렇게도 열망했던 제주불국토의 실현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모두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1947년 3·1절 기념식장에서의 경찰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에 의한 봉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1954년 9월21일 제주도 경찰국장이 한라산 금족령을 해제하기까지, 6년 6개월 간 4·3사건으로 많은 스님들이 희생되고 전각이 소실되면서 제주불교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1948년 10월 20일 토벌대의 포고령 이후 많은 중산간 마을이 소개되면서 도내 90여 개의 사찰 중 35개 사찰이 그리고 도내 14개 사찰에서 16명의 스님들이 4·3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되고 전각이 소실되면서 해방 후의 제주불교는 큰 피해를 입어 종교 활동이 중단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⁴⁵⁾ 제주 4·3사건은 해방 후 큰 희망을 가지고 제주불교의 중흥을 준비하는 스님들과 도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제주불교혁신전도승려대회에서 스님들은 제주사회에 불국토를 건립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며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큰 꿈은 제주 4·3사건의 아픔과 함께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50년대 제주불교는 4·3사건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사찰들을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한 시기이다. 중앙에서는 ‘불교정화’라는 빌미로 혼란스러웠지만, 제주지역은 소규모의 사찰이었던 점과 제주불교가 재건된 지 50여 년의 짧은 역사로 인해 문도가 형성되지 않아서 불교정화의 회오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약했다.

44) 오성 스님,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법계』,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pp.169-174.

45) 제주불교100년편찬위원회(2013), 앞의 책, p.202.

박정희 정권의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되면서 재산상의 이해관계로 비구와 대 처승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통합중단이 결렬된다. 이에 1970년 4월 16일 제9차 전국대의원회의를 열고 한국불교태고종을 선언하고 11월 창종하기에 이른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에 제주불교는 4·3의 상흔을 이겨내고 불교중흥을 위한 사찰재건 불사 및 중창불사가 이어진다.

특히 1952년 비구니 법선 스님, 이화선 스님, 고선봉 스님 등이 제주시 도남동에 신 관음사 중창불사를 시작으로 전도적으로 불자들과 스님들의 사찰재건 불사는 계속된다. 이렇게 1950년에서 1960년대의 제주불교는 4·3 당시 피해를 입은 사찰의 복원과 함께 새로운 사찰들이 창건되는 등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969년 관음사는 향운 스님이 주지로 부임 후 고훈범 처사와 임덕희 보살의 시주로 본격적인 관음사 재건 불사가 시작되어 관음사 대응전이 준공한다.⁴⁶⁾

1970년대 한국불교는 통합중단이 결렬되면서 한국불교 태고종이 출범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1970년 10월 제주시 정광사에서 태고종 종무원을 구성하는데, 당시 태고종 제주종무원에 소속된 사찰은 원당사(유재요), 보림사(이성호) 등 모두 33개 사찰이 등록되었다. 1970년 11월 기준 34개 사찰이 등록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도내 사찰 100여 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70%에 가까운 사찰이 태고종에 등록된 셈이다. 태고종 제주종무원 출범 이후 현재와 같은 종단체제가 유지되면서, 제주불교는 조계종 23교구 본사 관음사를 비롯해 태고종, 그리고 타 종단 소속 사찰들이 불법홍포에 나섬으로써 제주불교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는 1962년 제23교구 본사로 지정된 이후, 1969년 대응전 중건을 시작으로 1978년 서향각과 삼성전을 완공하는 한편 오이화 스님의 공적비 등을 조성해, 여법한 도량으로 제주사회와 제주지역 불자들에게 제주를 대표하는 가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81년 관음사 주지로 혜국 스님(현석종사 회주)이 부임하면서 도내 재가불자들이 불교유치원 건립을 건의함에 따라 1981년 제주도 내 최초 교계 유치원인 ‘연화유치원’이 탄생하게 된다. 이 유치원 개원을 시작으로 1982년 원명유치원, 1988년 금강유치원, 1991년 국청사

46) 위의 책(2013), pp.203-204.

마야유치원 등 교계 유치원이 개원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80년대에는 청소년 및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신행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된다. 1976년에 출범한 제주불교법우회는 1980년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독자적으로 주관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도내 대표적인 신행단체로 활동한다. 제주불교법우회는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불교 교양강좌를 진행, 제주불자들의 신심 고취와 불교 흥포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1980년대는 어린이, 중·고등부 학생법회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였다. 관음사 어린이학생회와 제주불교룸비니학생회(1959년 창립)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주지부(1963년 창립)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어린이 지도교사가 풍부해지고 어린이법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도내 사찰 역시 어린이법회를 중요시하면서 어린이 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⁴⁷⁾ 특히, 199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우리절(주지 인성 스님) 동연어린이법회는 제주불교의 어린이와 청소년포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제주불교 언론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1984년 태고종 제주교구 총무원 ‘제주불교’ 신문 창간을 시작으로 1984년 12월 제주불교법우회가 ‘제주불교지’를 발간하였고, 1989년 8월 ‘제주법보’ 신문 창간에 이어 1990년 6월 ‘제주불교’와 통합되면서 제호를 ‘한라불교’로 변경하였다. 그 후 ‘정토신문’, ‘제주불교신문’으로 제호가 변경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제주불교계는 불교대학의 교리강좌와 다양한 신행활동 등으로 불자들의 불심을 키워나갔다. 1999년 태고종 제주불교대학이 개설된 데 이어 2000년 3월 조계종이 제주불교문화대학, 그리고 서귀포불교대학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신행단체들로는 대한불교청년회제주지부·제주불교거사림·분다클럽·서귀포정토거사림·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동문회와 제주교원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불자 모임인 길상회 등이 매월 정기법회를 봉행하면서 불법 흥포의 새로운 주춧돌을 쌓아갔다. 또한 조계종 23교구신도회, 태고종 제주교구신도회, 법화종 신도회 등 각 종단 연합 신도회와 종단 소속 신행단체들이 창립되면서 신행 활동이 이어졌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가 확산하면서 각 사찰의 주말법회가 이어지고 있다.

47) 제주불교100년편찬위원회(2013), 앞의 책, pp.205-206.

현대에 이르러 미디어 포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1990년 5월 BBS 라디오 불교방송이 개국 되었고, BBS TV 방송은 2008년 12월 송출이 시작되었다. 제주에서도 2018년 9월 9일 BBS 제주불교방송이 개국 되어, TV는 KCTV 외 여러 매체에서 연결 송출되고 있다. 한편 라디오는 제주시 지역에 FM 94.9 MHz로, 서귀포 지역은 2020년 8월1일부터 FM 100.5 MHz로 불음을 송출하고 있다. 한편 BTN TV는 1995년 5월 케이블 TV를 시작으로 2017년 8월 제주지사가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주는 4·3사건 이후 4·3로 훼손된 사찰들 재건과 함께 새로운 사찰들이 창건되면서 불국토 제주를 만들기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0년 10월 현재 제주도에는 조계종 사찰이 78개소, 태고종 사찰 95개소, 법화종 23개소, 일붕선교종 29개소, 천태종 2개소의 사찰 외에 기타 불교단체가 43개로 총 270개소의 사찰들이 각 사찰 특색에 맞게 포교활동을 하면서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0년 10월 현재 사찰 현황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제주특별자치도 사찰분포 현황

종단	사찰 수(개소)	지역 현황	사찰 수(개소)
대한불교조계종	78	제주시	69
		서귀포시	19
한국불교태고종	95	제주시	57
		서귀포시	38
법화종	23	제주시	14
		서귀포시	9
일붕선교종	29	제주시	19
		서귀포시	10
천태종	2	제주시	1
		서귀포시	1
기타 불교	43	제주시	25
		서귀포시	18
계	270		270

※ 출처: 제주불교신문 자료 제공(2020년 10월 현재), 연구자 정리

위 시기를 요약하면, 일제치하의 통치에서 벗어난 제주불교는, 새롭게 태어나 고자 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불국토제주의 실현을 위한 의욕이 강하였으나 해방 이후 전국적인 혼란 속에서, 제주도는 4·3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제주불국토의 실현은 모두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1950~60년대의 제주불교는 사찰의 복원과 함께 새로운 사찰들이 창건되는 등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된다. 그리고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되면서 불교 통합종단이 결렬되어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한국불교태고종’이 분리, 창종되고 제주도내 사찰은 70%가 태고종에 등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관음사가 23교구 본사로 지정된 이후 대웅전 중건을 시작으로 각종 불사가 이루어져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사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80년대는 어린이 포교를 위한 4개의 유치원이 개원된다. 그리고 사찰별 어린이회와 고등부 룸비니 학생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청년회, 각 사찰 신도회 등 각종 실행단체의 결성으로 제주불자들의 신심 고취와 불교 홍보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였다. 또한 불교신문 발행과 각 종단에서의 불교대학 개설, 포교사 양성, 불법 홍보 미디어인 BBS 제주불교방송 개국과 BTN TV 제주지사 설립 등 새로운 불교 포교를 위한 새로운 주춧돌을 쌓아가고 있다. 현재 주 5일 근무제가 확산하면서 각 사찰의 주말 법회와 어린이법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제주는 여전히 불국토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Ⅲ. 제주도 문화재 보유사찰의 분포현황

삼국시대에 유입된 제주불교는 고려시대에 찬란한 불교문화의 꽃을 피워 제주 전역에 성행하였다. 특히 고려후기 원의 지배 이후에는 수정사와 법화사 그리고 존자암이 창건되고 비보사찰로 지정되면서 제주도 전역에 불교신앙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승유억불 정책에 의해 제주불교는 1702년 이형상 목사가 부임한 후 제주도내 모든 사찰과 토속신앙이 훼철되면서 사찰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들도 모두 사라지는 비운을 겪게 된다. 그런 이유로 제주도에는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소멸되었다. 그로부터 약 200여 년 후 1909년 안봉려관 스님이 한라산 아미봉에 관음사를 창건하면서 민간신앙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던 제주불교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한다.

1930년대에 육지에 본사를 둔 많은 사찰이 창건되면서 사찰에 모셔질 불상들이 제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결과 현재 제주에는 조선후기에 조성된 소형 불상들이 사찰 인연에 따라 봉안된 것들이 많다. 여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문화재로 지정된 불교 문화재 중 불탑과 사리탑 그리고 불상을 조사하였다.

[그림 Ⅲ-1]은 제주도에 등록된 문화재 석탑과 불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의 분포현황이다.



[그림 Ⅲ-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석탑·불상) 보유사찰 지도(2020.10.)

1. 제주시 문화재 보유사찰의 분포현황

가. 석탑

1) 불탑사 오층석탑(佛塔寺 五層石塔, 보물 제1187호)

가) 사찰의 유래와 내력



제주시 원당로16길 41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말사인 불탑사는 고려초기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모습은 [사진 III-2]와 같다. 일주문 입구에 있는 옛 원당사지 표지석은 그 옛날 절터임을 알려주고 있다. 1914년 사찰을 중건하면서 불탑사로 사찰명을 개칭하였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의하면 불탑사의 사찰 신고일은 1930년 3월 25일로 되어 있고, 당시 명칭은 대흥사 제주포교소 불탑사 출장소라고 하였다. 1934년 김중봉 스님이 감원으로 취임하여 기와로 된 법당 4칸을 증설하면서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945년 12월 조선불교 혁신 제주 승려대회에서 불탑사 대표로 김태웅 스님과 김덕희 스님이 참석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48년 제주 전역에 휘몰아친 제주 4·3 사건으로 그해 11월 무렵 주민들과 함께 원당봉에서 삼양리 마을 안으로 소개(疏開)되었다. 소개 당시 토벌대는 불탑사의 대웅전과 요사채를

모두 파괴하였다. 그 후 1953년 이경호 스님과 그 상좌인 일현 스님에 의해 중건이 시작되었다. 오랜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 현존하고 있어 1991년 4월 12일 전통사찰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⁴⁸⁾

후임 주지 일현 스님은 2010년 4월부터 5층 석탑 주변 정리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6월 대웅전 기공식, 2012년 4월 대웅전 상량식, 2013년 2월 132㎡(40평) 규모의 전통 목재 양식으로 내 5포, 외 7포 팔작지붕인 대웅전을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신축하였다. 2014년 8월 전통 목제기와 한옥으로 어린이포교 활동 프로그램실 심우당을 완공하고, 2015년 1월 범종각 완공 이후 5년여 동안의 도량 정비로 중창 불사가 마무리되었다. 2015년 주지로 부임한 희정 스님은 도량 정비가 완료되어 어린이 포교와 매월 거사림회 정기법회 진행 등 지역포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나) 불탑사 오층석탑(옛, 元堂寺址 五層石塔)의 건립 유래

원당사지(元堂寺址, 현재 불탑사)⁴⁹⁾는 고려시대 사찰로 창건 이후 일시적으로 폐사되었다가 다시 중창되어 현재 불탑사로 법맥을 잇고 있는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고찰(古刹)이다. 이 사찰은 『탐라지(耽羅志)』 등에 창건 연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태자가 없던 원(元)나라의 순제(順帝)가 북두(北斗)의 명맥이 비친 삼첩칠하봉(三疊七下峰)에 탑(塔)을 세워 불공을 드려야 한다.’라는 승려의 계시를 받은 제2의 황비였던 기황후(奇皇后)의 간청으로 창건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원당사에 불탑(佛塔)을 세우고 사자(使者)를 보내 불공을 드린 결과 아들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당사는 고려후기 창건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원당사지에 대한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연화문 막새와 ‘대천(大天)’ 명(銘) 기와, 어골문과 격자문 기와편, 청자편과 백자편, 중국 청자편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기와편들은 제작 시기가 10세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며, 청자편들은 11~12세기에 걸쳐 생산된 고급 강진 청자들과 친

48)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p.61-66.

49) ‘불탑사오층석탑’은 옛 ‘원당사지오층석탑’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불탑사오층석탑’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원당사의 초창기가 원나라 기황후와 관련된 창건 연기보다 더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원당사는 늦어도 고려초기에는 창건되어 법맥을 잇다가 고려후기에 와서 크게 중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이러한 발굴조사 유물과 문헌자료를 분석해 볼 때 원당사는 고려초기에 창건되어 스님들의 수행처로 유지되어 오다가, 고려후기 기황후에 의해 아들을 낳기 위한 오층석탑이 세워지면서 기황후의 지원을 받아 수행처로 더욱 더 번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승유억불 정책으로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다) 불탑사 오층석탑의 형식

이 석탑은 현존하는 제주도의 유일한 고려시대 석탑으로 1993년 11월 19일 보물 제1187호로 지정되었다. 석탑의 높이는 약 4m 정도이며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다. 불탑사 오층석탑은 2002년 해체 복원되기도 했으나, 초건(初建) 당시의 원래 위치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 석탑은 모든 부재가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제주도의 지역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석조 미술품이다. 현재 불탑사 오층석탑은 단층으로 마련된 낮은 기단부와 5층의 탑신부로 구성되었으며, 상륜부는 일부 남아있지만, 원래 석탑 기단부는 단층 기단으로 낮게 마련되었는데, 하대석 상면은 외곽부를 경사지게 다듬어 다소나마 장식적인 기교로 치석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린 기단부 면석(面石)은 한 돌로 마련되었는데, 후면을 제외한 정면과 양 측면 3면은 외곽부에 일정한 너비의 돌을 대를 마련하여 사각형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 안상(眼象)을 새겼다. 안상의 한가운데에는 음각으로 화문형(花紋形) 문양(紋樣)을 추가로 장식하였다. 이처럼 안상 안에 화문(花紋)을 추가로 장식하는 표현 기법은 고려시대 석조미술에 많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불탑사 오층석탑의 안상은 음각으로만 표현되는 다른 석조 미술품의 안상과는 달리 입체감 있게 양각(陽刻)함으로써 면석(面石)의 표면에서 상당히 돋보이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화강암보다 치석하기 쉬운 현무암이

50) 엄기표 외 7인, 「제주지역 불교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 『조선시대 제주사회와 타자인식』, 탐라문화연구원, 2020, pp.248-252.

라는 재질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면석부(面石部)에서 안상을 돋보이게 장식하려는 석공의 세심한 기교로 보인다. 탑신부의 탑신석과 옥개석은 표면에 별다른 장식 없이 평범한 치석 수법을 보인다. 다만 1층 탑신 정면의 한가운데에 사각형 감실(龕室)을 마련했는데, 그 규모로 보아 소형 불상(佛像)이나 사리구(舍利具)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로 보인다.⁵¹⁾

감실의 크기는 가로 16cm, 세로 24cm, 깊이 12cm이다.⁵²⁾ 그리고 감실 입구 외곽에 일정한 너비의 돌을 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별도의 감실 막음 장치가 있었는데, 어느 시기에 멸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각 층의 탑신석은 우주(隅柱)가 표현되지 않은 석주형(石柱形) 기둥처럼 치석했는데, 각 층의 탑신이 상부로 올라가면서 좁게 다듬어 배흘림 수법이 약하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탑의 전체적인 외관을 결정짓는 옥개석은 각 층의 규모는 다르지만 동일한 양식으로 치석되었다. 다만 1층 옥개석이 다른 층에 비하여 다소 넓고, 5층 옥개석이 4층에 비하여 체감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서 약간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오층석탑의 전체적인 비례와 외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옥개석은 낙수면(落水面)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합각부의 처마를 살짝 치켜올리면서 약간의 반전(反轉)을 주어, 두툼한 처마면이 줄 수 있는 둔중한 이미지를 최대한 완화해 경쾌한 인상을 주도록 한 점은 돋보이는 치석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옥개석 상면의 합각부 모서리에는 일정한 너비와 돌을 대를 처마부까지 길게 마련하였는데, 옥개석이 기본적으로 목조건축물의 지붕부를 변안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옥개석의 하부 모서리에는 풍탁(風鐸)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있어 원래는 모서리마다 풍탁이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석탑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옥개석의 상하부에 받침이나 괴임단을 마련하지 않은 측면, 두툼한 처마면의 처리, 어색한 합각부의 반전 기법 등은 이 석탑의 건립 시기가 다소 하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불탑사 오층석탑은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일정한 체감을 주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외관을 형성하도록 했으며, 각부의 구성 수법이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과 상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석탑을 전문적으로 설계 제작한 장

51) 엄기표 외 7인(2020), 앞의 책, pp.248-252.

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앞의 책, p.30.

인에 의하여 건립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불탑사 오층석탑을 설계 또는 시공한 석공의 국적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목: 보물 제1187호 ● 명 칭: 불탑사 오층석탑 ● 규 격: 높이 약 4m ● 분 류: 유물/불교 조각/석조(제주)/불탑 ● 지정일: 1993년 11월 19일 ● 소재지: 제주시 원당로16길 41(삼양동) ● 시 대: 고려시대 ● 관리자: 불탑사
<p>[사진 III-3] 불탑사오층석탑. 출처: 연구자 촬영(2021.01.18.)</p>	

[사진 III-3]의 불탑사오층석탑은 규모가 상당히 크지는 않지만, 각각의 부재를 동일석으로 마련하여 결구하였으며, 낮고 간략한 기단부의 결구 수법, 별도의 받침이나 괴임이 표현되지 않은 갑석과 옥개석의 치석 수법, 약한 배흘림 수법의 석주형으로 다듬은 탑신,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보이면서 처마면을 두툼하게 처리한 옥개석, 옥개석의 어색한 반전 수법 등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보아 불탑사 오층석탑은 고려후기에 들어와 원당사가 중창될 때 참여한 장인(匠人)이 옥지에 건립된 당대(當代)의 고려시대 석탑을 참고하여 설계한 다음, 제주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현무암을 채석하여 현재와 같은 양식으로 시공한 것으로 추측된다.⁵³⁾

53) 엄기표 외 7인(2020), 앞의 책, pp.248-252.

나. 불상

1)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木造觀音菩薩坐像, 유형문화재 제16호)

가) 관음사 사찰의 유래와 내력

관음사(觀音寺)는 제주시 아라동 387번지 한라산(漢拏山) 해발 650m 지점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이며 제주를 대표하는 사찰이며, [사진 III-4]는 현재 관음사의 전경이다.



근대 제주불교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관음사는 신비로운 영산 한라산의 동쪽 기슭 아미봉에서 처음 태동하였다. 관음사는 안봉려관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는데, 스님은 1900년을 전후해 불교에 귀의한 후 1907년 12월 해남 대흥사의 유장 스님을 은사로, 청봉 화상을 계사로 출가한 분이다. 안봉려관 스님은 출가한 이듬해인 1908년 1월 대흥사에서 불상과 목탁 등을 모시고 산천단 본인 거처로 돌아와 관음기도 정진과 불사를 계획한다. 같은 해 5월 생면부지의 운 대사로부터 가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지금의 관음사 내에 물이 나는 새미틸[塞水藪]에 터를 잡고 관음정진을 통해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을 교화하기 위해 관음사를 창건한다.

관음보살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관음정진은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이를 관음사 창건으로 현실화시킨 것이다. 해월굴에서 백일 관음기도를 마치고, 1908년 가을 관음사를 착공하고 1909년 봄에 제주 돌과 억새를 흙과 버무려 만든 벽과 억새로 지붕을 얹은 초막집 1칸을 건립한다. 그 이후 불상과 탱화를 봉안하고, 경전을 구한 후 의식용 범종까지 갖추면서 불사를 여법하게 진행한다.

(1) 창건 이후의 내력과 중창

1911년 사찰령, 1915년 포교 규칙이 선포되었는데 이때 제주불교 역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한국불교 전체가 일제의 더욱 치밀한 감시 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포교 규칙에 따라 행정 구역상 전라남도예 속해 있던 제주 관음사는 1918년 6월 11일 대흥사 제주도 포교당으로 등록되어 설치 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대흥사 주지 이화담 스님의 명의로 신고하여 허가받는다. 이후 1920년대 중반까지 대흥사 주지였던 이화담 스님과 백취운 스님이 관음사 포교담당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1918년 무오 10월 5일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이 빌미가 되어 제주의 불교계는 거센 압박을 받게 된다. 안봉려관 스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육지의 유력한 스님인 이회명 선사를 모신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 속에서도 1920년 중반 이후 관음사는 제주불교의 구심체로 급성장한다. 관음사가 이처럼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불교 포교사 이회명(李晦明, 1866~1952) 스님의 포교 활동 영향이 컸다. 회명 스님은 당시 포교사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분이다. 회명 스님이 관음사를 기반으로 제주지역 포교에 나서면서 근대 제주 불교는 새로운 도약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이처럼 관음사 창건 이후 급성장한 제주불교의 힘은 1924년 음력 4월 8일에 있었던 중창 불사 낙성식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당시 회명 스님은 관음사 낙성식에 앞서 조선 최고의 화사(畫師)로 불리던 금강산의 문고산, 박사송, 계룡산의 김보응 스님 등 3인을 먼저 보내어 제주 불교계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본인이 직접 제주에 들어와 행사를 주도한다. 이후 창건 초기부터 제주불교 중흥

에 힘써온 안도월 스님을 초대 주지에 임명한다. 용화사에서 불상을 모셔오고 불교증흥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한 것이다. 더욱이 1924년 11월 제주불교협회가 창설되면서 포교 활동은 더 큰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 제주불교협회의 창설과 더불어 제주불교 부인회와 제주불교 소년단 등이 조직되었고, 나아가 중등 교육기관인 중학 강습소도 설치 운영되었다. 그리고 1925년 현 제주시 중앙로에 시내 포교를 위한 중앙포교당(대각사)도 건립되었다. 중앙포교당은 한라산 중턱에 있는 관음사를 대신하여 포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 세워진 포교당이었다. 그 결과 수십 군데의 사찰이 속속 창건되면서 민간신앙과 습합되어 전해져 오던 재래의 제주불교를 양성화시켜 불교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개혁운동이 추진되었다.

관음사의 포교 활동은 제주불교의 질적·양적인 발전을 동시에 가져왔다. 1936년에 창건의 역사와 함께했던 초대 안도월 주지스님이 입적하고, 상좌 오이화 스님이 뒤를 이어 2대 주지에 임명되었다. 이에 관음사는 새로운 힘을 더하여 전라남도 담양 출신인 국상현의 후원으로 1936년 9월부터 대대적 불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1937년 대웅전, 보타루, 해월각, 해탈문 등을 완공하였다. 그러나 1938년 음력 5월 28일 창건주 안봉려관 스님이 입적하고, 다음 해인 1939년 7월 20일에 경내에 화재가 난다. 이때 대웅전, 승방, 객실 3동이 모두 불타 없어지면서 관음사는 잠시 침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41년 2월 5일 다시 중건 불사에 착수하여 채도약에 나섰다. 당시 제주에는 전통양식의 사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목수가 없었다. 이에 육지에서 32명의 목수까지 지원받아 불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 후 관음사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선방, 해월각, 노전, 종각, 일주문 등을 완공하여 중창 불사를 일단락 지었다. 4·3사건을 거치면서 관음사 전투라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 되어버린 관음사는 1949년 2월 12일 전소된다.

(2) 관음사의 재건

관음사의 재건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1954년 7월 15일 제주시 도남동 856번지에 보현암을 창건하면서부터다. 보현암은 1955년 4월 16일 봉불식을 거행하며 제주불교를 재건할 것을 선포한다. 그리고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관음사 포교

당(옛 대각사)과 함께 한라산 중턱에 있는 관음사를 대신하여 시대 포교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현재 보현암은 관음사 말사로 등록하여 보현사라 불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제주불교문화대학을 운영하여 젊은 불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1962년에 관음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로 지정되었다. 비로소 제주불교를 대표하는 교구 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폐허가 된 지 20여 년이 지난 1969년부터 불사가 시작되어 1973년도에 대웅전이 준공되어 복원에 박차를 가하였다.

옛 모습을 되찾으면서 재도약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 놓은 관음사는 1987년 제정된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1990년 6월 16일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사천왕문 앞까지 좌우에 미륵불 108위, 그리고 사천왕문을 들어서서 경내까지 다시 미륵불 70위가 봉안되어 있고 일주문 동쪽 화강석으로 조성된 초전법륜 통일대불과 설법전 위쪽에 조성된 미륵대불 역시 역대 주지스님들의 노력의 결과다.⁵⁴⁾ 이러한 한라산 관음사의 소중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발원하기 위해 최근 관음사는 교구장 무소 허운 스님의 원력으로 관음사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 성역화 불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관음사 극락전 후불탱화는 1940년 금용당 일섭 스님과 화원 5명이 제주에서 직접 제작한 후불도로 2021년 6월 제주도 등록문화재로 예고되었다.⁵⁵⁾

나)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형식

[사진 III-5]인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 관한 기록은 「관음존영불시주개금(觀音尊影佛施主改金)」과 「관세음보살개금원문(觀世音菩薩改金願文)」이 있다. 이 밖에도 현대의 여러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기록을 통한 조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의 기록은 불상 개금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강희 37년 무인 9월 22일 점안 영암군 성도암 개금 해남군 대흥사 남암 봉안(康熙 三十七年 戊寅 九月 二十二日 點眼 靈岩郡 成道菴 改金 海南郡 大興寺

54)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p.39-56.

55)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1798호(2021.06.02).

南菴奉安)”과 같은 내용이 있어 제작연대가 1698년임을 알 수 있다.

후자는 이 보살좌상이 제주도로 이운하여 봉안한 내용을 적고 있다.

“을축 8월 24일(乙丑 八月 二十四日)에 해남군 대흥사(海南郡 大興寺)로부터 관음존상(觀音尊像)을 입도 봉안(入島奉安)하니 이백 이십 칠년 전 개금(二百二十七年前 改金)한 문징(文徵)이 현의(現矣)”라는 내용이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6호 ● 명칭: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규모: 전체높이 75cm, 머리 높이 14cm, 무릎 너비 47cm, 무릎높이 13cm, 어깨너비 34cm ● 분 류: 유물/불교 조각/목조/불상 ● 수 량: 1기 ● 지정일: 1999년 10월 6일 ● 소재지: 제주도 산록북로 660 ● 시 대: 조선시대 ● 관리자: 관음사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III-5]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출처 : 연구자 촬영(2021.04.18.)</p>	

전자의 자료가 발견됨을 밝히고 있고 이로써 후자의 개금 원문이 1925년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불상은 1698년에 제작되어 영암군 성도암에서 개금하여 해남군 대흥사 남암(南菴)에 봉안한 것을 1925년에 제주도 제주불교 포교당 대각사로 이운(移運)하였다. 당시 제주 관음사가 대흥사 말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운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등신대의 단아한 상으로 1700년경 당시 불상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작의 하나이다. 머리에는 별도로 만들어진 삼산보관(三山寶冠)을 쓰고 있는데, 정면에 큼직한 꽃무늬 8송이가 배치되고, 좌·우로 장식이 치레 된 전형적인 조선후기 보관이다. 얼굴은 비록 사각형의 형태이지만 평판적인 인상보다도 한결 양감이 있고 부드러우며, 눈·코·입이 단아하면서 미소를 띠게 한 표현은 당대의 수작(秀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물 989호인 예천 용문사 목각탱화(1684년)의 관음보살상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보다는 한결 유연하고 단아한 모습이어서 보다 돋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체구 또한 사각형 형태이지만 어깨나 무릎이 각지지 않고 둥글게 처리되어 한결

부드러운 인상을 주며, 가슴이나 신체 각 부위 역시 단아한 편이어서 당시 작품으로는 뛰어난 수법이라 하겠다. 오른손은 가슴에 들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짓고 있는데, 손가락이 가늘고 길며 유연하고 결가부좌한 발로 왼발만 약간 보이게 했을 뿐이어서 단아한 인상과 잘 어울리고 있다. 옷은 통견의로써 두께 있는 표현과 간략한 의문선은 당대의 불의와 유사하나 양감 있는 표현이나 유연한 옷 주름 등은 역시 뛰어난 편이다. 가슴의 승각기 상단은 꽃무늬 형태이며 왼쪽 무릎 위로 드리워진 가사의 안감이 3단으로 주름진 것 등은 17세기 후반기의 개성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⁵⁶⁾

2)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木造觀音菩薩坐像, 유형문화재 제18호)

가) 보림사 사찰의 유래와 내력

제주시 사라봉동길 61에 위치한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 보림사(寶林寺)는 1950년대에 창건된 사찰이다. 1951년 조선불교 제3대 종정에 취임한 송만암 스님은 과거의 엄격한 계율과 법식을 되찾아 불교의 변질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새로운 중현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승단을 비구의 수행승과 대처의 교화승으로 구분하여 전통 불교의 중흥을 꾀하고자 했다.

보림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만암 스님의 정신을 이어 정법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1957년 초대 주지 김평수 스님과 덕희 보살에 의해 창건되었다. 제주시내 중심지에 창건되면서, 그 당시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많은 유지들이 동참하여 제주시에서 가장 큰 사찰로 태어났다.⁵⁷⁾

보림사의 창건 의지는 이곳 보림사를 대표하는 칠층석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칠층석탑은 보림사 창건 당시 송만암 스님이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좌탈 입망하사 스님의 높은 법력을 이어 제주불교를 일으키고자 하는 뜻으로 세워졌다. 만암 스님의 사리 중 1과를 모셔와 이곳 보림사 석탑에 경전과 함께 봉안하고 제주불교의 발전을 기원하게 된 것이다.

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앞의 책, pp.14-15.

57) 보림사 주지 지원 스님, 인터뷰: 2021.01.17.

그 뒤 보림사는 1970년 한국불교 태고종이 탄생하면서 초기 태고종 제주종무원의 기능을 함께하였다. 1985년에는 향적전을 추가로 건립하고 대웅전·명부전·종각에 새로 단청을 입히는 등 꾸준한 사세 확장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사진 III-6]은 현재 보림사의 전경이다. 2002년 5월 15일에는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상이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⁵⁸⁾ 2003년 보림사는 대대적인 중창 불사를 시작하여 57평 규모의 대웅전의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나)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형식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대웅전 삼존불(三尊佛) 좌측에 봉안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관음보살좌상이 보림사로 이운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보림사 주지스님의 인터뷰에 의하면 보림사가 창건되고 부처님을 봉안하는 회의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육지 큰 절에 고불 부처님을 모시자는데 합의하여 수소문에 나섰다. 그러던 중 전라도 작은 암자에 관세음보살상이 있는데, 이 보살상은 과거 선암사 남암에 모셔있던 오래된 협시불이다. 법당이 화재가 발생하여 그 당시 스님이 불상과 협시보살상 두 분만 업고 나와 화재에 의한 소실을 면하였다고 한다.

58)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p.130-131.

그중 [사진 III-7]의 관세음보살은 당시 부산으로 모셔졌다가 다시 전남 곡성으로 모셔졌다. 그 후 보림사가 창건되면서 보림사에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⁵⁹⁾

이 불상은 머리 위에 화려한 보관(寶冠)을 쓰고 결가부좌(結跏趺坐)를 하고 있는데, 보관은 화사한 꽃문양과 화염(火焰) 문양으로 이루어졌다. 관대(冠帶)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8호 ● 명칭: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규모: 전체높이 86cm, 가슴너비 23cm, 무릎 너비 42cm, 무릎높이 14cm, 어깨너비 36cm ● 분 류: 유물/불교 조각/목조/불상 ● 수 량: 1기 ● 지정일: 2000년 5월 15일 ● 소재지: 제주시 사라봉동길 61 ● 시 대: 조선시대 ● 관리자: 보림사
[사진 III-7]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출처: 연구자 촬영(2021.01.17.)	

밑으로는 검은 보발(寶髮)이 보이고 상호는 원만하며 백호(白毫)와 양어깨와 눈·코와 입 등이 정제되었다. 양쪽 귀는 짧은 편이나 목에 삼도(三道)가 둘러있어 인자하면서도 근엄함을 느낄 수 있다. 양쪽 귀를 휘감고 어깨 위에 내려진 보발은 가늘게 표현되었고 양어깨에 걸친 통견(通肩) 법의(法衣)는 길게 흘러 배하단부 앞에서 곡선을 이루었으며 양쪽 팔에 걸친 의문(衣紋)은 유려(流麗)하게 옆으로 흘렀다. 가슴 밑으로는 군의대(裙衣帶)가 조각되었고 양쪽 무릎을 덮은 의문도 유려하게 흘러 앞자락에 많은 의문을 보인다. 뒷면은 목 부분에 널찍한 의대(衣帶)가 둘러지고 왼편과 오른쪽 팔에 의문이 보인다. 수인(手印)은 왼쪽 손을 들어 외장(外掌)하여 엄지와 중지를 잡고 있으며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놓아 상장(上掌)하여 엄지와 중지를 잡고 보병(寶瓶)을 받들고 있다. 밑면은 널찍한 나무판으로 막음 하였는데, 이 좌상(坐像)의 내력과 여러 사명(寺名) 등이 묵기(墨記)가 있어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의문(衣紋)이 두터워 조선시대 조성되었음을 곧 알 수 있는데, 화려한 보관(寶冠)과 정제된 동체(胴體), 유려

59) 보림사 주지 지원 스님, 인터뷰: 2021.01.17.

(流麗)한 의문(衣紋) 등은 조선후기 목불(木佛)로는 우수한 조상(造像)임을 느끼게 하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 불상 밑에는 목서 명도 있다.⁶⁰⁾

3)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木造阿彌陀佛坐像, 유형문화재 제24호)

가) 월계사 사찰의 유래와 내력

월계사(月溪寺)는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39에 있으며, [사진 III-8]처럼 약 100여 년이 넘는 향나무의 모습이 오래된 고찰임을 말해주고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530년)』 및 『탐라지(耽羅志, 1653년)』 등에 기록된 고려시대의 사찰이다. 초기의 가람은 마을에 가깝고 한적한 그곳에 있었고 월계사 또한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현재 월계사지(月溪寺址) 터에서는 고려시대 기와가 발굴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 등에 ‘월계사재 독포동남[月溪寺在獨浦東南, 독포(옹포)지역에 월계사가 있다.]’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고려시대 불교의

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앞의 책, p.28.

맥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계사는 관청을 대신하여 여행객들이 묵어가는 객관의 역할도 했다.⁶¹⁾고 전해지며, 실제로 이 지역을 ‘월계도량(月溪道場)’이라 불렀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월계사(月溪寺)는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 사찰이다. 월계사 현 주지 진공 스님(1996년~현재)에 의하면, 1937년 9월 이학남 스님과 창건주 채수삼 화주 등 신도들이 초막을 짓고 백양사 한림포교소로 시작했다가 유지 불능으로 1939년 6월 이세진 스님과 장정열 화주의 노력으로 사명을 월계사라 변경하였다. 당시 이세진 스님은 금강산 표훈사 중량 강원의 강주였고, 월계사로 부임한 후 활발한 포교 활동 속에 제주 서부지역의 중심사찰로 거듭났다.⁶²⁾ 신도 수가 나날이 증가하자 새로운 터를 구하던 중 한림 지역에 월계사 옛터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옹포천(월계천) 옆에 절터를 정하여 현 위치에 법당을 지으면서 월계사가 중흥을 맞게 된다.

주지 부임 당시 백양사에서 불상을 가져와 법당에 봉안했다고 전해지며, 칠성탱화, 신중탱화, 독성탱화, 산신탱화 등을 조성하였다. 이세진 스님은 월계사를 중창하였고 제주 근대불교의 큰 획을 그은 인물로, 제주4·3사건 때 무장대에 협조하다가 1949년 군경에 의해 총살되었다. 3대 주지 유상섭 스님이 4·3 사건의 위기를 모면한 절을 정비하면서 1952년 사찰명을 ‘금강사(金剛寺)’로 사명을 바꾸어 불사하였으며, 4대 주지 양법중 스님이 중창 불사와 함께 1973년 신행 단체인 거사림회가 발족되면서 한림 지역의 대표사찰로 거듭난다. 1996년 진공 스님이 5대 주지로 부임하면서 불화 단청 전수자로서 월계사의 현판, 주련, 대웅전 단청 및 내부 탱화 등을 손수 단장하며 중수를 거듭하고 사찰명을 다시 원래의 ‘월계사(月溪寺)’로 개칭하여 한림 지역의 대표 도량 고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2006년 목조아미타불좌상을 개금불사 정비작업을 하면서 복장물과 후령통 등이 발견되어 2007년 7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4호에 지정되었다. 현재 포교 활동은 정기법회, 신도 기초교리강좌, 합창단 활동 등으로 불법홍포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된 목조아미타불좌상을 봉안하기 위한 전각 불사와 사찰의 도량 정비를 추진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

61) 김상헌, 『남사록(南槎錄) 권3』, 1601년 10월 14일.

62) 제주불교100년편찬위원회(2013), 앞의 책, p.82.

지스님은 이야기하고 있다.⁶³⁾

나)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형식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1661년 7월에 장성(長城) 백양사 약사암(白羊寺 藥師庵)에 봉안된 불상이라고 한다. 발원문에는 불화와 함께 불상을 새로 제작, 봉안하였음을 밝히고 주존불(主尊佛)의 시주(施主)와 좌우보처(左右補處) 시주명(施主名)을 적고 있어 1661년에 삼존불상과 불화를 함께 조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4호 ● 명칭: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 규모: 전체높이 43cm, 머리 높이 13cm, 무릎 너비 26cm, 무릎높이 7cm, 어깨너비 18cm ● 분 류: 유물/불교 조각/목조/불상 ● 수 량: 1기 ● 지정일: 2007년 7월 25일 ● 소재지: 제주도 한림읍 한림상로 39 ● 시 대: 조선시대 ● 관리자: 월계사
[사진 III-9]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출처: 연구자 촬영(2021.01.22.)	

[사진 III-9]의 현재 불상은 개금하여 원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이 불상의 재료는 향나무이다. 불상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신체와 적당한 신체 비례, 그리고 안정된 자세를 보여준다. 두부(頭部)는 나계(螺髻)의 머리 위에 크고 둥그런 육계(肉髻)가 머리와 거의 구분 없이 표현되었고 중간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 정상부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큼직하게 표현되었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까우면서도 턱 부분이 둥글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이마 한가운데는 백호가 두드러지게 묘사되었고 백호(白毫) 아래 코는 콧방

63) 월계사 주지 진공 스님, 인터뷰: 2021.01.22.

울이 넓고 큼직하다. 가늘고 길게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으며 꼭 다문 입은 큼직하여 시원스럽다. 목에는 뚜렷하게 삼도(三道)가 표현되었다. 신체는 건장한 편이나 어깨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두 어깨 위에서부터 발아래에 이르기까지 통견(通肩)의 법의(法衣)를 걸치고 있다. 두 어깨를 감싸면서 아래로 흘러내린 옷자락은 배 부근에서 둥글게 큰 원호(圓弧)를 그리며 마무리되었으며, 넓게 트인 가슴에는 평평하게 군의(裙衣)를 입고 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이 무릎에서 약간 들어 엄지와 장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결가부좌한 한쪽 다리 위에 대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역시 엄지와 장지를 맞대고 있다. 이러한 손의 모습은 아미타불의 수인인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보다 오른손이 약간 아래로 내려온 변형된 모습이다.

결가부좌한 무릎 폭이 넓어 안정된 느낌을 준다. 불상 하부에 마련된 장방형의 복장 안에서는 불상발원문(佛像發願文)을 비롯하여 황초폭자(黃綃幅子)에 싸인 후령통(喉鈴筒)과 원각경(圓覺經), 주사(朱砂)로 적은 2종의 다라니, 복장물 목록, 오보병(五寶瓶), 오방경(五方鏡), 수정 등이 발견되었다. 이 불상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를 보여주는 신체 표현으로 불상으로서 사각형인 얼굴, 윗부분이 지그재그로 표현된 평평한 군의(裙衣), 결가부좌한 무릎 앞으로 넓게 퍼진 옷자락 등에서 조선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현재 개금으로 옛 모습을 완전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불복장(佛腹藏)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해 1661년이라는 조성연대와 운혜(雲惠)와 상전(尙前)이 조각하여 장성(長城) 백양사(白羊寺) 약사암에 봉안되었던 사실이 밝혀져 있어 17세기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⁶⁴⁾

4) 삼광사 목조보살좌상(木造菩薩坐像, 유형문화재 제25호)

가) 삼광사 사찰의 유래와 내력

삼광사는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도심 속의 사찰로 1992년 현 주지인 현명 스님이 천막 법당으로 시작된 사찰이다. [사진 III-10]의 현재 대응전은 1998년

6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앞의 책, p.60.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의 목조기와로 건축된 법당으로 삼존불과 일천관 세음보살을 봉안하였다. 삼광사는 제주불교의 발전에 노력하였던 임덕희 보살이 2004년 타계하자 그해 4월 임덕희 보살이 발원하던 처처불사 원력을 발전·계승하고자 덕희 봉사회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덕희봉사회는 2004년 김장김치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는데, 2020년 12월까지 봉사자들의 애정이 어린 손길로 완성된 김장김치를 17년 동안 500,000포기와 된장, 쌀을 복지시설과 자원봉사센터, 소아암협회, 다문화 가정, 불우이웃과 독거노인 등에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신도들이 직접 커피를 로스팅하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신도 간 소통과 화합의 창구 역할과 또 다른 기부문화를 정립하고 있다. 신도들은 ‘불교는 실천의 종교로 봉사가 바로 수행이다.’라는 믿음으로 소외된 이웃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주문과 삼성각은 2012년에 건립되었고 사리탑이 조성되면서 가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한편 목조보살좌상은 임덕희 보살이 원불로 모시고 있다가 삼광사로 봉안되었다. 2007년 제주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목조보살좌상을 봉안할 전각이 변변치 않음에 따라, 2013~2014년 보호 전각 향적전을 건립하게 되었다.⁶⁵⁾ [사진 III-10]의 향적전에는 목조보살좌상과 더불어 아미타불과

65) 삼광사 주지 현명스님 자료제공, 2021.04.06.

관세음보살 그리고 아미타불 후불탱화를 함께 봉안되었다. 향적전 1층은 396㎡ (120평) 규모로 불자들의 휴게실 및 후원으로 사용되며, 목조보살좌상이 봉안된 2층은 264㎡(80평)로 불자들의 수행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 삼광사 목조보살좌상의 형식

삼광사 목조보살좌상은 1671년에 응혜(應慧)·계찬(戒贊) 등이 조성한 작품이다. 복장에서 불상발원문(佛像發願文)과 황초폭자(黃綯幅子)에 싸인 후령통 등 복장물과 주사 다라니 50여 장 등이 발견되어 1671년 화원인 응혜와 계찬이 조성하였으며, 아미타불 삼존불의 협시보살로 조성되었다.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5호 ● 명칭: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 규모: 전체높이 43cm, 머리 높이 14cm, 무릎 너비 25cm, 무릎높이 10cm, 어깨너비 18cm ● 분 류: 유물/불교 조각/목조/불상 ● 수 량: 1기 ● 지정일: 2007년 7월 25일 ● 소재지: 제주시 아보로 279-7(월평동) ● 시 대: 조선시대 ● 관리자: 삼광사
[사진 III-11]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출처: 연구자 촬영(2021.02.06.)	

[사진 III-11]의 보살상은 금속으로 만든 보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특이하게도 불상에 대좌를 붙여 조성하였다. 보관은 앞부분이 볼록하게 솟아있는 조선 후기 보관형식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금속제의 판을 두 개 잇대어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큼직하게 어자문(魚子文)을 눌러서 시문(施文)하였다. 신체와 비교해 두부가 다소 작은 편인데, 머리는 앞뒤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 올렸으며 중앙에 보계(寶髻)가 높이 솟아있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깝고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는데, 턱 부분이 둥글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이마 중앙에는 백호를 표현하였고 눈은 가늘고 길게 뜨고 있으며, 콧날은 오뚝한데 꼭 다문 입술 양쪽을

약간 눌러 미소를 표현하였다. 목에는 삼도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 신체는 당당한 편이지만 어깨가 좁아 장대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가부좌한 무릎 폭이 넓게 안정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

착의법은 통견으로 불의를 착용하고 있는데 두 어깨 위에서부터 발아래에 이르기까지 법의 자락이 유려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두 어깨를 감싸면서 아래로 흘러내린 옷자락은 배 부근에서 둥글게 큰 원호를 그리며 마무리되었으며, 양팔에 굵은 2~3가닥의 옷 주름이 표현되었다. 넓게 트인 가슴에는 수평으로 군의를 입고 있다. 양 무릎을 감싸고 흘러내린 옷자락이 불상과 함께 조각된 대좌 위로 흘러내리며 상현좌(裳懸坐)를 이루고 있다. 수인은 오른손은 무릎에서 약간 들어 엄지와 장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결가부좌한 왼쪽 다리 위에 대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역시 엄지와 장지를 맞대고 있다.

이러한 손의 모습은 아미타불의 수인인 하품중생인보다 오른손이 약간 아래로 내려온 변형된 모습이다. 보살상의 하부에는 커다랗게 복장공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부에서는 불상발원문(佛像發願文)과 후령통, 다라니 등이 발견되어 불상 조성에 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1671년 조선후기의 조각장인 응혜(應慧) 등에 의해 아미타 삼존불의 협시보살로 조성되었으며 전라남도 백양산 청심대에 봉안되었던 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장성 백양사 위쪽 운문선원의 북쪽에는 청심대 터가 남아있다. 이 보살상은 사각형적인 넓직한 얼굴, 오뚝한 콧날, 윗부분이 평평한 군의, 통견의 옷자락이 배 부근에서 원호를 그리며 마무리된 점 등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복장공을 막음 한 목판에는 한글로 글씨가 적혀 있는데 지난날들의 흔적들 같으나 잘 알아볼 수가 없다.⁶⁶⁾

5)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木造釋迦如來坐像, 유형문화재 제26호)

가) 용문사 사찰의 유래와 내력

용문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에 있는 한국불교 태고

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앞의 책, p.31-32.

중 사찰이며, 1945년 고복덕성보살이 창건하였다. 사찰 가람배치는 용왕문, 대웅전, 종각, 요사채 등의 건물이 있다. 용왕문을 들어서면 우측으로 공덕비가 나란히 있는데, 사찰의 설립 배경 및 내력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사적비에 의하면 ‘고복덕성보살(속명:고수열)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서 부 고봉주 모 광산김씨의 1남 3녀 중 장녀로 1883년 계사년 6월 14일생으로 21세 때 구좌읍 세화리 합전동 정명흥과 결혼하여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다. 고보살은 30세 때(1912년)에 서귀포시 쌍계사(雙鷄寺)에 입문 불교와 인연을 맺고 1932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대판(大阪) 소재 임기순(任基淳) 사찰에서 수도하다가 부군 사망으로 1936년에 귀향하였다. 제주시 소재 제석사(帝釋寺)에 입문 화주로 활동하다가 1941년 한동리 상동에 염불당 건립 기도를 하였으며, 해방되는 해인 1945년(을유)에 친가에서 상속된 토지 1,000평을 매도 현 용문사 부지중 302평을 구입하여 딸 세 자매와 함께 초가 2동을 건립하였다. 당시 고정선 스님이 부처님을 봉안하였고 용문사로 명명하였다. 본 대웅전은 용문사에 모셔져 있는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6호 목조 석가여래좌상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보조금과 주지스님을 비롯한 신도 임원, 도(道)·내외 불자들의 정성 어린 시주금으로 대웅전을 중건하고 목조 석가여래좌상을 봉안하여 후대에 길이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여기 시주자(施主者) 방명(芳名)을 기(記)한다.’라고 비문에 적혀 있다.⁶⁷⁾



67) 용문사 후원 공덕비 참조.

[사진 III-12]는 현재 용문사의 모습이다. 용문사 주지 각림 스님의 인터뷰에 의하면, 용문사 소장 목조석가여래좌상이 제주도 용문사에 이운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용문사 주지 각림 스님의 아버님(한병욱 스님)도 스님이셨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월영사 주지스님이셨는데 4·3사건으로 사찰이 전소되었다. 한병욱 스님은 가족들과 함께 전남 목포로 이주하여 적산가옥(당시 일본인 소유 사찰)에서 임시 거주를 하게 된다. 그러다가 6·25 이후 목포 삼학도에 19평 정도의 조그마한 암자를 지어서 삼학사로 명명하게 된다. 1949년 한병욱 스님의 은사 스님이 해남 은적사에 계셨는데, 그 은사 스님의 인연으로 지금의 목조석가여래좌상을 삼학사로 봉안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1990년대 아버님인 한병욱 스님이 돌아가시고 삼학도가 관광공원이 조성되면서 삼학사가 철거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 후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목포 시내 포교당에 계시다가 1997년경 제주 용문사로 이운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목조석가여래좌상을 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고 제주도에 요청하게 된다. 2005년 초에 순천대 사학과 최인선 교수님의 추천으로 2005년 7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받게 되었다. 용문사는 문화재 소장 사찰로 등록되고 새로운 대응전이 중건되면서 지역 사회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⁶⁸⁾

나) 용문사 목조 석가여래좌상의 형식

[사진 III-13]의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전체높이가 42cm에 달하는 작은 규모의 목조불상으로서,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체보다 머리가 큰 편이다. 머리는 전체가 뽕족한 나발(螺髮)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계(肉髻)는 머리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머리의 중앙 부분에는 반구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가 있으며 정수리 부분에는 나지막하게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표현되었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깝지만 턱 아래의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여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데, 이마 중앙에는 반월형의 큼직한 백호(白毫)가 표현되었으며 이목구비가 큼직하게 표현되었다. 두 눈은 가늘고 긴 편이며, 코는 크고 넓적하

68) 용문사 주지 각림 스님, 인터뷰: 2020.10.11.

고 콧날이 곧게 솟았으며, 입은 양쪽 가장자리를 약간 올려 표현하여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귀 역시 큼직하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도드라지게 표현되었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양쪽 팔에 걸쳐 흘러내린 옷자락이 무릎 아래까지 유려하게 흘러내리고 있으며, 시원하게 트인 가슴 아래에는 군의(裙衣)를 받쳐 입고 있다.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6호 ● 명칭: 용문사 소장 목조석가여래좌상 ● 규모: 전체높이 42cm, 머리 높이 15cm, 무릎 너비 26cm, 무릎높이 7cm, 어깨너비 18cm ● 분 류: 유물/불교 조각/목조/불상 ● 수 량: 1기 ● 지정일: 2007년 7월 25일 ● 소재지: 제주도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531 ● 시 대: 조선시대 ● 관리자: 용문사
[사진 III-13]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출처: 연구자 촬영(2020.10.11.)	

왼쪽 어깨를 감싼 옷자락은 목에서 한번 접혀 오른쪽 어깨에서 대의 자락 일부가 마치 소 햇바닥처럼 길게 가슴까지 늘어져 있으며 나머지 대의 자락은 어깨 일부를 감싸고 팔꿈치 뒤쪽에서 복부 쪽으로 가서 왼쪽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옷자락 속으로 끼워져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아래로 흘러내린 옷자락은 양쪽 무릎을 덮고 결가부좌한 오른쪽 다리 위에서 마치 부챗살처럼 넓게 퍼져 내리고 있다. 군의는 3줄의 평행선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착의법은 곡성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1706년), 고양 노적사 아미타삼존불(1713년) 및 18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태백 장명사 목조여래좌상, 호림박물관 소장 목조불상 본존상 등 18세기 전반 불상에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이 불상의 조성연대를 추측케 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왼손은 별조(別造)하여 끼웠는데 왼쪽 무릎 위에 놓아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다섯 손가락을 나란히 하여 오른쪽 무릎 위에 대고 있는 촉지인(觸地印)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 불상의 내부에서는 발원문을 비롯하여 후령통, 경전, 다라니 등이 발견되었고, 바닥에는 복장공(腹藏空, 두께 2~3cm)이 있는데, 그곳에 “평생지원 위부모원(平生至願爲父母願)/불시주(佛施主) 가선대부(嘉善大夫) 성환영가(性還靈駕) 복위(伏爲)/망부(亡父) 통정대부(通政大夫) 이무생(李武生)/망모(亡母) 안씨경덕(安氏景德)”이라는 목서명과 8자의 실서범자(失書梵字)가 적혀 있다. 발원문 및 바닥의 목서명에 의하면 이 불상은 영산교주(靈山教主)인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로서 대 시주인 성환비구(性還比丘)가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만든 것이며, 화원(刻僧)인 진열(進悅)이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 불상을 조각한 진열은 1695년 백련사 나한상을 비롯하여 1706년 곡성 관음사 대은암 관음보살좌상, 1713년 고양 노적사 아미타삼존불상, 1722년 부산 범어사 비로자나불을 개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⁹⁾

6) 월정사 이조여래좌상(泥造如來坐像) · 목조보살입상(木造菩薩立像)

가) 월정사 사찰의 유래와 내력

월정사(月井寺)는 제주시 아연로 216-5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다. 이곳에 1934년 음력 4월 8일 김석운 스님이 제주포교소 월정암을 창건하며 오늘날 월정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석운 스님이 월정사를 창건한 것은 월정사를 선원 중심의 사찰로 운영하여 제주불교의 내실화를 꾀하려는 취지에서였다. 비록 제주불교가 관음사 창건을 시작으로 일대 중흥기를 맞이하였으나 당시 제주에는 체계를 갖춘 선원이 전무한 실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제주선원은 194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참여한 스님들의 수는 10명 이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48년 제주 4·3사건의 참화 속에서 월정사는 건물 일체가 전소되는 비운을 겪게 된다. 제주 4·3사건이 끝난 후 월정사는 당시 시신초차 거두지 못한 김덕수 스님을 기리기 위해 1956년 월정사 경계 동쪽에 비석을 세우고 추모의 마음을 묻어 놓았다. 그리고 몇몇 스님들의 힘으로 월정사 터에 7평가량의 난민 보건 주택을 짓고 법당으로 사용하며 사찰의 명맥을 유지

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앞의 책, pp.53-54.

하게 되었다.

월정사가 본격적으로 재건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지문 스님에 의해 대웅전과 요사(寮舍)가 신축된다. 이후 계속된 불사에 힘입어 2001년 10월 25일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고, 2000년 12월에는 이조여래좌상과 목조보살입상이 제주도문화재자료 제4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산신탕화는 1936년 조성된 작품으로 크기는 69.8cm×46.3cm이며, 신중탱화는 조선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크기는 94.6cm×114.4cm이다.⁷⁰⁾ [사진 III-14]는 현재의 월정사 모습이다.



나) 월정사 이조여래좌상(泥造如來坐像, 문화재자료 제4-1호)의 형식


월정사에 소장된 이조여래좌상(泥造如來坐像)⁷¹⁾은 [사진 III-15]는 조선후기 17세기에 진흙으로 만들어진 제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불상으로 전체높이가 59cm이다.

머리는 곱슬곱슬한 나발(螺髮)이며 보주형의 중간계주가 장식되어 있으며 머리 위로는 육계(肉髻)가 높이 솟아있다. 상호는 사각형으로 이마의 중앙 아래는 백호를 표현하였고 꼭 다문 입술은 붉은색으로 칠을 하였으며 다소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⁷²⁾ 코는 상호의 각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크며 삼각형으로 뾰족

70)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p.67-72.

71) 제주도청홈페이지에는 '석조'라고 잘못 표기되고 있다. <https://www.jeju.go.kr/culture/culturalAssets>, 검색일: 2021.01.05.

하고 길게 표현되어 있으며, 코 아래 인중은 넓고 깊게 표현되어 돌출되어 보이며 깊게 흠이 나 있다. 콧볼 또한 두툼하며 길게 나타내고 있다. 목은 짧고 삼도가 없다.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4-1호 ● 명칭: 월정사 이조 여래좌상 ● 규모: 전체높이 59cm, 머리 높이 19.2cm, 무릎 너비 36cm, 무릎높이 8.2cm, 어깨너비 24.5cm ● 분 류: 유물/불교 조각/이조/불상 ● 수 량: 1기 ● 지정일: 2000년 12월 27일 ● 소재지: 제주도 아연로 216-5 ● 시 대: 조선시대 ● 관리자: 월정사
[사진 III-15] 월정사 이조여래좌상. 출처: 연구자 촬영(2020.12.13.)	

법의는 통견인데 U자형이며 왼쪽 무릎 앞에서 커다란 원호를 그리고 있고, 양쪽 팔에 걸친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 양 무릎을 덮고 있다. 가슴에는 띠 매듭이 보인다. 뒷면은 목 부분에 두꺼운 옷 주름이 표현되었고 왼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옷 주름이 화려하다. 수인은 왼쪽 손을 들어 엄지와 중지를 잡고 있으며 오른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왼손은 별조하여 끼워 넣었다. 불상 밑바닥은 나무판으로 막음질 되어 있는데 복장물은 이미 도난당하였다고 한다.⁷³⁾

다) 월정사 목조보살입상(木造菩薩立像, 문화재자료 제4-2호)의 형식


[사진 III-16]의 목조보살입상은 하나의 향나무를 조각하여 조성되었는데, 불상의 높이는 78.5cm이며, 양손에 잡은 연 줄기는 다른 물질로 추정된다.

상호가 원만하고 전신에 영락(瓔珞) 장식이 되어 있다. 동체(胴體) 각부의 조각 양식과 수법 등으로 보아, 고려말에서 조선초기 사이에 조성된 작품으로 추정

72) 월정사 문화재 안내관 참고.

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앞의 책, p.66.

된다. 머리에는 금속제의 화려한 보관을 썼으며, 관대는 길게 양쪽 귀밑까지 장식되어 있다. 머리카락은 이마 위에서 흘러 양쪽 귀를 감아 어깨 위까지 내려졌다. 상호는 원만하며 둥근 편으로 반개한 눈은 아래를 보고 있고 붉게 칠한 작은 입술에는 얇은 미소가 보인다. 양쪽 눈·귀·코·입술 등 각 부분은 정제되어 있다. 눈썹 사이에는 백호를 박아 넣었는데 반구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양쪽 귀는 짧은 편이며 인자하면서도 근엄한 인상이며 목에는 삼도가 있다.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4-2호 ● 명칭: 월정사 목조보살입상 ● 규모: 전체높이 78.5cm, 머리 높이 20.5cm, ● 분 류: 유물/불교 조각/목조/불상 ● 수 량: 1기 ● 지정일: 2000년 12월 27일 ● 소재지: 제주시 아연로 216-5 ● 시 대: 조선시대 ● 관리자: 월정사
[사진 III-16] 월정사 목조 보살입상. 출처: 연구자 촬영(2020.12.13.)	

천의는 왼쪽 어깨에 걸쳐 있고 배 부분에 표현된 띠 매듭으로부터 옷 주름이 원호를 그리면서 양쪽 발등까지 길게 흘렀는데 무릎 부분의 옷 주름과 왼쪽 팔에 걸친 옷 주름이 유려하다. 뒷면은 왼쪽 어깨로부터 사선을 그리면서 오른쪽 허리 부분까지 옷 주름이 흘렀으며 허리의 의대와 그 밑의 옷단도 세련된 표현이다. 가슴에 굽은 영락이 장식되었고 오른쪽 어깨로부터 흘러내린 영락은 팔꿈치까지 장식되었다. 양쪽 다리 사이에도 영락이 길게 장식되었고 양쪽 손목에 걸친 염주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수인은 왼손은 위쪽을 향하여 수평으로 들었고 오른쪽 손은 약간 내려 위로 향하였으며 양손으로 연 줄기를 받들 듯 잡고 있다. 연 봉오리는 피기 직전의 연잎 몇 개를 표현하고 있다. 밑 부분은 발바닥 부분이 평평하여 직립의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고 발가락의 표현도 정연하다.⁷⁴⁾ 두 불상은 모두 제작자를 알 수 없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⁷⁵⁾

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앞의 책, p.67.

75) 월정사 문화재 안내판 참고.

7) 월영사 목조여래좌상(木造如來坐像, 문화재자료 제6호)

가) 월영사 사찰의 유래와 내력



[사진 III-17]의 월영사(月瀛寺)는 한국불교태고종 사찰로,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329번지 파군봉(破軍峰)에 위치하고 있다. 월영사가 자리 잡은 파군봉은 해발 약 100m에 이르는 봉우리로 고려시대 여몽 연합군의 상륙부대를 맞아 삼별초가 향전했던 전적지다. 이곳에서 삼별초가 대파되었다고 하여 파군봉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근대에 들어 이곳에 다시 월영사가 세워진 것은 1930년대로, 기록에는 1936년 완주 위봉사(威鳳寺) 상귀리 포교당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월영사는 1943년 본사를 위봉사에서 백양사(白羊寺)로 이전하였으며, 1945년 무렵에는 귀이사로 절 이름을 바꾸었다. 당시 주지는 한병욱 스님으로, 1945년 12월에 열린 조선불교 혁신 제주 승려대회에 참석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1948년 제주 4·3사건이 일어나면서 토벌대에 의해 건물 일체가 모두 불태워지는 피해를 당하였다. 불상을 비롯해 사찰 안에 있던 불화와 불기 모두가 사찰 전각과 함께 소실된 것이다. 4·3사건의 상흔을 안고 있는 옛 사찰의 명맥을 이으며, 귀이사의 바로 옆, 상귀리 329번지에 현재의 월영사가 창건된 것은 1962년 지학 스님에 의해서이다. 월영사는 이후 1988년 85평의 대웅전을 중건하고 1990년 요사채

2동을 새로 지었으며, 1994년 종각 및 범종 봉안, 1998년 대웅전 단청불사 등 꾸준히 사찰의 면모를 일신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월영사의 성보문화재 전각으로는 대웅전과 법당, 요사채 등이 있다. 법당에는 현재 조선시대 불상인 목조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또한 신도로부터 기증받은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청동 여래좌상이 별도로 봉안되어 있다. 2006년 전 통사찰로 지정되어 사찰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있다.⁷⁶⁾

나) 월영사 목조여래좌상의 형식

[사진 III-18]은 월영사에 소장된 목조여래좌상이 모습이다. 목조여래좌상의 머리는 나발(螺髮)로 큼직한 육계가 솟아있으며 중간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 정상에는 타원형의 정상계주가 표현되었다.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6호 ● 명칭: 월영사 목조여래좌상 ● 규모: 전체 높이 51cm, 머리 높이 18cm, 무릎 너비 31.5cm, 무릎 높이 7cm, 어깨 너비 22.5cm ● 분 류: 유물/불교 조각/목조/불상 ● 수 량: 1기 ● 지정일: 2004년 9월 9일 ● 소재지: 제주도 애월읍 하귀남동2길40-16 ● 시 대: 조선시대 ● 관리자: 월영사
[사진 III-18] 월영사 목조여래좌상 출처: 연구자 촬영(2020.11.03.)	

상호는 원만하며 약간 숙여 있고 눈·코·입이 정제되어 있다. 백호는 흰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양쪽 귀는 긴 편은 아니나 균형이 잘 잡혀 상호와 바짝 좁혀있다.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고, 법의는 우견편단으로 왼쪽 무릎으로 길게 흘렀으며 오른쪽 가슴 밑으로 유려한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있다. 왼쪽에 걸쳐진

76)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p.87-90.

법 의와 무릎 아래로 늘어진 법 의는 양쪽 무릎을 덮었으며 법 의의 앞자락도 양쪽 무릎 사이 앞으로 표현되었다.

뒷면에는 왼쪽 어깨에서 넘겨진 굵은 옷 주름이 길게 표현되었다. 군 의는 띠 매듭 없이 일자형을 이루고 있다. 가부좌한 양쪽 무릎 위에는 양발이 노출되어 있으며 발가락도 표현되어 있다. 양손은 별조하였고 오른손은 후대에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인은 왼쪽 손은 왼쪽 무릎에 놓고 엄지와 중지를 잡고 하늘을 향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놓았다. 바닥은 1매의 목재로 막음질을 하였는데 복장물은 이미 도난당하여 불상의 정확한 조성연대를 파악할 수 없어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고 한다.⁷⁷⁾

8) 보덕사 목조여래좌상(木造如來坐像, 문화재자료 제7호)

가) 보덕사 사찰의 유래와 내력

보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말사이며 제주도 독짓골8길 26번지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의 보덕사 일대는 '구남동사지'라 하여 창건 연대 미상의 사찰이 존재하고 있던 곳이다. 보덕사는 근대 제주불교를 중흥시킨 안봉려관 스님의 말상좌인 이화선 스님의 상좌 이선봉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 보덕사는 이선봉 스님이 1941년 독짓골 구남천의 유서 깊은 이곳에 움막을 짓고 '남순사'라 명명하며 수행을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된다. 옛 문헌에 보덕사가 자리한 구남동사지 일대는 쌍혈(雙穴)이라는 곳으로, 후손이 귀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아들 아홉 형제를 얻는다는 유명한 풍수설이 전하는 곳이다. 실제 사찰 입구 고목 아래쪽으로 삼존불을 모신 토굴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으나, 현재는 매립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

1943년 이 옛 절터에 초가 18평의 법당으로 시작한 도남 보덕사는 이후 1958년 선봉 스님과 상좌인 법연·법현 스님, 그리고 손상좌인 혜전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의 합심으로 중축 불사에 들어가 새롭게 법당을 증축하였다. 그리고 1967년 2월 현재의 건물인 28평의 법당과 2층 60평 규모의 선방과 종각을 지

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앞의 책, p.64.

어 사찰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 [사진 Ⅲ-19]와 같이 1975년 이후 10여 년에 이르기까지 삼존불 개금불사와 증·개축, 그리고 단청 및 기와 불사를 계속하여 마무리하였고, 1992년 10월 27일 27위의 석조 지장보살상을 봉안, 지장도량으로 증생제도 포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993년 이 일대가 공원지구로 지정되면서 도량 주위에 주변과 어우러지는 돌담 축대로 불사를 마무리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덕사에는 창건 당시 안봉려관 스님이 해남 대흥사(大興寺)에서 모셔온 17세기의 목조여래좌상이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은 근대 제주불교 중흥기에 선봉 스님이 사찰마다 모시고 다니면서 그곳 불사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는 일화로 더욱 유명하다. 제주불교 중흥의 맥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보덕사는 현재에도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많은 불자가 부처님의 귀의처로 끊임없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⁷⁸⁾

나) 보덕사 목조여래좌상의 형식

[사진 Ⅲ-20]의 보덕사 목조여래좌상은 전체높이 66cm의 비교적 큰 불상이다. 머리는 나발이 뽀뽀하게 표현되었으며 육계는 유난히 높고 크다. 중간계주는

78)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p.57-60.

없고 보주형 정상계주가 장식되어 있다. 상호는 사각형에 가까우며 원만하다. 눈·코·입이 정제되어 있고 입은 유난히 크다. 이마에는 최근에 개금불사 하면서 보완된 수정으로 만든 백호가 있다. 귀는 상호와 바짝 좁혀있는 형상이며 긴 편은 아니다.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었으며, 법의는 두툼하며 통견을 이루고 있다. 왼쪽 어깨에서 내려온 옷자락은 팔꿈치 부분에서 Q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군의는 띠 매듭 없이 일자형을 이루고 있다. 양손은 따로 만들어 끼웠으며 손에는 아무런 지물이 없다. 수인은 미타정인을 취하고 있어 아미타여래로 볼 수 있다.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7호 ● 명칭: 보덕사 목조여래좌상 ● 규모: 전체높이 66cm, 머리 높이 24cm, 무릎 너비 39.5cm, 무릎높이 9.5cm, 어깨너비 28.5cm ● 분 류: 유물/불교 조각/목조/불상 ● 수 량: 1기 ● 지정일: 2004년 9월 9일 ● 소재지: 제주시 독짓골8길 26 ● 시 대: 조선시대 ● 관리자: 보덕사
[사진 III-20] 보덕사 목조여래좌상. 출처: 연구자 촬영(2020.12.13.)	

불상 바닥에는 복장공이 있으나 유실되어 조성 시기를 알 수 없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전체적인 불상 양식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⁷⁹⁾

9)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

가) 원명선원 사찰의 유래와 내력

원명선원은 제주시 동쪽 별도오름을 향해 흐르는 별도천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1952년 원봉당 지옹 스님이 수행도량인 선원을 세우겠다는 서원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원명선원을 창건한 지옹 스님은 서옹(西翁) 스님을 은사로 전

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앞의 책, p.27.

라남도 장성 백양사에서 출가하고 이후 해남 대흥사 주지를 지냈던 스님이다.

이곳에 본격적 선원이 설립된 것은 사찰이 창건되고 20여 년 뒤인 1976년에 시작되었다. 이후 7~10여 명의 스님이 해마다 이 도량에서 한 철을 나곤 하였다. 일타(日陀)·비룡(飛龍) 스님을 비롯하여 도견·지월·도법·수경 등의 스님, 그리고 시인 고은 등이 원명선원 선방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원명선원 주지인 대효(大曉) 스님은 창건주 지옹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원명선원을 참선도량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원명선원은 재가자 들을 위해 매주 참선 전문 과정 선불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선불장은 1976년 가을, 서암 스님을 모시고 시작한 참선법회가 발전한 것이다. 이 선불장은 1976년부터 중·고생에서부터 일반 재가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참선 지도를 계속해온 결과 지금은 제주도 내에서 가장 튼실한 재가자 참선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2년에 설립되어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원명유치원도 이러한 원명선원의 목표 아래 세워진 것이다.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을 바른 안목을 지닌 인격체로 성장하여 현대사회의 든든한 동량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⁸⁰⁾

[사진 III-21]과 같이 현재의 원명선원은 2015년 7월 기공식을 시작하여

80)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p.137-142.

2019년 12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요사채와 목조 대응보전 이설 등 건평 580평으로 5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준공되었다. 2020년 현재 고땡캠프, 자젠 침선, 선농, 재택 고땡, 무문관 체험 등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는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나)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의 형식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9호 ● 명칭: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 규모: 전체높이 51.5cm, 머리 높이 29cm, 무릎 너비 32cm, 무릎높이 15cm, 어깨너비 22cm ● 분 류: 유물/불교 조각/석조/불상 ● 수 량: 1기 ● 지정일: 2008년 12월 2일 ● 소재지: 제주시 원두길 34 ● 시 대: 조선시대 ● 관리자: 원명선원
[사진 III-22]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출처: 원명선원 제공(2021.01.18.)	

[사진 III-22]는 원명선원에서 제공한 불상 모습이다. 석조여래좌상은 불석(혹은 응회암)으로 조성된 조선후기의 석조여래좌상이다. 전체적으로 신체와 비교해 머리가 큰 편으로, 머리는 나발이 촘촘하고 반달형의 중간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장식되어 있다. 상호는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어 등이 휘어진 것처럼 보이나 당당하다. 이마의 중앙에는 백호가 표시되어 있고, 눈은 반쯤 뜨고 있으며 입과 코도 큼직한 편이다. 불은 양감이 풍부하여 통통한 편이며 귀는 크고 두툼하며 귓불은 뭉툭하다. 어깨는 좁고 움츠러든 듯하며, 짧은 목에는 생사를 윤회하는 인과(因果)를 나타낸 삼도(三道)가 길게 표현되어 있다.

법의를 통견으로 두툼하여 신체의 굴곡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양어깨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은 복부 아래에서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균의는 윗부분이 지그재그형으로 표현되었으며 아래에는 굵은 돌대가 돌려있다. 발목에서 양 무릎

아래쪽으로 퍼진 옷자락은 비대칭형으로 넓게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있다. 등 뒤에는 왼쪽 어깨에서 뒤로 넘겨진 옷자락이 나뭇잎 모양으로 길게 내려와 허리까지 닿아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수인은 두 손 모두 손가락을 나란히 하여 무릎 위에 가볍게 대었다.

대좌는 유실되고 없으며 대좌 밑면에 가로 8.5cm, 세로 6.5cm, 깊이 19.5cm 크기의 사각형 복장공이 남아있으나 안타깝게도 복장물은 유실되었다. 복장공 주변에 개금불사 시 한지를 붙였던 흔적만 3~4 군데 보이며 마지막 불사 시 복장물을 넣고 다라니경을 붙였던 흔적만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오른쪽 눈과 귀 사이에 가는 금이 세로로 나 있으며 군데군데 개금이 벗겨져 있다.⁸¹⁾

10) 복신미륵(佛石) [동자복(東資福) · 서자복(西資福), 민속문화재 제1호]

제주시 건입동과 용담동에는 현무암으로 조각된 2구의 조각상이 남아있는데, 거의 동일한 규모의 양식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치 한 쌍처럼 마주 보고 서 있다. 그런데 두 조각상 중에서 건입동의 만수사지(萬壽寺址)는 동자복, 용담동의 해륜사지(海輪寺址)는 서자복으로 오래전부터 불리고 있다. 이처럼 두 조각상은 모두 복신미륵(福神彌勒)으로 불리며, 미륵불(彌勒佛)⁸²⁾로 전해지고 있다. 두 석상은 미래에 복을 가져다주는 미륵불이라는 의미에서 자복(慈福) 또는 자복(資福), 자복신(慈福神) 또는 자복신(資福神)으로 명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복신미륵으로 불리는 두 조각상은 과장되게 표현된 얼굴의 눈과 코, 원형(圓形)의 관모(冠帽)를 쓰고 있는 표현 기법 등은 제주지역에서 성행한 돌하르방과도 상당히 유사한 조각 기법을 보인다. 그리고 두 조각상은 사찰에서 예불의 대상으로 조성된 것은 분명한데, 전체적인 모습이 예전부터 내려온 전형적인 석불(石佛)이라기보다는 주로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야외에 조각되는 민불(民佛)에

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앞의 책, p.58.

82) 미륵불: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뒤 미래에 사바세계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부처를 가리키는 교리.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륵불신앙이 희망의 신앙으로 수용되어 폭넓게 전승되었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6억7000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님이다. 출처: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검색일:2021.01.05.

가까운 형식으로 조각된 점이 특징이며, 토속적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각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의 표현도 근엄하고 자비스러운 인상보다는 친숙하고 인간적인 돌하르방의 얼굴 모습과 상당히 닮았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두 조각상은 당대(當代)의 불상 양식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을 갖춘 육지에서 건너온 장인에 의하여 조각되었다기보다는 불상 양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과 이해가 있었으며, 오랫동안 제주도에서 살았던 장인이 지역적 특성을 나름대로 반영하여 조각한 불상으로 추정된다. 두 조각상의 구체적인 조성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복신미륵의 역사적 위상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걸쳐 복을 비는 자복사(資福寺)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조선 태종대(1400~1418)에는 전국의 사찰을 7종(宗)으로 구분하여 지역마다 중요 사찰을 자복사로 지정하였다. 당시 자복사는 행정 단위를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정하였는데, 국가가 지정한 자복사는 중요 의례의 실현 장소이자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법회를 거행하는 사찰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제주지역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자복사는 없었다. 그런데 두 사찰이 동자복과 서자복으로 불리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국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지정된 제주지역의 자복사는 아니었지만, 조선시대 들어와 제주지역의 중요 사찰로 인식되어 육지의 자복사처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선초기에는 과주(坡州) 용미리(龍尾理) 마에이불입상(磨崖二佛立像)(1471년), 안양(安養) 망해암(望海庵) 석불입상(石佛立像)(1479년) 등 대형 석불(大形石佛)들이 많이 조성되었다. 현재 동자복과 서자복으로 불리는 두 조각상은 불신(佛身) 아래에 별도의 받침대를 마련하여, 그 위에 한 돌로 조성되어 상당히 큰 대형 석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육지가 아닌 제주지역에서 채석(採石)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각하기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두 조각상은 당시 제주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력한 계층들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이 후원하여 조성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주지역의 다양한 상황과 조선초기 불교계의 동향, 동자복과 서자복의 조각 기법과 양

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두 조각상은 제주지역에서 불교가 중심적인 종교로 자리 잡았던 조선초기인 15세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⁸³⁾

가) 동자복(東資福, 민속문화재 제1-1호)

[사진 III-23]인 동자복은 건입동에 고려시대 사찰이 있었던 옛 만수사지에 자리하고 있는 복신미륵으로, 옛날 제주성의 동쪽에서 성안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자복신(資福神, 재물과 복의 신), 자복미륵(資福彌勒), 미륵불(彌勒佛), 큰 어른으로도 불리며,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으로 조각해 놓았다. 돌하르방과 같은 형태의 돌 모자를 쓰고 있으며, 눈썹과 인자하게 내려다보는 눈, 우뚝한 코, 지그시 다문 입, 커다란 귀 등 자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지금도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기도를 올린다. 문화재의 인식이 부족했던 예전에는 주택가 옆에 자리하고 있어 불편이 컸었는데, 지금은 제주시에서 그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을 정리하여 동자복을 찾는 이들에게 행복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1-1호 ● 명칭: 동자복 ● 규모: 신장 286cm, 엽을 길이 161cm, 아랫몸 둘레 662cm ● 분 류: 유물/불교 조각/석조/불상 ● 수 량: 1기 ● 지정일: 1971년 08월 25일 ● 소재지: 제주시 만덕로 12-5 ● 시 대: 고려시대 추정 ● 관리자: 제주시
[사진 III-23] 복신미륵-동자복. 출처: 연구자 촬영(2021.02.06.)	

83) 엄기표 외 7인(2020), 앞의 책, pp.256-261.

나) 서자복(西資福, 민속문화재 제1-2호)

서자복은 용담1동 용화사 사찰 옆에 자리하고 있는 미륵으로 옛날 제주성의 서쪽에서 성안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돌하르방과 같은 형태의 돌 모자를 쓰고 있으며, 눈썹과 인자하게 내려다보는 눈, 우뚝한 코, 지그시 다문 입, 커다란 귀 등 자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곁에는 높이 75cm, 둘레 100cm가 되는 남근을 상징하는 동자상이 서 있는데, 여기에 걸터앉아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현재 민속문화재로 등록된 [사진 III-24]의 복신미륵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동기로 동·서 복신미륵이 세워진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에 따른 어떠한 문헌 기록도 아직 찾을 수 없는데, 다만 제주도에 흔한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점으로 보아 제주도 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큰 절의 승려가 제주도에 오고 보니 이렇다 할 미륵석상이 없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의 건립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 이를 세우게 된 동기였다고 전승되기도 한다.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1-2호 ● 명칭: 서자복 ● 규모: 신장 273cm, 엽을 길이 135cm, 아랫몸 둘레 315cm ● 분 류: 유물/불교 조각/석조/불상 ● 수 량: 1기 ● 지정일: 1971년 08월 25일 ● 소재지: 제주시 동한 두길 3(용담1동) ● 시 대: 고려시대 추정 ● 관리자: 제주시
[사진 III-24] 복신미륵-서자복. 출처: 연구자 촬영(2021.02.06.)	

이 두 복신미륵에 얽힌 기자습속(祈子習俗)은 극성스러울 만큼 대단하다. 1968년 조사 당시만 하더라도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물으면 한결같이 이 미륵 불에 치성함으로써 득남한 사실을 보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들 했다. 그 치성은 주민들의 재래적 무속신앙과 밀착되었다. 예전에는 무관이 주관하여 득남하려는

여인과 이 동·서 복신미륵을 찾고 규모를 갖춘 의례를 치렀었다고 전해진다. 치성한 효험이 있어서 다행히 득남한 여인들은 이 미륵을 '조상'이라고 극진히 모시고 섬겨 왔다고 한다.⁸⁴⁾

두 미륵불의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고을을 지키고 아들 낳기를 바라는 제주민들의 간절한 민간신앙의 모습과 불교의 결합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84) 제주도청홈페이지 <https://www.jeju.go.kr/culture/culturalAssets>, 검색일: 2021.01.05.

2. 서귀포시 문화재 보유사찰의 분포현황

가. 석탑

1) 존자암 세존사리탑(尊者菴 世尊舍利塔, 유형문화재 제17호)

가) 존자암의 사찰 유래와 내력



[사진 III-25]의 존자암은 서귀포시 하원동 산1-1번지 한라산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다. 한라산 해발 고도 약 1,280m에 신선이 산다는 골짜기에 있는 영실은 오백나한, 또는 오백장군이라 불리는 수백 개의 기암절벽이 들어서 있어 영주십경의 하나로도 불리는 곳이다.

존자암의 창건 시기는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가운데 존자암의 기원을 『법주기(法住記)』에서 찾는 이들은 이곳을 주저 없이 한국불교 초전 법륜지로 부른다. 고려대장경 『법주기』에 의하면 석가세존의 제자 16 존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포교를 위하여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그중 여섯 번째 존자 발타라가 그 권속인 900 아라한과 더불어 탐몰라주에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이 탐몰라주에 대하여 근대의 불교학자 이능화(李能和, 1869~1934)는 1918년

에 펴낸 『조선불교통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탐몰라주는 탐라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제주도다. 『동국여지승람』을 살펴 건대 제주 존자암은 한라산 서령(西嶺)에 있으며 그 동(洞)에 있는 암석이 승(僧)이 수행하는 모양과 같아서 속전에 수행동(修行洞)이라 하였다. 존자암이란 곧 발타라 존자의 이름인 까닭이라 함은 그럴듯하다. 이른바 500 장군석은 또한 500 나한석이 와전된 이름이라 함도 그럴듯하다.”

존자암의 창건 시기에 관한 또 다른 주장은 탐라의 기원과도 관련되어 있다. 1519년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제주로 유배됐다가 1520년 사약을 받고 죽은 충암(沖菴) 김정(金淨, 1486~1520)은 『충암집』에서 “존자암은 삼성(三聖)이 처음 일어났을 때 만들어져서 삼읍의 정립 후까지 오래 전해졌다.” 고 말하고 있다.

존자암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국성재를 지내던 비보사찰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1498년 유배된 뒤 8년을 넘게 제주에 살았던 홍유손(洪裕孫, 1431~1529)이 1507년에 존자암을 중수하기 위해 지은 「존자암개구유인문」에서 그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존자암은 비보소(裨補所)이자 이미 세상에 이름이 난 지 오래다.…그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이 암자에 논을 하사하여 벼를 심어 재를 지낼 경비로 삼고, 음력 4월 길일을 잡아 세 읍의 수령 중 한 사람을 뽑은 다음 목욕재계하여 이 암자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를 국성재라 하였는데, 지금은 이 제사가 폐지된 지 6, 7년이 되었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존자암은 16세기 초까지 나라에서 경비를 받아 국성재를 지내던 비보사찰이었다. 서귀포시 법화사, 제주시 수정사 등과 더불어 제주를 대표하는 거찰이었다. 이 존자암은 제주지역의 호족과 관가의 관원들뿐만 아니라 민가의 아낙들까지도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로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중앙에서 파견된 대부분 관리가 주요 방문지로 손꼽았을 만큼 이름난 명소였다. 현재 이곳에서 발굴되고 있는 유물들과 다양한 문헌자료 등을 통해서도 존자암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중기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사찰

임이 확실히 드러났다.⁸⁵⁾

문헌상으로는 154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하여 임제(林悌, 1549~1587)의 「남명소승(南溟小乘)」,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남사록(南槎錄)」 등의 기록과 광해군 초기에 제주 판관을 지낸 김치(金緻, 1577~1625)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 등에서 이 존자암이 문헌 기록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명소임을 알 수 있다. 제주를 찾은 관리나 시인, 묵객들은 한라산 존자암을 참배하고 그 여정을 글로 남기며 존자암의 위상에 자신들의 명성을 견주어 보곤 했다. 그러나 이 존자암도 조선의 배불 정책이 강화되면서 서서히 소멸하여 가기 시작했다. 존자암의 변화는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원진(李元鎭, 1594~1665)의 『탐라지(耽羅誌)』인데, 1653년에 탐라지에 있는 내용이다.

“옛날엔 한라산 영실에 있었다. 그 동굴에 수행하는 승의 모습인 돌이 있어 수행동이라 전한다. 지금은 서쪽 기슭에서 밖으로 10리쯤으로 옮겼는데 곧 대정 지경이다.”

이원진이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재직했던 시기는 1651년(효종 2년) 7월에서 1653년 10월까지다. 이로 보아 존자암은 효종 이전인 그 어느 시기에 영실에서 대정 지경으로 옮겨진 것이 된다. 그 밖에도 「대정현」조에, “존자암은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대정현에서 동쪽으로 60리 거리다. 암자 동쪽에는 샘이 있어 물이 솟는데 백 보쯤 흘러 땅속으로 스며든다.” 라고 하여 존자암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위상에 변화가 생긴 존자암은 이곳저곳으로 옮겨지다가 조선후기의 대대적 억불정책에 의해 완전히 폐사된 것으로 파악된다.

1993년과 1994년 제주대학교박물관의 존자암지 발굴 조사는 서귀포시 하원동 산 1번지 한라산 영실 서북편 불래오름 남사면 능선의 존자암지 발굴조사이다. 제주대학교박물관의 존자암지 발굴조사 결과 존자암지에서는 고려 말 조선초에 걸친 석축 시설과 금당, 선방, 비각 등 건물지 5개소, 부도와 부도지, 배수시설, 적석 시설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목탑의 중심 주초석도 발굴되었고, 유물로는 청자·분청 도자기류와 청동제 지국천왕상 등이 출토되었다. 1994년

85)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p.261-266.

2차 조사로는 존자암 초기에 만들어진 건물지와 석축 시설이 정교하게 축조되었고 상당한 인력을 동원하여 시설물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보고하였다.⁸⁶⁾

한편 1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존자암 세존 사리탑은 그 시기가 고려 말 혹은 조선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내 유일의 부도이다.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팔각 대석과 사리공 시설이 독특한 특징을 하고 있어 2000년 11월 1일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이 부도는 열반한 스님의 법명을 새겨 놓는 일반적인 부도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독특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 사리탑이 특정한 명문을 새길 필요가 없는 석가세존의 진신 사리탑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사찰 기와의 특징인 당초무늬를 한 당초문기와 1,000여 편도 발굴되었다. 발굴된 기와들은 ‘만호겸목사(万户兼牧使)’ 명문기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월수정선사 대부 김충광 만호겸목사봉(二月水精禪寺 大夫 金冲光 万互兼牧使奉)’ 이라 새겨진 이 명문 기와들은 만호 겸 목사를 지냈던 김충광이 제주에 부임한 1373년에서 1384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다.

도자기류로는 청자 상감 화분, 청자 상감병, 청자 대접, 청자 화형전 접시, 청자 대접 등을 비롯하여 분청인화국화문 접시 등과 인화, 철화 귀얄 덤병분장의 분청 대접, 접시 등도 출토되었다. 그 외의 발굴 유물로는 청동제 지국천왕상과 청동개(靑銅蓋) 벼루 등이 있다.

이처럼 각계의 발굴조사에 힘입어 존자암은 고대 탐라와 관련된 기록이 전하는 제주도 내 유일의 유적으로서 그 귀중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1998년 여름부터 복원 불사에 들어갔다. 이 불사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주석하고 있는 법정(法正) 주지스님의 노력이 컸다. 법정 스님은 국성재각·대웅전·요사 등을 중창하며 대가람을 복원하여서 옛 존자암 명성의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김상헌의 『남사록』에 ‘4월 중 좋은 날을 택하여 삼읍(三邑)의 수령 중 한 사람이 존자암에 가서 국가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국성재라 이름하였으며, 1592년과 1593년 사이에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라 존자암에서는 복원된 국성재각에서 해마다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제(齋)를 올리고 있다.⁸⁷⁾

86) 한금순, 「제주도 존자암 고(考)」, 『대각사상 제16집』, 2011, p.369.

나) 존자암 세존사리탑의 형식

[사진 III-26]은 존자암 세존사리탑은 현재 국성각지(國聖閣址) 서편 위쪽에 건립된 현재의 자리가 원위치라고 한다. 통칭 제주석이라 일컫는 현무암으로 건조하였는데 높직한 기단석 위에 괴임돌을 놓고 그 위에 탑신석(塔身石)을 안치하였으며 두툼한 옥개석(屋蓋石)을 얹고 정상에는 보주(寶珠)를 장식하고 있다. 석재(石材)의 구성은 7매 석으로 짜인 기단(基壇) 위에 괴임석이 1석이고 탑신석도 1석이며 옥개와 보주는 동일석(同一石)으로 조성하였다. 지대(地臺)를 단단히 다지고 기단을 구축하였는데 8각(八角)으로 기단을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그 위의 괴임돌은 원형(圓形)이며 또한 높직하다.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7호 ● 명칭: 존자암지 세존사리탑 ● 규격: 8각 원당 형 석종형부도 높이 200cm ● 분류: 유물/불교 조각/석조(제주)/불탑 ● 지정사항: 사리탑(부도 1기) ● 지정일: 2000년 11월 1일 ● 소재지: 서귀포시 영성로 203 ● (존자암 경내) ● 시대: 고려말조선초 ● 관리자: 서귀포시청
[사진 III-26] 존자암 세존사리탑. 출처: 연구자 촬영(2020.12.13.)	

탑신석은 석종형(石鍾形)에 속하나 장구형(長球形)의 상·하를 평평하게 치석(治石)하였으며 중앙부로부터 상·하단에 이르면서 유려(流麗)한 곡선미를 보인다. 옥개석의 형태는 하면은 평평하나 낙수면이 초가지붕 형태로 부드러운 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위의 보주 또한 세련된 조각미를 보인다. 어느 때인지 도굴배들에 의하여 도괴되었던 것을 근년에 복원하였다는데, 당시 원형의 괴임돌 중앙에 큼직한 사리공(舍利孔)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이 사리공은 탑신석 하면의

87)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p.265-269.

시설과 연결되어 상·하가 꼭 맞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8각(八角)으로 이루어진 하대석(下臺石)을 덮고 정상(頂上)에 보주를 장엄한 양식 등 각부의 치석(治石)과 건조 수법으로 보아 건조연대는 고려말·조선초로 추정된다. 8각 하대석과 높직한 원형의 괴임돌, 유려한 곡선미를 보이는 탑신석, 옥개석 낙수면과 정상 보주형의 세련된 조각미 등 매우 우수한 유물이다. 특히,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사리탑으로 국가 지정 보물의 가치도 있다고 하겠다.⁸⁸⁾

존자암 부도는 세부적으로 간략화된 치석과 결구 수법이 적용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각 부재 간에 비율이 잘 어울리고 있어 전형적인 원구형 부도로서 안정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 부도가 당시 육지에서 성행한 양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당히 우수한 석공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⁸⁹⁾

나. 불상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木造菩薩坐像, 유형문화재 제20호)

가) 서산사 사찰 유래와 내력



8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앞의 책, p.74.

89) 엄기표 외 7인(2020), 앞의 책, pp.254-255.

[사진 III-27]의 서산사(西山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말사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 있다. 서산사가 위치한 대정읍 동일리는 예로부터 가시가 많아 가시오름이라 불리는 주변 오름을 중심으로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의 유서 깊은 사찰 서산사는 1943년 6월 7일 강창규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서, 일제강점기의 제주불교와 제주항일 역사 등 제주 근대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찰이다. 강창규 스님은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주역 중의 한 사람으로, 당시 무장 항일조직의 선위 선봉대장으로 활약했다.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이란 김연일 스님을 비롯한 강창규·방동화 스님 등 몇 명의 스님들의 주도 아래 일본인 관리와 상인을 몰아내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일으킨 항일운동이다.

서산사는 1958년 6월 18일 강창규 스님과 이단명심 보살, 그리고 당시 주지였던 박용봉 스님 등의 협의로 인근 보청사와 법상사, 그리고 서산사를 통합하여 성불사로 사명(寺名)을 바꾸었다. 박용봉 스님은 성불사를 인수한 후 법당과 요사를 증축하는 등 중창 불사를 단행하였고, 1962년 10월 13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에 사찰을 등록하였다. 서산사는 1966년에도 대대적 중창 불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당시의 재건기념비가 서산사 도량 내에 세워져 있다. 성불사는 이후 다시 서산사로 사명을 고쳤으며, 그동안 해운 스님, 동철 스님 등이 주지로서 인연을 맺었다. 1992년에 부임한 동제 스님이 사세를 확장하며 대정지역의 중심 불교도량이 되었다. 서산사의 유물로는 1534년 조성된 목조보살좌상이 2004년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⁹⁰⁾

나)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의 형식

[사진 III-28]의 목조보살상은 서산사(西山寺)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처음 조성 당시에는 삼존불 가운데 본존불의 좌우보처 보살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홀로 서산사에 봉안되어 있다. 보살상은 좌상이며, 머리에는 청동제 관을 쓰고 있다. 불상의 재료는 나무이며, 개금 상태가 양호하여 전체적으로 잘 보존된 것처럼 보인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의 재료는 청동제이

90) 사찰문화연구원(2006), 앞의 책, pp.303-306.

다. 이 보관은 고대인도 귀인(貴人)들의 머리 장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불상을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보살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다.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0호 ● 명칭: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 규모: 전체높이 58cm, 머리 높이 11.5cm, 무릎 너비 33.5cm, 무릎높이 12cm, 어깨너비 25cm ● 분류: 유물/불교 조각/목조/불상 ● 수 량: 1기 ● 지정일: 2004년 9월 9일 ● 소재지: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36번길 24-11 ● 시대: 조선시대 ● 관리자: 서산사
[사진 III-28]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출처: 연구자 촬영(2020.11.03.)	

보관의 전면 중앙에 어떠한 형상이 표시되어 있는가에 따라 보살의 명칭이 정해지는데, 이 보살상 보관의 경우 화불(化佛)이나 보병(寶瓶) 등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희미하게 원형의 문양이 보일 뿐이다. 이 문양이 약사여래의 보처보살인 일광보살(日光菩薩)이나 월광보살(月光菩薩)의 상징인 해(日)나 달(月)을 표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얼굴은 원만상에 가까우며, 모발이 귓불의 중앙 하단에 1줄로 통과하여 형식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마의 중앙에는 광명을 비춘다고 하는 백호가 있는데 아주 작게 표현하였다. 눈은 반개하여 일자형이나 꼬리 부분이 약간 올라가 있다. 코는 상호의 각 부분과 비교해 볼 때 큰 편이며 콧날이 넓어 반 원통형에 가깝다. 인중은 길고 뚜렷하며 입은 두툽한 편이다. 눈썹과 눈은 먹선으로 그렸고, 입은 붉은 칠을 하였다. 콧수염은 옆으로 세 줄을 그었고 입술 밑에도 먹선을 그렸다. 턱 밑에는 1조 선의 음각 선을 넣어 양감 있게 처리하고, 귀는 크고 두툽하며 귓불이 뭉툭하다. 목은 짧으며 생사를 윤회하는 인과(因果)를 나타내는 것으로 혹도(惑道) 또는 번뇌도(煩惱道), 업도(業道), 고도(苦道)를 의미하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어 있다.

법의는 통견으로 아주 두툼하게 처리하였다. 양어깨에서 흘러내린 법의 자락은 일직선으로 흘러 복부 아래에서 U자형을 이루고 있다. 가슴 부위까지 올라와 있는 군의는 일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띠 매듭은 없다. 왼쪽 어깨로 넘어간 법의 자락은 왼쪽 등을 타고 큰 주름 하나를 형성하여 엉덩이 부분까지 늘어지고 있다. 오른쪽 발목에서 흘러내린 법의 자락은 상체의 옷 주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무릎 이하가 많은 손상을 입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손은 따로 만들어 끼웠으며, 손에 아무런 지물도 없다. 오른손은 옆으로 들어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려고 하고 있으며, 왼손 역시 오른발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으며 엄지와 중지를 맞대려 하고 있다. 이러한 수인은 석가여래의 설법인(說法印)과 같은 모습이다. 앉은 자세는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에 걸친 이른바 향마좌(降魔坐)이다. 무릎은 넓고 높은 편이어서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손상이 많이 되었고 흠과 마포 등으로 싸여 있어서 이 보살상의 재료가 지불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불상의 바닥은 사각형 구멍이 크게 나 있는데 이 구멍은 복장공(腹藏孔)이다. 대체로 목판으로 복장공을 마무리하는데 아쉽게도 유실되고 없다.⁹¹⁾

2) 정방사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 유형문화재 제23호)

가) 정방사 사찰 유래와 내력

정방사는 서귀포시 정방동에 있는 한국불교태고종 사찰이다. 1931년 서귀포시 영천동 현재의 선돌 선원 위치에서 창건되었으며, 당시 사찰명은 쌍계사였다. 현재 공양용 불구(佛具)에 ‘제주도 쌍계사(濟州道雙溪寺)’ (1932년 조성)란 명문이 음각된 유물이 남아있다.⁹²⁾

그 후 1932년에 서흥동 지장샘 부근으로 잠시 사찰을 옮겼다가 그해에 현 위치로 사찰을 다시 옮겨 대웅전을 짓고 장성 백양사 포교당으로 등록하였다. 김남

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앞의 책, pp.34-35.

92) 김창화(2009), 앞의 논문, pp.37-38.

하(金南夏) 스님은 1933년 1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기와집 법당을 완공하였다. 그러나 김남하 스님은 많은 빚을 지고 사찰을 창건하였으나 사찰 운영이 어려워 채무에 시달리다 3년 만에 사찰을 떠났다고 한다. 사찰 신도들이 신도회의를 통해 부채청산 논의를 하던 중, 부산에 사시는 법환리 출신 재력가를 알게 되어 섭외하고 보시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사찰 신도들이 사찰 운영을 하게 되었다. 많은 스님이 다녀갔지만 어려운 사찰 형편으로 상주 스님이 계시지를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 5월 16일 현주지 혜일 스님이 정방사로 오면서 불사에 들어갔다. 부처님께 정방사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3,000일 기도를 올리면서 [사진 III-29]의 모습인 현재의 정방사를 중건하였다.



혜일 스님이 주지 취임 당시 법당에는 고불 부처님이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중창 불사가 끝나면 문화재 등록의 원을 세우고 추진한 결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문화재는 봉안 전각을 마련하지 못하여 주지실에 봉안하고 있다.

나)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불상의 형식

정방사에 소장된 [사진 III-30]의 불상은 과거칠불(過去七佛)⁹³⁾ 중 제삼 비사

93) 지난 세상에 출현했던 일곱 부처를 가리키는 불교용어, 부처: 비마시불(毘婆尸佛)·시기불(尸

부불(毗舍浮佛)이며 경주불석(옥돌)으로 이루어진 석조여래좌상이다. 불복장(佛腹藏)에서 나온 발원문에 의하면 1702년 연화(緣化) 스님이 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3호 ● 명칭: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 규모: 전체높이 61.5cm, 머리 높이 22cm, 무릎 너비 42cm, 무릎높이 14cm, 어깨너비 28cm ● 분류: 유물/불교 조각/석조/불상 ● 수량: 1기 ● 지정일: 2005년 10월 5일 ● 소재지: 서귀포시 동부로12번길 19 ● 시대: 조선시대 ● 관리자: 정방사
[사진 III-30]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출처: 연구자 촬영(2021.02.06.)	

전체적으로 안정된 자세를 보여주는 불상으로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다. 나발(螺髮)의 머리칼에 육계(肉髻)의 구분이 불분명한 머리에는 반달 모양의 중간계주(中間髻珠)와 반구형(半球形) 정상계주(頂上髻珠)가 마련되어 있으며, 얼굴은 네모꼴 형태에 길게 치켜 올라간 눈과 각진 오뚝한 코, 굳게 다문 입의 표현으로 다소 경직되어 보이기 는 하나 입가에 미소를 살짝 지어 근엄함 속에 인자함이 엿보인다. 귀는 큼직하니 어깨에 닿을 듯 길게 늘어져 있으며, 짧아져 보이는 목에는 삼도(三道) 표현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법의를(法衣)는 움츠린 듯 치켜올린 양어깨를 다 덮은 통견의(通肩衣)로서 대의 깃이 직선으로 흘러내리다 복부에서 U형을 이루었다. 넓게 트인 대의 깃 사이로는 묶음 띠 없이 수평으로 가로지른 내의 표현이 엿보이며, 왼 무릎 위로는 왼팔을 걸쳐 내린 소맷자락이 한 가닥 드리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특징 중 오뚝한 코와 윗 단이 수평을 이루는 내의의 표현 등은 조선시대 17세기 중반기 이후 불상들에서 흔히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그

棄佛)·비사부불(毘舍浮佛)·구류손불(拘留孫佛)·구나함불(拘那含佛)·가섭불(迦葉佛)·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가리킨다. 구글,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거칠불(過去七佛)], 검색일: 2021.02.02.

흐름이 짐작된다. 두 손은 형태가 변형되어 있어 정확한 수인(手印)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댄 모습으로 오른손은 무릎 위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왼손은 손 등이 위로 가도록 한 채 가부좌한 오른발을 감싸 쥐듯 감아 내림으로써 마치 좌우가 뒤바뀐 아미타수인(下品中生印)의 모습과도 같아 보인다.

이와 같은 손 모습을 발원문에서 보이는 “원이차공덕(願以此功德), 보급어일체(普及於一切) 아등여중생(我等與衆生) 동견무량수(同見無量壽) 개공성불도(皆共成佛道)” 중의 ‘무량수(無量壽)’와 연결 지어 수명장수 사상과 관련이 있는 비사부불(毗舍浮佛)의 수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위 내용은 불상 복장 발원문에서 상의 성격과 관계없이 거의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⁹⁴⁾

3)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木造阿彌陀如來三尊佛龕, 유형무화재 제35호)

가) 영조사 사찰 유래와 내력



[사진 III-31]의 영조사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조사로 16에 있는 사찰이다. 영조사는 홍규서 스님이 1951년에 염불당을 건립하고, 1954년 4월 8일에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었으나, 현재는 일붕선교종에 소속된 사찰이다. 영조사는

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2008), 앞의 책, pp.69-70.

콘크리트 건물에 기와를 얹은 대웅전 법당 1동과 요사 1동으로 이루어진 사찰로, 경내에 불사(佛事)와 관련된 석비(石碑)와 석탑 등이 세워져 있다. 도난 방지를 위해 주지실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삼존불감은 창건주 홍규서 스님이 개인적으로 모시던 원불(願佛)로, 2013년 7월 1일 복장 조사를 계기로 조성 발원문이 발견되어 1692년 음력 12월에 단응(丹應)을 포함하여 네 명의 조각승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불감을 제작한 단응과 탁밀은 17세기 후반에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으로, 예천 용문사와 안동 봉황사 등에 그들이 제작한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현재 주지스님은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문화재를 봉안하기 위한 전각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연문을 만들어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여법하게 불사가 마무리되어 아미타여래삼존불을 봉안할 수 있는 전각이 조성되어 영조사를 찾는 불자들에게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을 친견할 수 있는 인연이 맺어지기를 발원하고 있다.⁹⁵⁾

나)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불상의 형식

서귀포시 영조사 소장 목조아미타삼존불감은 크게 감실(龕室)과 그 안에 안치된 불상 및 복장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III-32]의 불감과 불상은 모두 목재이며 복장품은 발원문, 황초복자로 쓴 후령통, 인경다라니(印經陀羅尼) 등이 발견되었다.

불감(佛龕)이란 작은 공간에 불상을 안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불감은 연 봉우리 형태의 보주(寶珠)가 있는 팔각형의 연잎형 지붕으로 각 모서리에서 45도(度)의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내려와 끝부분이 약간 반전(反轉)되고, 지붕 밑 안쪽으로 받침이 두 단으로 있는 형태이다. 불감의 몸체는 좌우의 문을 포함한 팔각면체(八角面體)를 이루고 감실 내부에 불상을 안치할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 ⁹⁶⁾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은 불상의 복장(腹藏)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92년 소영대선사(昭影大禪師)의 원불(願佛)로 조각승 단응(端應), 탁밀(卓

95) 영조사 주지 관일 스님 인터뷰: 2021.01.12.

96) 영조사 주지 관일 스님 자료제공, 2021.01.12.

密), 보웅(普雄), 종인(宗印) 등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작 배경과 시기, 제작자, 참여자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문화재 평가 이유다. 특히 단응, 탁밀 등 조각승들은 17세기 후반 경상북도 북부, 충청북도 북부, 강원도 남부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들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5호 ● 명칭: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 분류: 유물/불교 조각/목조/불상 ● 불감: 높이 22.9cm, 바닥 17×17cm ● 아미타불: 높이 11.7, 바닥 면 8.3×5.5cm ● 관음보살: 높이 10.7cm, 대세지보살: 높이 10.8cm ● 수 량: 1기 ● 지정일: 2017년 11월 1일 ● 소재지: 서귀포시 대정읍 영조사로 16 ● 시대: 조선시대 ● 관리자: 영조사
<p>[사진 III-32]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출처: 연구자 촬영(2021.01.12.)</p>	

불감 내 봉안된 아미타여래좌상과 협시보살상(관음보살 입상, 대세지보살 입상)은 비록 상(像)은 작지만 강인한 상호(相好)와 단순한 선묘, 불보살의 착의 양식 등에서 17세기 후반 대표적 조각승(彫刻僧)인 단응, 탁밀의 조각적 개성과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으며, 불감에서 보이는 아름답고 세련된 조형감은 드물게 전하는 조선후기 불감 가운데 단연 돋보인다.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 발원문을 통하여 제작 배경과 제작 시기와 작가 및 시주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유물이다. 그리고 불감이라는 희소성 및 작품성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조선후기 불교 조각사 연구에 기준작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⁹⁷⁾

지금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불교 문화유산 중 석탑과 불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 현황과 문화유산 현황을 정리하였다.

다음의 <표 III-1>은 제주특별자치도 사찰별 등록된 불교 문화유산 현황표이

97) 제주도청홈페이지 <https://www.jeju.go.kr/culture/culturalAssets>, 검색일: 2020.09.28.

다. <표 Ⅲ-1>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들은 대부분이 1930~1950년대에 창건된 사찰들이었다.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제주시가 10곳이고, 서귀포시는 4곳이다. 그리고 민속문화재 1호로 지정된 복신미륵은 제주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사찰령에 따라서 제주에서 사찰을 창건하려면 반드시 본사를 두고 창건하게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제주에는 본사가 없었기 때문에 본사가 있는 육지사찰에 적을 두어 창건을 해야만 했다. 그런 이유로 일제강점기 제주도에 많은 사찰이 육지에 본사를 두고 말사로 창건되면서 본사에 있는 문화재급 불상들이 제주에 올 수 있었다. 그 당시 제주에 들어온 불상들의 조성 시기는 대부분이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이며 지역적 여건으로 운반에 용이한 소형불상이 대부분이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문화재 가운데 불교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유산 중 석탑과 불상을 분류하면, 국가 지정 보물이 1건, 유형문화재 9건, 문화재자료 5건, 민속문화재 2건이 등록되어 있다. 보물로는 불탑사 오층석탑이며, 유형문화재는 존자암 세존사리탑과 불상 3건, 보살상 4건, 불감 1건이다. 문화재자료는 모두 4건이 불상이며, 민속문화재 1건도 불상으로 조성되어 있다.

재료별 불상은 목조불상이 4건(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월영사 목조여래좌상, 보덕사 목조여래좌상)이며, 석조불상이 4건[정방사 석조여래좌상,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복신미륵(동자복·서자복)]이 있다. 특히 월정사 이조여래좌상은 진흙으로 빚어진 제주에서는 보기 드문 불상이었다.

또한 재료별 보살상은 목조보살상 5건(관음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월정사 목조보살입상)이 있다. 그리고 특별한 불상으로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위 문화유산들의 봉안 장소를 살펴보면,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석탑은 불탑사 오층석탑, 존자암 세존사리탑, 복신미륵이 있으며,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은 보림사, 삼광사, 서산사, 용문사, 월정사, 보덕사이며, 월영사는 따로 법당을 마련하여 봉안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불상을 모실 전각을 마련하지 못하여 주지실에 봉안되어 공개가 안 되는 사찰은 관음사, 정방사, 월계사, 영조사, 원명선원이었다.

〈표 III-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현황(석탑·불상)

분류	문화재명	지정 번호	문화유산 보유 사찰명	창건 연도	높이(cm)	지정일	소재지		
				입도 시기	조성 시기				
국가 지정	보물	불탑사 오층석탑	1187	불탑사	1930년	400	1993. 11.19	제주시 원당로16길 41	
						고려후기			
제주 도 지정	유형 문 화 재	존자암 세존사리탑	17	존자암	고려시 대추정	200 려말선초	2000. 11.01	서귀포시 영성로 203	
		관음사 목조관음보살 좌상	16	관음사	1909년 1924년	75 1698년	1999. 10.06	제주시 산록북로 660	
		보림사 목조관음보살 좌상	18	보림사	1957년	86 조선후기	2000. 05.15	제주시 사라봉동길 6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 일괄	20	서산사	1943년	58 1534년	2004. 09.09	서귀포시 대정읍 신명로36번길24-11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23	정방사	1931년	61.5 1702년	2005. 10.05	서귀포시 동부로12번길 19	
		월계사 목조아미타불 좌상	24	월계사	1937년 1939년	43 1661년	2007. 07.25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39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25	삼광사	1992년	43 1671년	2007. 07.25	제주시 아봉로279-7	
		용문사 목조석가여래 좌상	26	용문사	1945년 1997년	42 1700추정	2007. 07.25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1531	
		영조사 목조아미타 여래삼존불감	35	영조사	1951년	22.9 1692년	2017. 11.07	서귀포시 대정읍 영조사로16	
		문 화 재 자 료	월정사 이조여래좌상	4-1	월정사	1934년	59	2000. 12.27	제주시 아연로 216-5
			월정사 목조보살입상	4-2			78.5 조선후기		
			월영사 목조여래좌상	6	월영사	1936년	51cm 조선후기	2004. 09.09	제주시애월읍하귀 동남2길40-16
			보덕사 목조여래좌상	7	보덕사	1941년	66 조선시대	2004. 09.09	제주시 독깃골8길 26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9	원명선원	1952년	51.5 조선후기	2008. 12.02	제주시 원두길 34
		민 속 문 화 재	복신미륵 (동자복)	1-1	제주시	옛만수 사지	286 고려후기	1971. 08.26	제주시 만덕로 13-5
			복신미륵 (서자복)	1-2	제주시	옛해륜 사지	273 고려후기		제주시 동한두길 3

※출처: 연구자 정리(2020년 10월 현재)

IV. 제주도 보유사찰 문화유산의 유산적 가치와 활용방안

1. 문화유산 석탑·불상의 유산적 가치

가. 제주도 석탑의 유산적 가치

1995년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한국 최초로 세계유산⁹⁸⁾으로 지정된 이래, 문화유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람들이 세계 각지의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있고, 그 효과로 지역의 경제적 이득으로 인한 부가이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문화유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며,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표IV-1>과 같다.

<표 IV-1> 문화유산의 종류(개정 2020.12.22.)

종류	내 용	비고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 가치가 큰 것과 이에 따르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 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	

98) 문화재청홈페이지 ‘세계유산’, <http://www.heritage.go.kr>, 검색일: 2021.02.19.

	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	

※출처: 문화재청홈페이지, 문화재보호법 제1조, 연구자 재구성, 검색일: 2021.02.19.⁹⁹⁾

김경영(201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유산(heritage)’이란 사람이 사후에 남겨 놓은 소유권, 채권 등의 모든 권리와 채무를 말하며, 그것이 문화와 관련된 유산일 경우에 ‘문화유산’이라고 한다. 즉 ‘문화유산’이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사회 또는 인류사회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양식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¹⁰⁰⁾고 하였다.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보면,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서 건립되기 시작한 탑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하는 기념물 또는 무덤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석가모니 재세시(在世時)부터 존재했던 탑은 석가의 입멸 후 그의 사리를 봉안함으로써 불상과 더불어 불가(佛家)에서는 중요한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¹⁰¹⁾ 불교에서의 탑이란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한 구조물’ 또는 ‘석가모니의 무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탑은 산치에 있는 불탑 3기 중 발굴순서에 따라 편의상 번호를 붙여 제1탑이라고 호칭하는 불탑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치대탑’이라고도 한다.¹⁰²⁾ 산치대탑은 아쇼카왕이 사랑하던 여인을 그리워하며 조성했다는 전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대표적인 석탑은 불국사의 다보탑(국보20호)과 석가탑(국보21호)이 있다.

제주불교에서는 당연히 불교 문화유산들이 수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 제주지역 불교 석탑으로 대표적인 유물은 수정사지(水精寺址) 청석탑(靑石

99) 문화재청홈페이지, 문화재보호법, 구글,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1.02.19.

100) 김경영, 「원불교 근대 문화유산의 공간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p.6.

101) 박경식, 『한국의 석탑』, 서울: 학연문화사, 2008, p.510.

102) 산치대탑: 불교의 우주관·세계관 표현한 ‘산치대탑’ 『현대불교신문』(우인보), 2014.02.23. 구글, <https://www.google.com>, 검색일:2021.03.27.

塔)과 불탑사 오층석탑이 있다. 두 석탑은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석탑사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국의 석탑은 순백의 화강암을 사랑하고, 이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예술적인 감각이 담겨 있다. 석탑은 비록 차가운 화강암으로 조성되었지만, 내부에 흐르는 조상들의 땀과 숨소리 그리고 불교를 통해 그들이 처했던 환경을 극복하려 했던 의지와 의식을 오늘까지 전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조형물이라 하겠다.¹⁰³⁾

수정사지 청석탑은 당시의 석탑 원형은 파손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석탑 잔해만 발굴되어 제주국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으며, 불탑사 오층석탑은 현재 불탑사 사찰 경내에서 그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다. 불탑사 오층석탑이 한국 석탑사에서 갖는 문화유산으로서 의의는 재료의 특이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불교가 전래한 이후 수천 기의 석탑이 건립되었는데, 대부분 화강암이 주재료이다. 그런데 불탑사 오층석탑은 현무암으로 건립되어 제주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현무암이 불탑건립의 주재료였으며, 이에 반해 육지는 화강암이 불탑건립의 주재료였다. 현무암은 가벼워 옮기는 것이 쉽지만, 대형의 원석(原石)을 채석하기가 어렵고, 표면에 기공이 많으며, 조직이 단단하지 않아 치석 시 파손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무암은 화강암에 비하여 정교하고 깔끔하게 치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재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탑사 오층석탑의 치석 수법과 양식이 간략화의 경향을 보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불탑사 오층석탑은 관련 기록과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고려 후기 원(元)나라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원나라는 불교를 크게 신봉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불탑이 건립되었는데, 돌을 활용한 석당형탑(石幢形塔), 벽돌을 활용한 밀침식탑(密檐式塔)이나 라마탑(喇嘛塔)이 주류를 이루었다.

현재 마곡사 오층석탑의 경우 전체적인 외관은 고려 석탑 양식을 보이고 있지만, 기단부와 탑신부 등에 원나라 탑파(塔婆) 기법이나 문양이 적용되었고, 상륜부(相輪部)는 원나라의 라마탑 양식을 거의 그대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불탑사 오층석탑은 원나라 황실과의 관계 속에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석탑의 전체적인 외관을 비롯하여 세부적인 치석 수법과 양식 등에서 원나라 탑

103) 박경식(2008), 위의 책, p.514.

과의 기법이나 양식적 요소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불탑사 오층석탑은 고려 후기 간략화의 경향이 진전된 전형적인 고려 석탑 양식을 보인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불탑사 오층석탑은 육지의 고려시대 석탑을 모형으로 하여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당사와 오층석탑이 원나라 지배기에 원나라 황실의 발원과 후원으로 건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립 주체는 고려 장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⁴⁾

그리고 존자암지 세존사리탑도 재료 자체가 현무암으로 제작되어 불탑사 오층석탑과 함께 제주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존자암 부도는 관련기록이나 명문이 남아있지 않아 그 성격이나 주인공은 알 수 없지만, 승려(僧侶)의 유골(遺骨)이나 사리(舍利)를 봉안했던 조형물로 조선 후기 존자암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력한 묘탑(廟塔)으로 추정되며, 치석 수법과 양식 등으로 보아 17~18세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⁰⁵⁾

나.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과 유산적 가치

조선시대 불교조각사에서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는 전기와 구분되는 후기의 출발점이다.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사찰이 재건되면서 많은 불상이 새로이 조성되었으며, 조선전기와 다른 새로운 불상 표현 방식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17세기에는 전국적으로 재건된 주요 사찰의 대웅전이나 극락전, 명부전 등 중심 전각들에 봉안된 불상들이 조성되었던 데 비해, 18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사찰의 주 전각 이외의 부속 전각들에 봉안된 불상들이 많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17세기 불상은 18세기 중·후반 이후의 불상과 구별이 된다.¹⁰⁶⁾

조선후기 불교 조각사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특징은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양식 안에서 조각가 개인의 작품 양식이 다양하게 발현하였고, 일정한 조각 양식을 공유하는 조각승(彫刻僧) 유파가 확실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조선후기의 불교계는 수많은 불상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갖추어

104) 엄기표 외 7인(2020), 위의 책, pp.263-268.

105) 엄기표, 「제주지역 불교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 『제주탐라문화 54호』, 2017, p.170.

106)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서울: 사회평론, 2012, p.25.

지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불상 조성의 주체인 조각승 유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불상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많은 양의 문헌 기록에 의한다. 불상의 복장 안에 들어있는 발원문에 소장된 이들 기록물에는 정확한 제작연대, 화주, 조각가, 시주자 등 불상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정확한 불상 양식의 변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조각승 유파의 존재와 그들의 인적 구성, 활동지역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⁷⁾ <표 IV-2>는 조선후기 시기별로 조성된 불상의 특징을 표로 작성하였다.

<표 IV-2> 조선후기 시기별 조성된 불상의 특징

활동 시기	조각승	특징
1610년대 초기	현진	마른 체형에 길쭉한 얼굴.
1610년중반~1630년 후반	현진파	육중한 몸에 사각형 얼굴을 가진 전형적인 현진파 양식의 불상들로 변화.
1640년~1670년 (30여 년)	청헌	엄숙한 표정의 얼굴과 긴장한 신체를 갖고 있으며, 시무외인의 손을 발 위에 닿을 정도로 낮게 두는 기법을 많이 상용함. 승일과 회장 등 17세기 후반 현진파 청헌파 조각승들에게 계승.
	승일	'y' 모양의 양각 선으로 입체를 나타낸 귀와 좌우 대칭의 곡선들로 이루어진 하반신의 옷주름이 특징.
17세기 조각승	회장	현진-청헌-승일-회장=현진파 청헌파. 불상의 측면을 매우 두텁게 조각하여 입체감을 강조, 오른쪽 어깨와 두 다리 사이에는 끝이 뾰족한 독특한 옷 주름으로 자신만의 특징을 표현.
1624년~1659년 까지 분포	응원· 인균파	전라남도 동부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 응원은 1615년까지 활동. 응원과 인균파의 조각승들이 17세기 말에 조성 추정-불상 현존. 시기적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양감(量感)이 발달한 얼굴과 부드러운 손과 과도치듯 유려하게 묘사된 옷주름이 특징.
17세기 초반~ 1610년	수연파	전라북도 근거지로 충청도와 경기도 황해도 서부지역 활동. 17세기 전반에는 수연과 영철이 수조각승. 17세기 후반에는 운혜와 경림이 수조각승. 17세기 후반에는 전라남도 활동. 불상의 특징은 얼굴이 사각형이며, 상체가 발달하였고, 두 다리 사이에 흘러내린 옷주름이 과도치듯이 입체적으로 처리됨. 특히 영철은 수연의 불상 양식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입체적인 얼굴과 옷 주름을 잘 표현함. 영철·운혜: 조각의 입체성과 실제성이 더욱 발달, 운혜는 넓적한 얼굴 안에 이목구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고, 옷 주름도 매우 울동적이고 입체적으로 나타냄. 운혜의 제자인 경림은 영철의 작품 또는 운혜의 초기 작품에 가까

107) 송은석, 앞의 책(2012), p.345.

		위 날렵하고 경쾌한 묘사가 특징인 것으로 확인.
1610년	법령과	전라북도,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17세기 후반에는 혜회와 조능이 계승. 불상의 특징은 귀와 하반신 옷 주름이 특이하게 묘사됨. 이륜은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돌출함, 두 다리 사이의 옷 주름은 매우 깊이 파여 요철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음.
1630년~1660년	무염과	전라도 일대에서 많이 활동, 무염, 혜심, 도우를 중심으로 활동 불상의 특징은 팽팽한 양감이 강조된 얼굴과 신체, 그리고 양각과 음각을 함께 사용하여 입체감을 잘 표현한 옷 주름 등이 특징.

※ 출처: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2012, pp.347~348.(연구자 재정리)

1610년대 초기 현진(玄眞, 구체적인 생애의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¹⁰⁸⁾이 만든 불상들은 마른 체형에 길쭉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16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육중한 몸에 사각형 얼굴을 가진 전형적인 현진파 양식의 불상들로 바뀌어 163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현진을 이은 주장인 청헌(淸憲, 생몰년은 알려지지 않음)¹⁰⁹⁾이 조성한 불상은 엄숙한 표정의 얼굴과 건장한 신체를 갖고 있었으며, 시무외인(施無畏印)의 손을 발 위에 닿을 정도로 낮게 두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법은 승일과 희장 등 17세기 후반 현진, 청헌파 조각승들에게 계승되었다. 승일은 ‘y’ 모양의 양각선으로 입체를 나타낸 귀와 좌우 대칭의 곡선들로 이루어진 하반신의 옷 주름이 특징이었다. 불상의 측면을 매우 두텁게 조각하여 입체감을 강조하였고, 오른쪽 어깨와 두 다리 사이에는 끝이 뾰족한 독특한 옷 주름으로 자신만의 특징을 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원(應元)과 인균(印均, 출생일·사망일 미상)¹¹⁰⁾파는 전라남도 동부 지역을 근거지로 1610~1670년대까지 활동하면서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품은 시기적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양감(量感)이 발달한 얼굴과 부드러운 손과 파도치듯 유려하게 묘사된 옷 주름을 특징적으로 갖고 있다.

17세기 전반에는 수연(守衍)과 영철(靈哲)¹¹¹⁾이 수조각승(秀彫刻僧)으로, 17

108) 조각승 현진: 조각승 수연 스님과 쌍벽을 이룬 거장, 『현대불교신문』(최선일), 2016.08.30. 구글, <https://www.google.com>, 검색일: 2021.03.11.

109) 청헌: 조선후기 쌍계사 대웅전 목조삼방불좌상, 송광사 대웅전 소조삼방불좌상 등의 불상을 제작한 승려, 수조각승, 구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www.google.com>, 검색일: 2021.03.11.

110) 응원과 인균: 조선후기 김제 귀신사 나한전 석가여래삼조상, 여수 흥국사 무사전, 지장보살 삼존상 등을 제작한 승려·조각승, 승병장. 구글, 인균-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www.google.com>, 검색일: 2021.03.11.

세기 후반에는 운혜(雲惠)와 경림(敬琳)이 수조각승으로 활동하였다. 수연파에서 조성한 불상의 특징은 얼굴이 사각형이며, 상체가 발달하였고, 두 다리 사이에 흘러내린 옷 주름이 파도치듯이 입체적으로 처리된 특징이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상들은 복장 발원문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여 16~18세기에 조성된 불상들로 확인되고 있다. 서산사 목조보살좌상(1534),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61), 삼광사 목조보살좌상(1671),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98),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1700), 정방사 석조여래좌상(1702), 영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1692)은 복장물에서 조성연대가 정확하게 발견되어 조선후기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월정사 이조여래좌상, 월정사 목조보살입상, 월영사 목조여래좌상, 보덕사 목조여래좌상,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은 복장물이 모두 도난당하여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불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조성연대를 조선후기로 추정함으로써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 유존되고 있는 조선시대의 석조불상으로는 동자복과 서자복으로 불리는 2구의 조각상이 있다. 2구의 조각상은 사찰에서 순수한 예불의 대상으로 조성되었지만,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독특하게 조각되었다. 또한 두 조각상은 미륵불로서 신앙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마을의 수호신상(守護神像)이자 복(福)을 가져다주는 민불적(民佛的) 성격의 조각상으로도 인식되었다. 그래서 복신미륵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러한 측면은 제주지역의 불교가 재래의 민간신앙적인 요소 등을 원만하게 수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의 불교문화는 순수한 불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주지역만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육지보다 제주도 재래의 민간신앙과 잘 습합된 양상을 보인다.

한국불교는 진리와 깨달음을 얻어 성불(成佛)하고자 하는 불교 본래의 목적과 함께, 재래의 다양한 민간신앙을 흡수하여 불교화(佛敎化)시킨 측면이 많아서 통불교(通佛敎)라고 칭해진다. 그래서 한국불교는 민간적인 요소가 강한 피사(辟邪) 기복(祈福) 신앙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현

111) 수연파 영철: 스승과 함께 明匠 반열에 올랐던 조각승, 『현대불교신문』(최선일), 2016.09.09. 구글, <https://www.google.com>, 검색일: 2021.03.11.

재 동자복과 서자복으로 불리는 복신미륵은 한국불교의 특성인 통불교의 양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¹²⁾

2. 문화재 보존방안 및 교육자료 활용방안

가. 문화재 보존방안 모색

문화유산은 우리 선조의 정신과 삶의 집합적 창조물로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지방적 수준에서 지역개발,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전반적으로 낮은 국민적 이해정도 및 이에 기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 및 위약한 행정력으로 인하여 문화유산의 소실과 훼손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에 관여하는 조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직 중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의존 관리에 대한 정책, 기획업무를 총괄한다.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관내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는 문화재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관광과 등을 두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있다.¹¹³⁾

연구자는 제주도 불교 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인 석탑, 사리탑, 불상들의 보존상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찰 경내에 세워져 있는 불탑사 오층석탑과 존자암 세존사리탑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사찰에서 잘 보존·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불상의 경우에는 관리가 사찰별로 되고 있어 관리가 잘된 곳도 있지만,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특히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상이 오래되면 부처님의 법의가 벗겨져서 다시 개금불사¹¹⁴⁾

112) 엄기표 외 7인(2020), 위의 책, pp.268-270.

113) 김명주, 「문화유산 안동하회마을의 가치보존방안-일본 시라카와마을(白川村)과 비교-」,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p.16-18.

114) 개금불사: 『불교포커스』, 2014.02.14. 구글: <https://www.google.com>, 검색일: 2021.03.27.

를 하게 되어 원형의 불상의 모습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불상 가운데 대웅전 전각에 잘 봉안되어 예배의 대상으로 여법하게 보존하고 언제든지 참배가 가능한 사찰은 보림사, 서산사, 용문사, 월정사, 월영사, 삼광사, 보덕사였고, 아직 전각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지실에 봉안된 사찰은 관음사, 정방사, 월계사, 영조사, 원명선원 등이었다.

이 밖에도 제주도에 오래된 고찰에는 아직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불상과 탱화 등 불교 관련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찰 주지스님 말씀에 의하면, ‘만약 문화재로 등록되면 관리와 도난 방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번잡한 문제 때문에 문화재 등록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루속히 문화재 보존 전각들이 건립되어 문화재가 오랫동안 보존할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불상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법의의 금분이 벗겨져서 개금불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용문사 불상이다. 불상의 금분이 많이 벗겨져서 개금을 원하고 있으나, 문화재 지정과 원형 보존의 문제로 아직 개금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의 보존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끊임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문화유산의 교육 활용 방법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 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이바지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¹¹⁵⁾ 이처럼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도 문화재 보존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지역 문화유산은 그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해 왔던 우리 조상들의 사고, 관념, 습관 등을 알 수 있는 물질적인 중요한 자산이다.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일뿐 아니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1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문화재청홈페이지, <https://www.law.go.kr>, <신설 2019.11.26.>, 검색일: 2021.02.19.

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이 자료를 살아있는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에 문화유산 교육 강화

2015 교육과정 개정은 인간상을 근본으로,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과 그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문화’ 영역이다.

문화는 학습자의 실제적 삶의 배경이자 전경(典經)이며, 문화적 생산물과 문화적 지식을 넘어, 문화 작용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는 이제 더는 지식의 소유 개념이 아니라 ‘접촉, 적응, 활용, 유연한 창조, 전이’라는 개념과 관련되며,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학습자의 문화 다양성 이해 능력, 문화적 반응 능력, 상호 문화적 정체성 등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하다.¹¹⁶⁾

그러므로 학생들은 문화유산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찾아 문화유산을 통해 문화유산 속에 담긴 조상들의 예술정신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좋은 실물 학습자료로서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관찰을 통한 탐구학습을 하기에 쉬우며 학생들에게 그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는 지역 사회에 있는 문화유산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껴 체험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미적·역사적인 특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화유산의 견학·관찰·조사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은 그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문화 유적, 풍속, 전통, 산업, 교통, 생활 모습 등을 견학 혹은 관찰·조사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조사한 것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116) 이은지, 「초등 미술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유산교육의 내용 연구」, 경인교육대학교교육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20, p.26.

지역 문화의 특징을 발견하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여 나아가 향토애를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존재하고,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문화유산을 학습자료로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가 유발되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범교과적으로 지역 역사교육 자료를 편성하여 교실 안과 교실 밖 수업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2) 지역 역사교육 및 역사문화 콘텐츠로 활용

국제화 시대를 맞아 우리 삶의 공간은 점차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간의 교류가 증가하고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국가별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화하고, 세계화에 따라 국가별 경쟁이 치열하여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¹¹⁷⁾

지방 역사교육은 지방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풍습을 찾아내고 이를 계승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¹¹⁸⁾ 지역 문화유산은 역사성을 지니면서 당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용품이나 도구였다는 점에서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지역 문화재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목적은 문화재에 담긴 조상들의 조형미를 느끼고 지역 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기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미술교육을 할 때는 문화유산의 미적 가치와 요소, 문화재와 관련되는 역사적 지식의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¹¹⁹⁾

또한 역사문화 체험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잘 구축된 역사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탈피해 이제 학교 현장의 문화유산 교육은

117) 전수진, 「지역문화재 기반 역사문화콘텐츠 구축 및 역사교육 활용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7, p.70.

118) 송재민, 「지방사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p.58.

119) 전금순, 「울산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초등 미술과 지역화 교수·학습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15-18.

체험과 활동 중심의 살아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 동아리, 방과 후 활동 등 모든 문화유산 교육이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 체험 중심의 수업은 지역 문화유산을 이용한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다. 최근 각 지역은 지역의 특성이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반영하여 역사문화 콘텐츠를 구축하려는데 힘쓰고 있다.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은 역사적 사실의 이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역사에 관한 관심과 애착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교실에서 이론상 배웠던 역사에 대한 유물이나 유적을 실질적으로 접하고 경험하면서 학습자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 능력과 분석적 사고력을 기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구체적인 문화 인식을 기를 수 있다. 120)

3) 문화관광 자원으로 문화 인식 재고

오늘날 관광은 단순한 향락이나 유람이 아니라 관광지의 역사와 풍습을 체험하는 문화체험의 장으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세계적인 관광지는 역사적 유적을 배경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때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부족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나 설화를 발굴하여 자원에 이입시켜 스토리텔링으로 자원의 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 관광 선진국들은 관광지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여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있다. 문화관광의 활성화는 국가 브랜드 제고로 이어지고 이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직결된다. 제주도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이 많으나 이를 개발하지 않아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지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가꾸려는 의식이 있었다면 아름다운 경관들이 역사적 의미와 함께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¹²¹⁾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 사찰문화해설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보급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120) 전수진, 위의 논문(2017), pp.71-72.

121) 송재민, 앞의 논문(2007), pp.58-59.

4) 현장 체험학습과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현장 체험학습이란 교실을 벗어나 실제의 상황에서 실물을 접하고 참여하고 느끼고 조작해 봄으로써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학습활동이다. 여기에서 체험이란 국어사전에서는 ‘자신이 몸소 경험함,’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행동에 참여하여 얻어진 결과로서 기술, 지식, 실천 등으로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의식적인 사실과 경험대상으로서 객체적인 사물’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체험학습이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으로 얻어지는 학습으로 교실에서 행해지는 학습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활동은 행동뿐만 아니라 지적·정서적 활동까지도 포함되며, 체험학습은 전인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현장 체험학습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청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문화유산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기를 수 있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킴으로써 밝고 건강한 품성을 가지게 한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에 의한 학습 과정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바른 인성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넷째, 체험학습 시간마다 보고서 작성을 통해 보고 듣고 발견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의 결과를 내면화하는 살아 있는 공부가 된다. 다섯째, 듣는 수업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직접 체험하는 공부를 하는 동안 창의력이 향상된다. 여섯째,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옛것을 바라보게 하여 문화의 발전이 민족의 발전임을 알게 하며, 건전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학생으로 길러낼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일곱째, 학습효과를 위한 모든 자료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보급하여 교사들이 직접 자료를 출력시켜 활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자료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¹²²⁾

또한 문화유산 보존과 교육을 위한 사찰 문화재 지킴이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 유산을 알고 찾고 지키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소중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방재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관리 인력이 상주하기 어

122) 고범석·염미경, 「제주유배문화유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하여」, 교육과학연구 7(1), 2005, pp.63-64.

려운 환경에 있는 문화재의 주변을 쓸고, 닦고, 가꾸는 문화재 청소와 기본적인 관리 및 보호 활동인 환경정화 활동은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이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분야와 문화재 관람 여건 및 관람 문화 분야 등을 모니터링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또한 문화재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나누며, 개인적 지식과 사회적 지식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교육 및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문화 소외계층과 문화를 나누는 문화 체험 나눔 활동으로 문화재를 보존과 동시에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불교문화유산 알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불교문화유산은 사찰에 가면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다. 불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찰이나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불교문화유산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본적인 불교문화유산을 알아두면 불교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 문화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불교문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불교문화 전반에 대한 용어, 문화재와 역할 등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큰 사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사찰문화해설사를 상주시켜 방문객들에게 설명하고 체험케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법당에 걸린 현판 즉 전각의 명칭, 법당의 존상과 탕화, 부처님의 수인, 불상의 명호와 역할, 석탑과 부도탑 비교 등이 이해될 때 불교문화유산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각 순례, 탑돌이 체험 등 문화유산 알기와 체험으로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섭렵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활용방안을 찾아 불교문화 유산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갈 때 지역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아직도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하여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교문화를 발전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 축제 활용방안도 강구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불교는 법회, 기도, 제례 등 불교 행사가

의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대하기 어려운 기도문과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더 이해하기 편하고 적극적인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불교문화 유산에 대한 가치 재고와 인식이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템플스테이(Temple stay)는 한국의 전통사찰에서 머물며 한국불교의 전통문화, 수행정진, 사찰 내·외 문화적 자원과 자연환경 및 사찰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템플스테이는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과 문화를 사찰에서 머물며 직접 체험해보는 매우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사람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새벽예불, 참선 수행, 발우공양, 다도 등 기본적인 수행 생활을 체험하고 불교 전통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 또한 사찰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1,7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이 깃들여 있고 상당수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곳이다. 거기에다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과 자연 친화적인 한국 전통의 의식주 생활문화가 오롯이 남아있는 곳이어서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긴장된 삶을 살아가며 정신적 불안감과 그에 따르는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이러한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의 안정과 정신적 치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활력과 충전을 주는 복합적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 활동도 가능하다. 이는 전통문화체험에 대한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참선 같은 정신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나가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욕구 충족으로 이어져 일상적인 생활문화 운동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는 자아증진과 휴식 등 개인적 측면과 모든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측면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하고 우리나라의 관광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국가적 차원과 불교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적 측면에서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¹²³⁾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지금까지 제주도 불교문화유산 중 석탑과 불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의 분포 현황과 문화재로 등록된 석탑과 불상의 보존상태를 파악하고 교육자료 및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석탑과 불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 지역은 10개소이고 서귀포시 지역은 4개소이다.

국가지정 보물인 석탑을 보유하고 있는 불탑사를 위시하여, 유형문화재 불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로는 관음사, 보림사, 월계사, 삼광사, 용문사 등이 있다.

유형문화재보다 한 단계 낮은 종류로 분류되는 문화재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로는 월정사, 월영사, 보덕사, 원명선원 등이 있다. 또한 민속문화재 제1호로 등록된 석불로 복신미륵(동자복·서자복)이 제주시 동쪽 건입동과 서쪽 용담동에서 서로 마주 보며 제주 시내를 수호하고 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의 존자암은 유형문화재인 세존사리탑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형문화재 불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서산사, 정방사, 영조사 등 서귀포 지역 사찰은 모두 4개소이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유산 중 석탑과 불상을 분류하면, 국가지정 보물이 1건, 유형문화재 9건, 문화재자료 5건, 민속문화재 2건이 등록되어 있다. 보물로는 불탑사 오층석탑이며, 유형문화재는 존자암 세존사리탑과 불상 3건, 보살상 4건, 불감 1건이다. 그리고 문화재자료로는 불상 4건, 보살상 1건이며, 민속문화재는 2건이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또한 재료별로 불상의 종류를 분류하면, 목조불상은 4건으로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월영사 목조여래좌상, 보덕사 목조여래좌상이 있으며, 석조불상은 4건으로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미륵불로 동자복, 서자복이 있다. 특히 월정사 이조여래좌상(泥造如來坐像)은 진흙으로 빚어진 불상으로 제주에서는 보기 드문 불상이다. 그리고 특별한 불상으로 영조사 목조 아미타여래삼존불감이 있다. 또한 목조보살상은 5건으로 관음사

123)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표준(실천)운영매뉴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5. pp.12-16.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월정사 목조보살입상 등이 있다.

현재 위 문화유산들의 봉안 장소를 살펴보면,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석탑은 불탑사 오층석탑, 존자암 세존사리탑, 복신미륵인 동자복과 서자복 등이 있으며, 대웅전에 불상을 봉안한 사찰은 보림사, 삼광사, 서산사, 용문사, 월정사, 보덕사, 월영사이며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불상을 모실 전각을 마련하지 못하여 주지실에 봉안되어 공개가 안 되는 사찰은 관음사, 정방사, 월계사, 영조사, 원명선원 등이었다.

문화유산은 그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 생활해 왔던 우리 조상들의 사고, 관념, 습관 등을 알 수 있는 자산들이다. 문화유산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살아있는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의미를 창출하여 가치를 높여야 한다. 내가 사는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을 학습자료로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가 유발되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기를 수 있도록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범교과적으로 수업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은 역사적 사실의 이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역사에 관한 관심과 애郷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물이나 유적을 실질적으로 접하고 경험하면서 학습자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 능력과 분석적 사고력을 기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구체적인 문화 인식을 기를 수 있다. 제주도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이 많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보급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국의 불교 문화유산은, 1,7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이 깃들여 있고 상당수의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들로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불교 문화유산과 자연 친화적인 교육활용방안을 찾아 연결하여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갈 때 지역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오랫동안 흡수된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휴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재고와 인식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2. 제언

이상의 결론으로부터 추후 보존과 활용 및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에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에 소장된 석탑과 불상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기존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쓰며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에 있는 문화유산은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는 아직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불상, 탕화 등이 사찰에 소장되어 있다. 복잡한 문화재 등록에 관한 이해와 자료 부족 등으로 훌륭한 문화재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추후 문화재 등록과 아울러 문화재의 가치가 재평가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문화유산은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에도 그 교육적 의의를 간과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도 필요하며 그들 간의 프로젝트 혹은 컨소시엄 등을 통해 더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문화유산이 멸실 혹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방안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소장자료에 대한 관리운영과 매뉴얼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비교 연구도 함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문화유산을 장기적으로 보존 및 교육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전용 전각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문가의 해설과 안내도 필요하다. 넷째, 단위 사찰에 소장된 문화재에 대한 단편적 교육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향후 통합적 관리로 일원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불교문화재 소장 전용 박물관 건립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육은 문화재 소유 현장을 공유한 현장성과 학교 교과 연계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진행되어야 한다. 문화유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은 그 주제나 시대에 맞게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여러 기관이 지향하고 있는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분명하며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參考文獻)

1. 고문헌 및 원전 자료

『고려사』, 정종(1034~1046) 즉위년 11월, 구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21.01.14.

『고려사』, 충혜왕(1330~1332,1339~1344), 4년 4월, 충목왕(1344~1348), 4년 12월, 구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21.01.04.

『고려사』, 태조 26년(943년) 4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구글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21.01.18.

『조선왕조실록』, 태종 8년(1408년), 2월, 구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검색일: 2021.01.14.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1427년), 6월, 구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21.01.18.

김상헌, 남사록(南槎錄) 권3, 1601년 10월 14일.

도선(道詵)의 비보사탑설(裨補寺塔設), 구글, <https://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1.02.06.

밀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처: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1.01.14.

병와집: 『디지털영천문화대전』, <http://yeongcheon.grandculture.net/yeongcheon>, 검색일: 2021.02.04.

『신증동국여지승람』, 구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1.01.04.

원(元)나라 순제,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1.02.03.

『조선총독부 관보』, ‘포교소 설치 신고’, 제5430호(142권, 482면), 1945.03.14.

제주교무원 『연혁철』(1951,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소장)

홍유손(洪裕孫, 1431년~1529년), 구글, <https://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검색일: 2021.01.14.

팔관회, 구글, <https://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검색일: 2021.01.14.

2. 단행본 및 편·역서

박경식, 『한국의 석탑』, 서울: 학연문화사, 2008.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21,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2006.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서울: 사회평론, 2012.

염기표 외 7인, 『제주지역 불교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 조선시대 제주사회와 타자인식』, 탐라문화 연구원, 2020.

오성 스님,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법계』,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제주불교100년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 20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 불교문화재 자료집』, 2008.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한금순, 『제주불교사』, 탐라정보문화원, 2018.

한금순, 「제주도 존자암 고(考)」, 『대각사상 제16집』, 2011,

한금실, 「1940년대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 『역사민속학(24)』, 2007.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표준(실천) 운영 매뉴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발행, 2015.

3. 논문류

고범석·염미경, 「제주유배문화유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하여」, 『교육과학연구 7(1)』, 2005.

- 김경영, 「원불교 근대 문화유산의 공간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명주, 「문화유산 안동하회마을의 가치 보존방안-일본 사라카와마을(白川村)과 비교-」,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창화, 「조선시대 제주도 불상연구-기년명 불상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배연이,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 고찰」, 경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송재민, 「지방사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엄기표, 「제주지역 불교 석조미술의 특징과 의의」, 『제주탐라문화 54호』, 2017.
- 이은지, 「초등 미술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유산교육의 내용 연구」, 경인교육대학 교육전문대학원 석사논문,
- 전금순, 「울산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초등 미술과 지역화 교수·학습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전수진, 「지역문화재 기반 역사문화콘텐츠 구축 및 역사교육 활용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7,
-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한금순, 「‘제주한라산신제단법당’과 제주불교」, 『대각사상 제29집』, 2018.

4. 기타 자료

- 제주도청홈페이지 <https://www.jeju.go.kr/culture/culturalAssets>, 검색일: 2021.01.05.
- 산치대탐: 불교의 우주관·세계관 표현한 ‘산치대탐’ 현대불교신문(우인보), 2014.02.23. 구글: <https://www.google.com>, 검색일:2021.03.27.
- 조각승 현진: 조각승 수연 스님과 쌍벽을 이룬 거장, 현대불교신문(최선일), 2016.08.30. 구글, <https://www.google.com>, 검색일: 2021.03.11.

청헌: 구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www.google.com>, 검색일: 2021.03.11.

응원과 인균: 구글, 인균-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www.google.com>, 검색일: 2021.03.11.

수연과 영철: 스승과 함께 明匠 반열에 올랐던 조각승, 현대불교신문(최선일), 2016.09.09. 구글, <https://www.google.com>, 검색일: 2021.03.11.

개금불사: 『불교포커스』, 2014.02.14. 구글:<https://www.google.com>, 검색일: 2021.03.27.

문화재청홈페이지, ‘세계유산’ <http://www.heritage.go.kr>, 검색일: 2021.02.19.

문화재청홈페이지, ‘문화재보호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1.02.19.

보림사 주지 지원 스님 인터뷰, 2021.01.17.

영조사 주지 관일 스님 인터뷰 및 자료제공, 2021.01.12.

월계사 주지 진공 스님 인터뷰 및 자료제공, 2021.01.22.

삼광사 주지 현명 스님 자료제공, 2021.04.06.

용문사 후원 공덕비 참고.

용문사 주지 각림 스님, 인터뷰, 2020.10.11.

월정사 문화재 안내판 참고.

【Abstract】

Distribution status and heritage value of temples with cultural heritage in Jeju Island

Geum-rim Kang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Advisor Seung-hee Jang

Cultural assets are the heritages that contain the high value of history, art, academy and scenery. And they are also material data that allow us to get knowledge of ancestors' thoughts, ideas and habit.

Outsides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s it is needed to elicit the information and create its own meanings in order to be using them as living mater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heritages that distributed in Buddhist temples in Jeju and find a sustainable conservation plan by examining them.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o utilize heritages for educational usages as well as identify the value of them. For this study, analysis of previous literature studies, data collection from visiting related institutes and the sites of cultural assets have been implemented. The survey was conducted over 3 times from October 2020 to February 2021.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the cultural assets, the distributing condition of the temples which holding stone pagodas and Buddha statues. There are 14 temples which are owning and managing stone pagodas and Buddha statues as cultural assets. 1 stone pagoda, 1 stupa, and 15 Buddha statues are classified by type. As to designation of

cultural assets, 1 national treasure, 9 designated tangible cultural assets, 5 cultural assets, and 2 folk cultural assets are included. 9 wooden statues, 2 stone statues, 1 double statue, 1 wooden Buddhist image, and 2 Maitreya statues are classified by materials. Cultural heritages are important asset that allows us to know the thoughts, ideas, and habits of our ancestors who lived in the area. The students' interest and motivation should be enhanced as well as arouse the pride and affection for the region in where they live by using the cultural heritages as materials for study.

In addition, the use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doesn't only promote understanding but arouse interest and attachment to the history.

There are many places with excellent natural scener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in Jeju. Policy considerations are also needed so that it is available to develop to be a world-class tourist destination by disseminating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along with the natural scenery.

Five suggestions are to be made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value of stone pagodas and Buddha statues stored in temples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in Jeju-do and summarized based on previously published materials. There are Buddhist statues and tank paintings, which are not yet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still be kept in the temples in Jeju-do. I anticipate that they should be reevaluated their value along with the registration as cultural assets. Second, although its value of educational significance they have been overlooked and neglected. More specified study and research are needed together. In particular, Various comparative studies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ollection materials, manuals, and usage methods conducted together are expected. Third, in order to

preserve and increase the educational usage of the cultural heritages, specific measures for the construction of a pavilion dedicated to cultural heritage should be prepared.

Fourth, a fragmentary educational utilization plan for cultural assets held in unit temples was present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follow-up studies will be conducted on the establishment of a museum dedicated to the collection of Buddhist cultural assets in order to unify them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and to establish an efficient and systematic joint system. Lastly, future education should be prepared and conducted in a direction that can pursue the connection between the field and the school curriculum with the shared field of cultural property. It is expected that clear and meaningful research will be conducted so that various institutions can realize the public nature that they are aiming for.

Key words: Cultural heritage, Cultural assets, Heritage value, Buddhist cultural assets, Temples in Jeju Island, Distribution status.

부록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사찰현황 목록

(2020. 10. 자료제공: 제주불교신문)

1. 제주시 조계종 사찰현황¹²⁴⁾

번호	종 단	사찰명	소재지	전화	주 지
*1	조계종	관음사	제주시 산록북로 660(아라일동)	724-6830	허 운
2	조계종	관음정사	제주시 서연길 10(연동)	746-1083	정 선
3	조계종	국청사	제주시 거로남6길 48(화북이동)	755-3131	제 문
4	조계종	남국사	제주시 중앙로 738-16(아라일동)	702-0422	적 조
*5	조계종	도남보덕사	제주시 독짓골8길 26(도남동)	753-2183	혜 전
6	조계종	화북보덕사	제주시 진남로 28(화북일동)	756-3604	재 효
7	조계종	보문사	제주시 사평4길 31-7(오라이동)	746-4488	휴 마
8	조계종	보현사	제주시 신성로 50(도남동)	724-6835	자 경
*9	조계종	불탑사	제주시 원당로16길 41(삼양일동)	755-9283	희 정
10	조계종	천룡사	제주시 도남로8길 17(도남동)	721-3191	동 제
11	조계종	오등선원	제주시 오등14길 14(오등동)	744-0808	제 용
12	조계종	용화정사	제주시 인다7길 18(아라일동)	702-6294	무 용
*13	조계종	원명선원	제주시 원두길 34(화북일동)	755-3322	대 효
*14	조계종	월정사	제주시 아연로 216-5(오라이동)	742-7755	지 문
15	조계종	자비정사	제주시 월평7길 81(월평동)	721-4446	허혜연
16	조계종	제석사	제주시 신성로10길 23(이도이동)	725-2123	능 후
*17	조계종	삼광사	제주시 아봉로279-7(월평동)	702-4800	현 명
18	조계종	죽림정사	제주시 능산길 53(영평동)	702-1345	미공개
19	조계종	천왕사	제주시 1100로2528-111(노형동)	748-8811	지 오
20	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시 황사평6길 176-1(영평동)	727-3100	혜 묘
21	조계종	해운사	제주시 연무정동2길 11(건입동)	757-1977	탄 우
22	조계종	연화사	제주시 황사평6길 160-13(영평동)	727-9719	혜 진
23	조계종	광제사	제주시 제시리길 15-6(외도일동)	743-2330	법 우
24	조계종	해봉사	제주시 삼동길 34(연동)	747-3445	미공개
25	조계종	보광사	제주시 구산로22-3(아라1동)	756-5395	향 봉
26	조계종	혜조암	제주시 정실2길 16-4(오라이동)	746-9696	지 호
27	조계종	천진암	제주시 연사길110-11(오라이동)	742-5627	효 원
28	조계종	선림사	제주시 은수길87-16(연동)	748-3000	진 학

124) ‘*’ 는 이하 ‘석탑, 불상’ 문화재 보유 사찰임.

29	조계종	대각사	제주시 중앙로11길 1, 4층(이도일동)	702-1744	성 명
30	조계종	원법사	제주시 오등12길 24(오등동)	712-9770	자 흥
31	조계종	법륜사	제주시 연북로 612-7(아라이동)	미공개	일 만
32	조계종	천은사	제주시 첨단로 26(영평동)	702-0300	진 아
33	조계종	묘각사	제주시 주르레길 64-43(해안동)	749-1166	원 경
34	조계종	보리왓	제주시 과원로 84, 4층(연동)	746-0108	성 원
35	조계종	고관사	제주시 조천읍 조천6길 11	783-6024	관 우
36	조계종	평화통일 불사리탑사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884	783-8801	성 목
37	조계종	양진사선원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32	783-6063	미공개
38	조계종	정토사	제주시 조천읍 함덕19길 15	783-8160	대 광
39	조계종	동법사	제주시 구좌읍 한동로1길 14	783-2532	정 목
40	조계종	백련사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45	783-4246	우 경
41	조계종	연봉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 11	783-4132	상 오
42	조계종	월성사	제주시 환경면 용고로 63	773-0054	상 덕
43	조계종	한산사	제주시 한림읍 한성길 15	796-2801	금 강
44	조계종	대각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4길 41	748-2900	미공개
45	조계종	월인사	제주시 애월읍 납읍남로3길 3-3	799-3408	중 선
46	조계종	금룡사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48-11	783-5180	여 일
47	조계종	용주사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102-3	742-1668	미공개
48	조계종	우리절	제주시 애월읍 광령자중동길 62	746-4233	인 성
49	조계종	법장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남7길 8	748-5180	호 정
50	조계종	서연암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457-58	미공개	각 문
51	조계종	보문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중길 62	748-2003	일 현
52	조계종	대원사	제주시 조천읍 종인내길 15-24	미공개	미공개
53	조계종	해능사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566-5	746-0567	도 관
54	조계종	보문사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805	미공개	철 우
55	조계종	무주선원	제주시 애월읍 고성2길 64	미공개	본 연
56	조계종	월명사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805	미공개	고 성
57	조계종	수덕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73	미공개	도 명
58	조계종	금강사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39	미공개	미공개
59	조계종	수덕사	제주시 환경면 고산남4길 18-3	미공개	미공개

2. 서귀포시 조계종 사찰현황

번호	종 단	사찰명	소재지	전화	주 지
1	조계종	남국선원	서귀포시 돈내코로 296-127(상효동)	733-2278	성 목
2	조계종	법륜사	서귀포시 정방연로 38(도평동)	732-5757	상 법
3	조계종	법화사	서귀포시 하원북로35번길 15-28(하원동)	738-5225	도 성
4	조계종	봉림사	서귀포시 태평로205번길 87(호근동)	739-5968	일 경
5	조계종	선덕사	서귀포시 516로771번길 64(상효동)	732-7677	학 균
6	조계종	신광사	서귀포시 중문로81번길 43(중문동)	738-0952	안묘진
7	조계종	월라사	서귀포시 효문순환로 415(신효동)	767-0269	정 수
8	조계종	천제사	서귀포시 중문상로17번길 62(중문동)	738-4884	연 담
9	조계종	탐라선원	서귀포시 솜반천로 10(서홍동)	732-8165	견 휴
10	조계종	약천사	서귀포시 이어도로 293-28(대포동)	738-5000	덕 조
*11	조계종	존자암	서귀포시 영실로 203(하원동)	749-1414	법 정
12	조계종	법성사	서귀포시 돈내코로70번길 64(상효동)	732-9903	천 경
13	조계종	자성원	서귀포시 성산읍 풍천로273번길 96-67	782-0446	법 연
14	조계종	봉원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29	782-2564	대 영
15	조계종	관통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52	787-0209	석 연
16	조계종	불광사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망장포로 27-38	767-2580	지 범
*17	조계종	서산사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36번길 24-11	794-3598	선 명
18	조계종	연화사 (표선)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96번길 15-13	787-2175	세 광
19	조계종	기원정사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로 87	792-8518	혜 덕

3. 제주시 태고종 사찰현황

번호	종 단	사찰명	소재지	전화	주 지
1	태고종	성심사	제주시 정든로6길 18(이도이동)	757-2496	성 원
2	태고종	광명사	제주시 동고산로 12-4(이도이동)	722-0019	일 향
3	태고종	덕성사	제주시 금천길 15-10(아라이동)	702-0757	수 연
4	태고종	충훈각	제주시 1100로 2576-10(노형동)	745-0724	현 명
*5	태고종	보림사	제주시 사라봉동길 61(건입동)	722-4767	지 원
6	태고종	사라사	제주시 사라봉동길 107(건입동)	757-2895	진 경
7	태고종	홍룡사	제주시 장군내길 60-20(도평동)	747-8837	지 화
8	태고종	덕흥사	제주시 보배길 81(오등동)	702-4535	상 허
9	태고종	화천사	제주시 생목수원로 184(회천동)	721-2755	수 삼
10	태고종	법음사	제주시 인다1길 46(아라일동)	702-1347	정 안

11	태고종	성광사	제주시 흥운길 55(용담이동)	742-1631	수 운
12	태고종	원당사	제주시 원당로16길 38(삼양일동)	755-9905	성 심
13	태고종	통영사	제주시 침단동길 112-11(월평동)	702-8559	고행구
14	태고종	용화사	제주시 동한두기길 3-6(용담일동)	757-2203	성 흥
15	태고종	수덕사	제주시 도남로 109(도남동)	722-5792	법 성
16	태고종	보현사	제주시 신대로5길 46(연동)	746-2360	성 철
17	태고종	장안사	제주시 서해안로 195(도두일동)	742-2756	법 담
18	태고종	연화사	제주시 연북로 254(오라이동)	746-3035	대 성
19	태고종	내원사	제주시 논세2길 25(내도동)	743-0910	능 혜
20	태고종	정광사	제주시 해안마을길 188(해안동)	747-0620	대 권
21	태고종	백우정사	제주시 능선길 10-2(아라이동)	702-2008	수 안
22	태고종	춘강정사	제주시 516로 120(북)춘강 內	미공개	수 상
23	태고종	사천왕사	제주시 서광로28길 14(도남동)	미공개	진 오
24	태고종	화엄사	제주시 영평서길 77(영평동)	702-0158	성 욱
25	태고종	건운정사	제주시 월평4길 54-40(월평동)	702-6141	성 현
26	태고종	수덕정사	제주시 도남로 109(도남동)	723-4748	정 인
27	태고종	석굴암	제주시 1100로 2528-171(노형동)	748-5335	호 철
28	태고종	금봉사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618-1	783-3202	수 암
29	태고종	청강사	제주시 구좌읍 종달논길 84	783-3241	청 운
30	태고종	해운사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548	796-4948	탄 해
31	태고종	황룡사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66-6	796-6104	벽 해
32	태고종	금성용문사	제주시 애월읍 금성5길 44-7	799-6680	강 월
33	태고종	덕림사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28-1	783-8074	휴 완
34	태고종	본원사	제주시 조천읍 함덕14길 17-6	783-8408	성 건
35	태고종	금정사	제주시 구좌읍 세화남3길 10	782-7120	수 지
36	태고종	법주사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445	783-4396	수 관
37	태고종	송림사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51-1	783-3867	지 행
*38	태고종	하도용문사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531	783-3165	각 립
39	태고종	금강사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98-17	783-0375	수 건
40	태고종	반야사	제주시 애월읍 신엄안2길 17	799-1782	수 상
41	태고종	홍법사	제주시 한경면 낙천3길 19	773-1095	오성선
42	태고종	개법사	제주시 애월읍 어림비로 365	799-4308	자비행
43	태고종	극락사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322	713-1682	휴 진
*44	태고종	월영사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2길 40-16	713-2553	정 우
45	태고종	정혜원	제주시 애월읍 고내북서길 26	799-2456	심 허
46	태고종	향림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4길 10-20	748-4114	능 효

*47	태고종	월계사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39	796-2312	진 공
48	태고종	용수사	제주시 한림읍 옹포5길 2	796-2337	성 학
49	태고종	금천사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 96-18	799-1595	미공개
50	태고종	청용사	제주시 애월읍 애남로 121-25	799-4761	도 광
51	태고종	전승관옥불사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18	799-8108	성 천
52	태고종	법심사	제주시 조천읍 북촌11길 5-2	미공개	미공개
53	태고종	성림사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045	783-2410	성 원
54	태고종	우도금강사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98-17	783-0375	미공개
55	태고종	백제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남6길 54	746-8009	원 오
56	태고종	두평반야사	제주시 한림읍 귀덕남동1길 26	796-3304	승 규
57	태고종	홍운사	제주시 한경면 고산남6길 19	773-2109	지 오

4. 서귀포시 태고종 사찰현황

번호	종 단	사찰명	소재지	전화	주 지
1	태고종	혜광사	서귀포시 법환로 51-4(법환동)	739-7056	지 현
2	태고종	대원사	서귀포시 일주동로 8773-2(서홍동)	762-6694	세 진
3	태고종	구룡사	서귀포시 태평로431번길 5(서귀동)	762-6324	대 현
4	태고종	정방사	서귀포시 동부로12번길 19(서귀동)	762-7489	도 학
5	태고종	공덕사	서귀포시 서흥로 72(서홍동)	732-8930	관 운
6	태고종	영원사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19(토평동)	733-5946	법 성
7	태고종	운천사	서귀포시 당동산로86번길 27(서홍동)	732-8303	법 연
8	태고종	백련사	서귀포시 하효중앙로 20(하효동)	733-2756	법 담
9	태고종	서귀포용문사	서귀포시 이어도로 1028-17(서호동)	739-7765	수 공
10	태고종	원만사	서귀포시 중산간서로446번길 213-76	738-4198	정 법
11	태고종	자광사	서귀포시 말질로161번길 53(강정동)	739-0754	성 윤
12	태고종	수보사	서귀포시 중문동 2274-2	738-2452	미공개
13	태고종	락원사	서귀포시 돈내코로34번길 13-26	732-0335	동 해
14	태고종	황룡사	서귀포시 남성중로 6-13(서홍동)	732-6039	성 문
15	태고종	수정사	서귀포시 일주서로 1287-27(상예동)	738-3568	도 산
16	태고종	법정사	서귀포시 1100로 740-168(도순동)	763-4693	법 의
17	태고종	천운사	서귀포시 일주서로344번길 66(도순동)	721-5831	세 광
18	태고종	일출봉동암사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84-10	782-2329	진 철
19	태고종	심향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하레로 407-5	733-5903	매 계
20	태고종	선광사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510번길 42	764-3098 764-0316	수 열
21	태고종	혜림사	서귀포시 성산읍 독자봉로24번길 13	784-7611	성 혜

22	태고종	복천사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중앙로 70	782-2956	미공개
23	태고종	영천사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5587-90	787-1657	수 철
24	태고종	보타사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망장포로 59-7	767-4080	미공개
25	태고종	서광사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115번길 24-5	764-4126 764-1417	성 근
26	태고종	종남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하례로202번길 190-17	767-2019	미공개
27	태고종	산방사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218-11	794-3087	벽 공
28	태고종	단산사	서귀포시 대정읍 향교로 119	794-8482	성 윤
29	태고종	정각사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36번길 4	794-2620	수 봉
30	태고종	남안사	서귀포시 성산읍 난고로34번길 90-12	782-2946	지 하
31	태고종	영산암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877-31	794-7952	정 룬
32	태고종	화암사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1658	739-1117	혜 명
33	태고종	달성사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76-18	782-6277	혜 연
34	태고종	덕산정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북로41번길 130-42	794-3596	영 봉
35	태고종	위미연화사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275-1	764-0852	법 원
36	태고종	보석사	서귀포시 성산읍 수시로 16-7	782-2925	무 송
37	태고종	대원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67번길 47-2	794-1555	혜 응
38	태고종	용주사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 139	787-4241	정 오

5. 제주시 법화종 사찰현황

번호	종 단	사찰명	소재지	전화	주 지
1	법화종	몽중사	제주시 삼성로15길 17(일도이동)	756-7629	일 광
2	법화종	대각사	제주시 동광로5길 40-8(이도일동)	752-7222	관 중
3	법화종	홍법정사	제주시 남성로3길 7(용담일동)	758-1133	관 효
4	법화종	영천암	제주시 황사평6길 160-9(영평동)	727-7166	묘법장
5	법화종	정혜사	제주시 장수물길 80(화북이동)	722-8008	관 행
6	법화종	성불사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36	773-1148	혜 주
7	법화종	통천사	제주시 한경면 판포4길 10	773-1268	성 우
8	법화종	대원정사	제주시 애월읍 수산곰솔길 56	713-6373	일 조
9	법화종	천안사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1013-23	772-3914	성 각
10	법화종	도림사	제주시 애월읍 어도봉길 123-3	796-4128	관 성
11	법화종	영축사	제주시 한경면 청수서4길 45-42	773-1892	광 수
12	법화종	영각사	제주시 한림읍 하운당길 2	796-7889	현 담
13	법화종	애월광명사	제주시 애월읍 애월원당길 136-11	799-0006	화 산
14	법화종	화운정사	제주시 한림읍 한수폴로 27	796-0900	지 응

6. 서귀포시 법화종 사찰현황

번호	종 단	사찰명	소 재 지	전 화	주 지
1	법화종	혜관정사	서귀포시 서리오름로 10(보목동)	733-3918	관 효
2	법화종	무량정사	서귀포시 태평로 492(동홍동)	738-2841	일 도
3	법화종	영산사	서귀포시 학수암로 159(호근동)	739-3632	미공개
4	법화종	법장사	서귀포시 서문서로5번길 25(서귀동)	762-2207	도 현
5	법화종	보장사	서귀포시 토평로 140(토평동)	732-6306	미공개
6	법화종	법림정사	서귀포시 토평남로30번길 44-23(토평동)	732-9442	관 정
7	법화종	광화사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59번길 30	794-1105	일 도
8	법화종	실상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98번길 14-33	794-7920	법 증
9	법화종	대승사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5번길 24-40	794-2567	법 초

7. 제주시 일불선교종 사찰현황

번호	종 단	사찰명	소 재 지	전 화	주 지
1	일불선교종	도륜정사	제주시 선돌목길 90(오등동)	726-0318	김법산
2	일불선교종	영암사	제주시 포제길 18(영평동)	702-1298	제 법
3	일불선교종	대원정사	제주시 남성로11길 15-8(용담일동)	753-3560	대 원
4	일불선교종	영화사	일불 삼장원	755-7042	법 원
5	일불선교종	일불홍법원	제주시 산천단동2길 8(아라일동)	미공개	대 성
6	일불선교종	영봉암	제주시 사메기길 6-2(외도일동)	미공개	해 동
7	일불선교종	봉암사	제주시 1100로 2576-15(노형동 일봉동산)	미공개	우 답
8	일불선교종	명법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산 19	783-3322	김광순
9	일불선교종	수덕사	제주시 한경면 고산남4길 18-3	772-4447	철 중
10	일불선교종	극락사	제주시 한림읍 동명4길 20	796-2852	미공개
11	일불선교종	봉암사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4-1	796-2267	우 석
12	일불선교종	제주석굴암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1282	796-2174	장공익
13	일불선교종	천수원	제주시 한림읍 명월동길 18	796-3580	정법궁
14	일불선교종	청호사	제주시 한림읍 귀덕11길 52	796-4801	미공개
15	일불선교종	애월보광사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길 63-16	799-1815	향 봉
16	일불선교종	고광사	제주시 애월읍 남읍남로2길 12	799-3447	덕 진
17	일불선교종	선운정사	제주시 애월읍 구물동길 65	799-8588	현 오
18	일불선교종	묘연사	제주시 애월읍 하귀1길 50-4	713-0606	묘 연
19	일불선교종	월림사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454	미공개	영 환

8. 서귀포시 일붕선교종 사찰현황

번호	종 단	사찰명	소재지	전화	주 지
1	일붕선교종	서귀극락사	서귀포시 태평로 328(서귀동)	762-5757	현 오
2	일붕선교종	관음굴사	서귀포시 하신상로 439(상효동)	733-4590	미공개
3	일붕선교종	왕자암	서귀포시 소보리당로85번길 114-20(상예동)	733-6741	오춘이
4	일붕선교종	원광사	서귀포시 보목포로 36(보목동)	732-5021	중 산
5	일붕선교종	경운사	서귀포시 지장샘로182번길 171(동홍동)	762-7816	고승립
*6	일붕선교종	영조사	서귀포시 대정읍 영조사로 16	792-1622	관 일
7	일붕선교종	산방산광명사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218-13	792-1223	법 산
8	일붕선교종	남덕사	서귀포시 안덕면 감천로 222	794-6971	경 철
9	일붕선교종	보현사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12번길 18	794-0511	영 수
10	일붕선교종	대원사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대수로 34	794-0511	영 수

9. 제주시 기타종교현황

번호	종 단	사찰명	소재지	전화	주 지
1	천태종	문강사	제주시 원당로16길 16-30(삼양일동)	755-8355	석 용
2	원효종	해성사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46(해안동)	747-5080	각 운
3	원효종	학림사	제주시 한경면 저지2길 2-6	773-0716	이기준
4	삼화불교	달마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161-26	미공개	미공개
5	법사회	해원정사	제주시 중산간동로 31(봉개동)	721-5571	혜 정
6		구암굴사	제주시 선돌목동길 27-11(아라일동)	미공개	해 조
7		반야선원	제주시 동문로 60(일도이동)	751-2344	미공개
8		구양사	제주시 오라로18길 1-4(오라일동)	758-8289	능 화
9		수보리선원	제주시 별랑4길 26(삼양삼동)	미공개	수 철
10		오라선원	제주시 오라로10길 16-2(오라이동)	746-1884	현 선
11		천덕사	제주시 오등9길 32(오등동)	746-7911	휴 완
12		묘흥사	제주시 용문로12길 13(용담이동)	미공개	미공개
13		덕성사	제주시 금천길 15-10(아라이동)	미공개	미공개
14		선은사	제주시 설촌로4길 23(삼양이동)	미공개	미공개
15		백운정사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711-3380	지 허
16		용수사	제주시 외도동 149	미공개	법 현
17		대원암	제주시 월대5길 23(외도이동)	721-9963	법 산
18	총화종	흥국사	제주시 애월읍 용흥3길 142	799-2260	김태현
19	총화종	효정사	제주시 조천읍 조천16길 32	미공개	미공개

20	재)영산불교	현지사	제주시 조천읍 신복로 300	783-5355	미공개
21		명심정사	제주시 애월읍 답동4길 44	미공개	청 운
22		황용사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66-6	796-6104	미공개
23		성원사	제주시 도련길66	미공개	자 연
24		태산사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035	미공개	지 허
25		미타선원	제주시 애월읍 애상로 207-29	799-2073	해 덕
26		선인사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4774	796-5823	법 일

10. 서귀포시 기타종교현황

번호	종 단	사찰명	소재지	전화	주 지
1	천태종	해운사	서귀포시 마소물로135번길 47(토평동)	762-7336	진 강
2	총화종	용운사(서귀)	서귀포시 염돈로 20-5(강정동)	732-2276	강인문
3	영산법화종	영산법화사	서귀포시 중정로5번길 3(서귀동)	762-2280	도 수
4		선도암	서귀포시 516로771번길 80-27(상효동)	733-4957	철 환
5		한라암	서귀포시 516로361번길 44(상효동)	733-0126	동 해
6		법정사	서귀포시 하원동 1868	738-6435	성 룰
7		천덕사	서귀포시 산록남로2705-2(토평동)	733-8602	미공개
8		용천사	서귀포시 호근북로 307(호근동)	미공개	미공개
9		쌍계암	서귀포시 1100로 740-91(하원동)	738-6789	미공개
10	원효종	대흥사	서귀포시 안덕면 한밭로 160-8	794-9767	원 해
11	아미타종	법련사	서귀포시 남원읍 남태해안로 319	794-7557	미공개
12		보문사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218-10	794-6861	법 성
13		정각사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하동로69번길 34-10	782-4365	미공개
14		육각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813-1	787-7604	해 범
15		용궁사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송당로 83	792-4966	석 천
16		흥덕사	서귀포시 성산읍 신난로149	782-4169	남 전
17		남선사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456-18	764-3005	도 정
18		군왕사	서귀포시 소보리당로29번길 110-48(상예동)	미공개	해 동
19		낙원정사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6128-48	787-7998	우 담